

용학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화엄경, 망망대해서 잡은 나무토막 같은 것"
8면


# 현대불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59년 단기 4348년(음력 2월 14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038호 2015년 4월 2일 목요일


금주의 법구-〈잡아함경〉
바람을 마주해 먼지를 털면
먼지가 자신에게 돌아오듯이
미움으로 대하면 반드시 자신에게 온다.

# 불교 국제구호 역량 '하나로'

## '지공회' 등 9개 NGO, 23일 국제개발협의회 출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곳이 모여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해외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공동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3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임원단체 선출, 정관 · 올해 사업계획안 등을 심의했다.

이에 따라 임원단체에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회장)을 주축으로 지구촌공생회(운영위원장), 위드아시아(감사), 더프라미스(교육/연구분과장), 나마스떼코리아(기획/홍보분과장), 아름다운동행(교류/협력분과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엔지오비유디, 월드머시코리아, 젊은부처들은 회원 단체로 참가한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불교계 기관은 약 28곳.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단체간 협력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를 거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2006년 첫 논의 이후 약 9년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그동안 사업 노하우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부와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과 자원배분 등에서도 불교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도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들의 활동 지역이나 대상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하며 "동질성을 기반으로 서로 역할을 분담하거나 협력한다면 동일 사업에 대해 불교계 역량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올해 실무자 교육, NGO 봉사단 통합교육, 신규활동가 발굴 · 양성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해외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다. 9개 단체가 해오던 사업방식을 조율해야 할 필요도 있을 뿐더러 공동 의제 발굴, 진행에 있어서 상당 기간 소요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조계종복지재단 회장 단체**
**국제협력사업 조사 등 진행**
**단체 질적 · 양적 성장 기대**

실제로 해외에서 협력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는 타종교의 경우 진행상 어려움을 종종 토로하기도 한다. 사업참여 동기 등이 각 단체마다 다르고 재원 조달 능력에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최종환 사무국장은 "각기 활동해오던 단체가 한 테이블에 앉은 것만으로 의미가 있다"며 "차츰 논의를 넓혀나가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고 전망했다.

협의회는 이번에 가입하지 않는 불교계 국제개발 단체들의 활동 역시 장려하고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도 담당해 나갈 예정이다.

배현진 기자



9개 교계 NGO 단체들이 모인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는 3월 23일 서울 견지동 템플스테이종합정보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가졌다.




**조계종 노동위 오체투지 "세월호 인양을"**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혜용)는 3월 26일 서울 조계사 앞마당에서 광화문광장까지 '세월호 인양 촉구 오체투지(五體投地)'를 진행했다. 이날 오체투지에는 조계종 노동위원 도철 스님, 혜조 스님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대한불교청년회, 불교환경연대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했으며 기륭전자 해고노동자, KTX 해고 승무원 등 시민들도 동참했다. 혜조 스님은 "국민들 가슴에 큰 상처를 안긴 세월호의 아픔을 기억하고 실종자 수습을 기다리는 가족들과 함께 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세월호를 인양해 이 끔찍한 참사를 마무리 짓도록 정부가 결단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글 · 사진= 노덕현 기자

## 저소득 어린이에게 자비의 손길을

### 동행 · BTN, 봉축 모금 캠페인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세상의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모금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과 BTN불교TV(사장 구본일)에서는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부처님 품에서 행복한 아이들' 봉축 모금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진행한다.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두 달간 진행된다.

이번 캠페인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비 정신을 바탕으로 소외되고 보살핌이 필요한 아동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을 독려하고자 기획됐다.

전국 1천9백여 곳의 사찰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동참을 희망하는 불자는 각 사찰에 비치돼 있는 '모금봉투'에 후원금을 넣어 보시함(불전함)에 넣는 것으로 동참할 수 있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보시금은 국 · 내외 가난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아동 · 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아름다운동행은 "이번 봉축 모금 캠페인을 시작으로 매년 부처님오신날의 자비나눔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 보시하는 뜻 깊은 기부문화를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현진 기자

(02)737-9595, (국 민 은 행 023501-04-224398)

# 광복 70년 남북불교 합동법회 성사 기대

## 대표자회담, 26일 中 심양서… 평화대회 초청엔 北 사의

### 천태종도 28일 협의 진행

남북불교도들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는 8월 15일 남북합동법회를 추진한다. 장소는 금강산이나 개성이 될 전망이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북측 조선불교도연맹(위원장 강수린, 이하 조불련)은 3월 26일 중국 심양 칠보산호텔에서 '남북불교대표자회담'을 개최했다.

본회의에서 앞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강수린 위원장이 선출된 후 빨리 만나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반갑다"면서 "남북불교의 단합을 위한 현안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인사말을 건넸다.

이에 조불련 강수린 위원장은 "올해가 조국해방 70돌, 615공동선언 15돌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니만큼 남북불교가 손을 맞잡고 일을 잘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남북불교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8월 15일에 맞춰 범종단적 차원으로 남북불교도합동법회를 금강산이나 개성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 실무적인 문제를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6.15공동선언을 즈음해서 남북동시법회를 갖는 방안도 협의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강수린 조불련 위원장은 3월 25일 중국 심양에서 만나 올해 사업계획을 논의하는 회담을 가졌다. 사진은 자승 스님과 강 위원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는 모습.

또한 남북 불교계는 남북관계의 정세발전 추이에 따라 남북불교문화재의 보존보수 및 공동전시, 불교유적의 공동발굴 및 조사연구 등을 추진키로 협의했다.

이어 조계종은 올해 불기2559년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해 남북합동법회를 의미있게 추진하자고 제의했으며, 특히 5월 15일부터 18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기원대회'에 조불련 대표단 초청의사를 담은 공식 초청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조불련은 사의를 표명했다.

한편, 회담에는 총무원장 자승 스님, 민족공동체추진본부장 지홍 스님, 민추본 사무총장 진효 스님을 비롯한 실무인원이 남측에서 참석했고, 조불련에서는 강수린 위원장, 차금철 서기장, 조불련 부장 혜안 스님, 김철용 조불련 평양시 신도위원이 참석했다.

이와 함께 천태종(총무원장 춘광)도 3월 23일 선양에서 조불련을 만났다. 총무원장 춘광 스님과 강 위원장은 10월 개성 영통사 복원 10주년을 기념해 평화통일기원대법회를, 11월 천태종을 개창한 대각국사 의천스님의 914주기 열반 다례재를 영통사에서 여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1038호 INDEX


시방세계 5
사찰 봄꽃 축제
프로그램 '다채'



광복 70년 불교 70년 12·13
한국불교 포교 70년

화엄만다라 16·17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





사 고

## 감사편지 공모

–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합장'을 생활화 하기 위한 이 행사에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lin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최 · 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 · 동산반야회 · 공림공양회 · 여여원



보련 기획

✓사찰 직거래 특가 판매 ✓다량 주문시 할인

찬덕연등의 노하우를 보유한 불교용품 전문회사

| 연등 자동 승강 장치 |





| 인등시공 |





| 초파일 용품 |

※사찰명 인쇄 주문 접수중

만 월 등



공 단 등



황 금 등



LED 전구



• 초 절전형
• 수명 30000시간 보장
• 열 발산이 적어 화재 위험 적음

보련기획
H·P 010-9446-1862
TEL 031) 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문현로 189번길 27

# “무차선대회 준비, 교구와 소통 필요”

## 교구본사주지協, 24일 회의서 대회 준비 ‘쓴소리’

### 군포교 진흥 위해
### 1사찰 1군법당 결연

부처님오신날 연등회에 맞춰 개최할 예정인 간화선 무차대회에 대해 교구 본사 주지 스님들이 집행부의 ‘소통 부재’에 대해 비판했다.

조계종 전국교구본사주지협의회(회장 우송)는 3월 2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 제38차 교구본사주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회장 우송스님(신흥사 주지)을 비롯해 부회장 현조 스님(법주사 주지), 총무간사 덕문 스님(동화사 주지),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수불스님(범어사 주지), 원허 스님(쌍계사 주지)을 비롯한 교구본사 주지스님 17명과 총무원에서는 재무부장 보경 스님이 참석했다.

이날 자리에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및 간화선 무차대회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 교구본사와 협조·검토해야 할 사안들이 많지만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주지 스님들의 지적이다.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은 “5월 16일 간화선 무차대회는 한국불교의 현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행사이다. 행사를 여법하게 진행하면 불교의 위상이 올라가나 그 반대이면 위상이 오히려 추락 할 수 있다”며 “대동단결하여 협조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고 말했다.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은 “빠른 시일 내에 교구본사에서 협조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는 ‘1교구본사 사찰 1군법당 자매결연’을 맺어 군포교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자는 의견도 제기됐다.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은 “현재 많은 교구에서 군포교를 위한 도움을 많이 주고 있다. 하지만 420개의 법당이 있지만 수 십개가 폐쇄됐다”면서 “본사와 자매결연을 맺자는 것은 물적 지원 뿐 아니라 인적 지원에 대한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참석한 교구본사주지 스님들은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군포교는 반드시 해야 한다. 한국 불교의 미래이다. 법사들이 앞장서고 스님들이 적극 지원 후원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종립대학 동국대 사태에 대한 결의문 채택 여부도 논의됐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한편, 제39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는 5월 28일 오후3시 제3교구본사 신흥사에서 개최된다. 하성미 기자

# 표충사 토지 환수 ‘길 열리다’

## 창원지법, 13일 매각 토지 반환 결정

전 주지의 비리로 불법 매각된 표충사 토지에 대해 토지처분계약이 무효이며 이를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종단 승인 없는 사찰 토지의 불법 매각이 ‘무효’라는 법적 판단을 얻게 됐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은 3월 13일 표충사가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에 대해 “표충사 공식통장에 입금된 13억 9천 1백만원을 매수자에게 반환하고, 그 토지는 표충사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매수자가 표충사 소유의 밀양시 단장면 구천리 주차장 부지를 야영장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도 “콘크리트 포장을 원상복구하고 식재한 나무를 수거하라”는 판결을 냈다.

이 같은 판결은 종단 승인 없이 매각된 토지는 무효임을 입증한 첫 사례로 남게 돼 의미가 더 크다. 또한 매각 토지 모두가 경내지로 인정돼 이후 전통사찰의 무단 토지매각을 막게 됐다.

또한 주지 개인이 받은 토지매각대금은 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사찰의 공식통장에 입금된 금원만 매매대금으로 인정돼 사찰이 공적기관임을 대내외적으로 천명된 점도 의미가 크다.

표충사 전 주지 재경 스님(김봉권)과 사무장에 대한 형사사건에서는 일반 기업범죄 형량보다 높은 징역 7년 및 징역 4년 6월이 선고됐다.

한편, 관할 교구본사인 통도사는 2012년 8월 토지 불법 매각 사실을 확인하고 전 주지를 형사고발하고, 더 이상의 토지 처분을 막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대책과 사찰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원산, 이하 대책위)’를 구성, 불법 매각된 부동산 환수를 위한 법적 대응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원장 원산 스님은 “수말사인 표충사의 더 이상의 혼란과 재산적 피해를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노력했다. 그러나 전 주지의 도주와 사찰을 사유화한 많은 행위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도 “표충사 사건 전반은 반드시 우리 종단에 분명히 기록되어 향후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경책돼야 한다. 이번 사태에 해결하는 데 힘을 모은 통도사 사부대중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 “30억 예산 사찰부터 재정 공개하자”

## 조계종, 3차 100인 대중공사… 재정 공개 한목소리

사찰 재정 투명화를 위해 조계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예산을 가진 사찰부터 재정 공개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전망이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대중공사’ 3차 회의를 열고 ‘사찰 재정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날 대중공사에서는 현재 조계종 사찰들의 재정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이 발제한 브리핑에서는 현재 조계종 사찰 재정 현황이 공개됐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사찰 예결산서를 제출한 곳은 946곳(35%)에 불과했다. 종법에 따라 사찰들은 의무적으로 예결산서를 종단에 제출해야 하지만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고 있었다. 특히 사설사암이 예결산서를 제출한 비율은 전체 사암에 22%밖에 되지 않는다.

1년 결산금액이 10억 원이 넘는 사찰 81곳 중 사찰 재정을 공개 하는 곳은 48곳으로 59%에 그쳤다. 재정 공개 사찰은 대부분 사찰운영위원회를 이용해 공개했고, 법회와 사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공개하기도 했다.

회의에 참가한 대중들은 각 모둠별로 나눠 분임 토의를 진행한 후 최종 토론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눴다. 이날 최종 토론에서는 30억 원의 예산 규모를 가진 사찰부터 재정 공개가 단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모둠 토론자들은 “사찰 재정 공개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주지가 독선적으로 사찰을 운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스님들의 횡령·호화생활 등의 일탈도 문제가 된다”면서 “우선적으로 직영·직할·특별분담금 사찰과 예산이 30억 원 규모인 사찰

### 10억 예산 사찰 59%만 재정 공개
### 사설사암 22% 예결산서 제출
### “재정 투명화 시대적 과제”
### 범위·내용 의제팀서 결정키로

은 올해부터 재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모둠에서는 “스님들의 보시금을 현실화하고 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면서 “승려복지를 활성화하고 사찰 재정을 사회 활동에 투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승려의식 변화와 더불어 사설사암을 청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4모둠은 “재정을 공개하지 않는 스님들은 중앙종무기관 등에 요직을 맡을 수 없게 하는 등 근본적인 소유욕을 제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사설사암은 과감히 청산하고 사찰 재정을 중앙 집중한 뒤 재분배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3월 26일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종단혁신과 백년대계를 위한 100인 대중공사’ 3차 회의를 열고 ‘사찰 재정 투명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스님들이 독살이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승려복지 활성화도 과제로 꼽혔다.

이밖에도 문화재관람료 사찰이나 관광사찰에는 카드 결제와 전자 결재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하고, 문화재관람료 수입이나 토지처분금 등은 해당 사찰이 아닌 종단 목적기금, 포교와 교육을 위한 기금 등 공적기금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공동추진위원장 도법 스님은 “모둠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이 나온 만큼 이제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면서 “눈에 보이는 성과도 있어야 한다. 모범적으로 올해부터 재정투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행 방안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집행위원장 일감 스님은 “제안 내용은 기획팀과 의제실무팀에서 정리해 다음 대중공사에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입재식에서는 2차 대중공사에서 논의된 미래세대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보고도 이뤄졌다.

포교부장 송묵 스님은 “미래세대위원회를 종령기구로 설치하기로 했으며, 포교원이 주관하게 된다”면서 “위원회 산하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정책연구분과를 두고 외부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를 중심으로 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4차 100인 대중공사는 4월 29일 서울 불광사에서 ‘종단 불신,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릴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박아름 수습기자

# 불교, 세월호 참사 아픔 함께 한다

## 자승 스님, 실종자 가족 예방서 “선체 인양 협조” 약속

## 오는 4월 14일 1주기 위령재
## 4월 16일엔 전국 사찰 타종도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0여 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의 가족은 “유가족이 되고 싶다. 선체를 인양해달라”는 호소를 거리로 나와 외치고 있다. 이들의 호소에 불교계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3월 23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 10여 명이 예방한 자리에서 “세월호 선체 인양을 위해 불교계가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자리에서 실종자 허다운 양(단원고 2)의 어머니는 “참사 1년이 다 돼가지만 아직 9명이 차가운 바다 속에 있다”면서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시신만이라도 찾아 편히 보내주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체 인양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월호 참사 실종자 가족들은 3월 23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선체 인양을 위해 불교계가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은 실종자 권혁규 군의 이모인 베트남인 판녹한 씨가 실종자 귀환을 염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주고 있는 모습.

이어 “현재 미황사 주지 금강 스님 등이 팽목항 법당에서 실종자 귀환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실종자 가족은 아무 힘이 없다. 4월 16일 이전에 선체 인양 결정을 정부가 발표할 수 있도록 총무원장 스님께서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주길 바란다. 불교계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자승 스님은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불교계도 잘 알고 있다”면서 “하루 속히 인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 관계 부처에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자승 스님은 종단 차원의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계획을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오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실종자들의 귀환을 염원하는 위령재와 추모재를 개최하려 한다”고 밝혔으며, “실종자 가족들이 요청대로 4월 16일에는 전국 종단 사찰에서 추모와 귀환의 염원을 담은 타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실종자 권혁규 군의 이모인 베트남인 판녹한 씨가 자승 스님에게 실종자들의 귀환을 기원하는 노란 리본을 달아주기도 했으며, 자승 스님은 노란 염주를 손목에 채워주는 것으로 화답했다.

한편, 이날 예방에는 9명의 실종자 고창석, 양승진,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권재근, 권혁규, 이영숙씨 가족이 참석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68기 최면 전생요법·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최면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전생요법 : 도데체 전생에 무슨일이 있었던걸까?
무의식 속에 숨겨진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통찰력을 높혀 지혜로운 삶을 찾게한다.

빙의치유 :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것일까?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가 들어와있는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원하는 건 무었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사주명리 :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는 빙의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있다.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지는데 백호대살은 저승사자 달고다니니 횡사 악사요…

KBS 굿모닝 대한민국 / MBC 생방송 오늘아침
SBS 미워도 다시한번 / JTBC 부모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 YTN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케이블 방송에 다수 출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출연 화제!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현재 접수중 — 1회 무료수강 후 결정!!

▶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원 (과정별 교재 및 수련CD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솔루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마음의 상처/ 분노 조절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범죄 수사
스포츠선수 기록 향상/ 전생 체험/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 “어린이 포교 콘텐츠 이렇게 활용하세요”

## 조계종 포교원, 26일 포교 콘텐츠 활용 시연회

미래불교 성장 동력이 될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이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교콘텐츠 활용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포교원은 3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공연장에서 ‘미래세대 포교활성화를 위한 어린이청소년 포교콘텐츠 시연회’를 실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회에서는 △법회 및 특별활동 운용 콘텐츠(동대부고 권진영 교법사) △청소년 마음등불 인성프로그램(고명성 포교원 선임연구원) △청소년 마음등불 인성프로그램(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 △포교원 어린이청소년 포교전략(포교원 포교부장 송묵 스님) 순으로 진행 됐다.

‘법회 및 특별활동 운용 콘텐츠’ 발표를 맡은 권진영 교법사는 ‘참나와 비전을 찾는 자기주도리더십’과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CD활용법을 설명했다.

‘참나와 비전을 찾는 자기주도리더십’은 참선, 만다라그리기, 절 수행, 사경 등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해 스스로를 바로 알아 자신만의 꿈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구성했다.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CD에는 입학식, 중간고사, 기말고사, 졸업식 등 학사일정에 따라 어린이청소년 법회 프로그램을 알차게 꾸밀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 법회 실무자 등 200명 참석

### 마음 등불 등 콘텐츠 홍보·시연

고명석 포교원 선임연구원은 ‘청소년 마음등불 인성프로그램’을 발표했다. 고 연구원은 ‘청소년 십문집중명상’ ‘청소년을 위한 명상상담’ ‘청소년을 위한 상담이 있는 명상’ 등 명상프로그램과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설명했다. ‘청소년 마음등불’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포교원 인증프로그램으로 금강선원, 한국명상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지원 스님




권진영 교법사가 ‘참나와 비전을 찾는 자기주도리더십’과 ‘미디어 콘텐츠 프로그램’ CD활용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외 함께 포교원에서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도 소개됐다. 포교원 포교국장 노휴 스님은 △어린이마음거울 108배 △청소년마음거울 108배 △성불도놀이 △육바라밀 △유아용 모바일 게임 ‘응답하라 아바로’ △포교원 소식 경전관련 자료를 담은 ‘M-Library’ 등을 소개했다. 또한 스님은 5월경 출시 예정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도 소개했다.

한편 포교원은 이날 시연회에 소개 된 콘텐츠와 포교콘텐츠를 데이터 CD로 만들어 참석자들에게 제공했다.

지원 스님은 “어린이·청소년은 우리 불교를 책임지고 발전시킬 역사의 원동력이자 다음 세대의 주인공”이라며 “나날이 복잡해지고 각박해져가는 사회 상황속에서 부처님 가르침을 현실에서 실행하며 이웃과 생명을 존중해 ‘나’가 아닌 ‘우리’의 개념으로 불교를 이끌어갈 미래세대 포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월정사, 친환경 사찰로 거듭나다

## 주한 영국대사관, 23일 태양광 시설 설치 기념식

기후변화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 월정사에도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강원도 평창 월정사(주지 정념)와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는 3월 23일 월정사 경내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하고 기념식을 가졌다.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는 ‘그린이즈 그레이트 브리튼(Green is GREAT Britain)’ 캠페인의 하나로 한국 사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친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그간 사찰들은 화재 예방과 냉난방 등 모든 시설을 전기를 통해 운영해 부담하는 전기사용료가 상당했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에 대사관 측은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와 협력해 영국의 전문가를 초빙, 지난해 12월부터 국내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에너지 공급 체계를 분석하고 그 효율성을 측정했다.

이 가운데 환경 보호와 친환경 에너지 활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온 월정사와 이번 프로젝트가 성사됐다.

월정사에 설치된 발전 설비는 6㎾급(1.2x1m 모듈 24장)으로 총 공사 비용 1천400여만 원 중 1천여만 원을 대사관 측이 지원했다. 강원도의 하루 평균 일조 시간을 3.3시간으로 계산할 때 앞으로 월정사에서는 연중 7천227㎾h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게 된다. 이는 한 번에 나무 563그루를 심는 효과와 대등하다.

월정사의 태양광 발전 시설은 25년 보증 기간에 최소 80%의 성능이 유지되며 최대 50년까지도 사용할 수 있다.

주지 정념 스님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계기로 친환경 사찰 구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주한 영국대사관 기후변화과가 강원도 월정사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 설비. 연중 7천227㎾h의 전기를 태양광으로 대체하게 된다.

# 한국불교 ‘참선’ 대중화 이끈다

## 문화연수원 ‘화두명상’ 상설 운영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연수원장 구과)은 전통 참선법을 대중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2015 영원한 행복, 화두(話頭)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영원한 행복의 길’ ‘행복차담’ ‘숲속 명상’ ‘선체조’ 등 휴식을 겸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과 화두명상 체험시간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구과 스님(한국문화연수원장), 박희승 교수(한국문화연수원 화두명상 교수), 정면상 강사(한국문화연수원 선체조 강사)가 진행을 맡게 된다.

화두명상 1기는 6월 12~14일 진행되며, 2기는 7월 24~26일, 3기는 10월 9~11일, 4기는 12월 11~13일에 걸쳐 이뤄진다.

참가 대상자는 고등학생 이상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참가 인원은 30명 선착순으로 모집된다. 참가 희망자는 한국문화연수원 홈페이지(www.budcc.com)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받아 메일(budcc348@hanmail. net) 발송하면 된다. (041)841-5050

신성민 기자

## 기도·법회부터 특집 방송 프로그램까지

# 부처님 출가·열반 뜻 기리는 행사 ‘다채’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전국 각지 사찰에서는 출가에서 열반까지 부처님 일대기를 따라 부처님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한 정진 기도에 들어갔다.

3월 27일(음력 2월 8일)은 부처님께서 번뇌의 고(苦)를 깨닫고 해탈하기 위해 출가하신 날이며, 4월 3일(음력 2월 15일)은 일체의 번뇌를 끊고 열반에 드신 날이다. 불자들은 이 기간 동안 참회 정진에 들어가 부처님의 출가 정신을 기리고 열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긴다.

서울 강남 봉은사(주지 원학)는 3월 27일~4월 3일 매일 오전 10시 특별 기도를 진행했다. 특히 3월 29일과 4월 3일, 5일 오전 11시에는 봉은사 법왕루에서 주지 원학 스님의〈불유교경〉 법문이 마련돼 있다.

조계사(주지 원명)는 출가열반재일 8일 기도를 진행하며 3월 27일 입재 법회를 개최했다. 법사로는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이 참석했다.

남양주 봉선사(주지 정수)에서는 자비도량참법 기도 정진에 들어갔다. 4월 3일까지 매일 12시 청풍루에서 진행된다.

수도권역 뿐만 아니라 지역 곳곳의 사찰에서도 출가열반재일 기도법회를 준비하고 있다.

양산 통도사(주지 원산)에서는 출가재일부터 열반재일까지 8일 간 오후 1시 통도사 설법전 및 금강계단에서 금강경 독송과 108배 정진에 들어간다. 또 매일 오전 11시 △도솔래의상(원산 스님) △비람강생상(성림 스님) △사문유관상(영랑 스님) △유성출가상(우진 스님) △설산수도상(현진 스님) △수하항마상(도문 스님) △녹원전법상(법산 스님) △쌍림열반상(혜남 스님) 등 팔상성도를 주제로 법문이 진행된다.

### 4월 3일까지 출가·열반 정진

### BBS도 특집 프로그램 편성

수행모임 정토회(지도법사 법륜)는 각 지역 정토회 정토법당에서 3월 27일~4월 3일 사시예불을 비롯한 출가열반재일 법회, 300배 기도 정진을 마련해 부처님 삶과 출가열반절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용맹정진에 들어갔다. 마지막 날인 4월 3일 법회 때는 천도재가 함께 봉행된다.

방송을 통해서도 부처님의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 BBS불교방송(사장 이채원)은 출가·열반재일을 맞아 특집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일 오전 9시에 방송되는 ‘아침풍경’에서는 ‘길 위의 노래, 출가에서 열반까지’를 주제로 부처님의 생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후 2시에 방송되는 ‘행복한 두 시’는 ‘당신이 부처님입니다’를 특집 방송한다.

또한 BBS TV는 △도림당 법전 대종사(4월 3일 오후 4시 30분) △법정 스님의 채마밭(4월 3일 오후 7시) △지광 스님의 법고대통(4월 3일 오전 7시 30분, 오후 3시, 저녁9시) △덕현 스님의 마음거울(4월 3일 새벽 1시, 오전 8시 30분, 오후 5시) △경전의 숲을 거닐다(4월 3일 오후 1시, 밤 11시) 등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신성민 기자

# 종교문화축제, 올해엔 괴산서 만나요

##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3월 24일 이사회서 결정

종교 간 화합과 유대를 증진하기 위해 매년 열리는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가 올해는 충북 괴산에서 세계유기농엑스포와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공동대표의장 자승, 이하 종지협)는 3월 24일 2015년도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제19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는 매년 개최되던 서울 청계천 광장에서 벗어나 충북 괴산으로 장소를 옮겼다.

오는 9월 열리는 세계유기농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괴산군이 미리 요청한 탓이다. 괴산군은 엑스포 행사장 내 3000㎡ 규모의 ‘종교와 유기농관’ 설치를 협의회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외에는 에덴동산, 룸비니동산 등 문화융화를 위한 축제의 장도 마련된다.

종지협은 “생명을 존중하는 종교 문화를 지역에 알리고, 지역 사회 및 지역 종교계와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최 의의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외에도 올해 7개 종단 공동대표들이 함께 하는 성지순례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기독교 이영훈 대표회장을 공동대표 이사로 인준하고, 유교(이용주 기획부장)와 천도교(정정숙 교화관장) 운영위원을 감사로 선출했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깊이 있는 연구, 새로운 시각, 다양한 주제!

불교학술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는 도서출판 운주사의 〈프라즈냐 총서〉



1 불교철학의 역사
연속과 불연속
D. J. 칼루파하나/김종욱 역/신국판양장/544쪽/25,000원

2 한국의 불교의례 I
상용의례를 중심으로
정각/신국판양장/460쪽/23,000원

3 밀교학 개론
밀교란 무엇인가
종석/신국판양장/286쪽/12,000원

4 법화경의 성립과 배경
인도문화와 대승불교
塚本啓祥/이정수 역/신국판양장/576쪽/27,000원

5 성철선사상
돈오돈수와 중도·영원에서 영원으로
도대현/신국판양장/448쪽/23,000원

6 인도불교사
그 사상사적 이해
정순일/신국판양장/726쪽/33,000원

7 주역선해 연구
불교사상과 유교사상의 융합
청화/신국판양장/510쪽/25,000원

8 율장의 승단분열 연구
역사와 종교의 변증법적 이해
자현/신국판양장/280쪽/15,000원

9 불성론 연구
도겐의 『정법안장』을 중심으로
최현민/신국판양장/368쪽/18,000원

10 불교의 마음챙김과 사상의학
불교와 의학의 만남
불교와 사상의학 연구회 편/신국판양장/416쪽/23,000원

11 청송의 선과 철학
선사상과 서양철학의 회통
소광희 외/신국판양장/312쪽/18,000원

12 불교미술사상사론
불교철학과 미술사의 통합적 인식
자현/신국판양장/304쪽/18,000원

13 천수경 연구
현행 『천수경』의 성립 및 구조에 대한 분석
정각/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4 역경학 개론
불전佛典의 성립과 전승
최종남 외/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15 현수 법장 연구
화엄교학의 대성자
계환/신국판양장/252쪽/15,000원

16 유식삼십송 풀이
유식불교란 무엇인가
후카우라 세이분 저/신국판양장/500쪽/25,000원

17 불교사회복지개론
불교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 실천체계 및 현황
조보각 외/신국판양장/408쪽/20,000원

18 한국 고대 정토신앙 연구
『삼국유사』에 나타난 신라 정토신앙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320쪽/17,000원

19 경봉 선사 연구
생애 및 사상, 수행과 결과를 중심으로
정도/신국판양장/304쪽/17,000원

20 화엄경의 문학성 연구
입법계품에 나타난 선재동자의 구도여행을 중심으로
도업/신국판양장/360쪽/18,000원

21 정토 수행관 연구
영명 연수의 사상과 수행을 중심으로
법상/신국판양장/524쪽/25,000원

22 정토불교의 역사와 사상
정토불교의 기원과 전개, 교리와 인물을 중심으로
현송/신국판양장/436쪽/23,000원

23 동산의 불교계 정화운동 연구
한국불교 정통성 회복을 중심으로
진관/신국판양장/242쪽/15,000원

24 한국불교 의례체계 연구
시식, 공양, 송주 의례를 중심으로
이성운/신국판양장/454쪽/23,000원

25 청송의 생애와 선철학
동서양의 철학적 사유에 가교를 놓다
소광희/신국판양장/212쪽/15,000원

26 불교세시풍속
기록으로 만나는 불교 세시풍속과 문화
오인/신국판양장/446쪽/23,000원

27 삼계교 사상 연구
신행의 사상과 실천, 신라불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법공/신국판양장/424쪽/23,000원

28 범망경보살계본휘해
천태지자·운서주굉·영봉우익의 주석서들을 종합한 주해
이원정 편/목정배 역/신국판양장/556쪽/28,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 인터넷 서점: 붓다북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

## 일 주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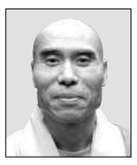
### 35사단 장병수계법회
완주 송광사 회주 도영 스님은 3월 15일 35사단 호국 충경사 법당에서 열린 수계법회에서 신병교육대 장병 300여명에게 계를 설했다.



### 방송포교 활성화 기부금 전달
부산 범어사 주지 수불 스님은 3월 25일 불법전승과 방송포교 활성화를 위한 1억 3천만 원의 기부금을 불교방송에 전달했다.



### 스리랑카 보리수 기증받아
서울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은 3월 25일 스리랑카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을 예방하고 스리랑카 국보 마하보리스 묘목을 직접 기증받았다.



### 만일염불 1차기도 400일 행사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 스님은 3월 29일 경내 설법전에서 만일염불 1차기도 400일을 맞아 달라이라마 제자 청전 스님 초청 일요법회를 개최했다.



### 제5회 능가산 개암사 산신대재
부안 개암사 주지 재안 스님은 4월 4일 오전 10시 부안 개암사 경내 산신각에서 제5회 능가산 개암사 산신대재를 개최한다.



### 봉녕사 제1회 한마음축제
수원 봉녕사 주지 자연 스님은 4월 18일 경기대 실내체육관에서 봉녕사 소임자 스님 및 신도들이 함께하는 '제1회 한마음축제'를 개최한다.



### 스리랑카 사리 이운법회
울진 불영사 주지 일운 스님은 3월 22일 스리랑카 정부지원을 라자마하 사원 불사리를 이운해 설법전에 봉안했다.



### 사리친견 특별법회 및 음악회
열린선원장 법현 스님은 4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사리친견 특별설법 및 타다유키 음악회를 개최한다.



### 금강경 산림법회
대구 은적사 주지 원일 스님은 4월3일~5월 22일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은적사 대웅전에서 '금강경 산림법회'를 연다. (053)653-1572



### 8인 스님 초청 열반절 특별법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4월 3일까지 매일 오전 11시 열반재일 8인 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개최한다. (053)766-3747

# "한국불교 사찰 경관에 반했어요"

## 33관음성지 순례 완주자 이토 마사노리, 박숙자, 신말생

한국의 관음신앙을 느낄 수 있는 사찰 33곳을 일본인과 재일교포가 모두 순례해 화제다. 일본인 이토 마사노리(61), 박숙자(62), 신말생(76) 씨가 그 주인공.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진화, 이하 문화사업단)은 3월 23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 2층 발우공양 내실에서 이토 씨 등 3명에게 33관음성지순례 완료 증서를 수여했다.

'한국33관음성지 연계 전통사찰순례'는 문화사업단과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내 4대 관음성지인 강화도 보문사, 양양 낙산사, 여수 향일암, 남해 보리암을 비롯해 전국 33곳의 관음사찰을 순례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들이 순례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한국불교에 대한 호기심'이었다. 이토 씨는 "일본은 순례문화가 일상화 돼 있다"면서 "불교 순례 프로그램을 찾던 중 한국불교에도 관음신앙을 중심으로 한 순례 코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참가하게 됐다"고 말했다. 재일교포인 박숙자 씨와 신말생 씨도 같은 이유에서 였다.

호기심에서 시작한 한국불교 관음성지 순례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이뤄졌다. 한국에는 총 4회 방문했다. 2년여의 시간 동안 한국 사찰에 방문하며 느낀 점을 말해달라는 질문에 세 명은 모두 "하나 같이 경관이 수려하다"고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


한국불교 33관음성지 순례를 완료한 일본인들. 사진 왼쪽부터 재일교포 박숙자, 신말생 씨와 일본인 이토 마사노리 씨.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33곳 관음신앙 사찰 순례**
**"다음에도 또 찾고 싶어요"**

신 씨는 "여수 향일암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면서 "바위 사이에 기암 절벽에 사찰이 있을 수 있다니 신기했고 경관도 매우 좋았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속리산 법주사를 꼽았다. 산 속에 자리한 대찰과 대불의 위용이 매력적이었다고 했다. 이토 씨도 오대산 월정사가 아름다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들은 관음성지 순례가 다시 오고 싶고, 주위에도 추천해주고 싶은 프로그램이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일본 내 홍보가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꼽았다. 또한 산악 사찰이다보니 연로한 사람이 오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토 씨는 "개인적으로 한국 관음성지 순례를 일본인 친구들에게 추천해주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일본 내 홍보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한다. 일본은 순례가 생활화돼 있고, 유력 언론에 시코쿠 등의 순례 광고가 늘 실린다. 하지만 한국불교 순례 프로그램은 거의 접하지 못했다.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70대 노구에도 순례를 완료한 신 씨는 "일본 순례객들도 나이드신 분들이 많다. 산속 위의 사찰 계단을 오르는 데 불편함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며 "이동에 불편함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문화사업단장 진화 스님은 순례를 완료한 3명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스님은 "관음성지 33곳을 순례하는 것은 한국 불자들도 힘든 일"이라며 "일본의 불자들이 한국불교 성지 33곳의 순례를 완료한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가피가 가득하시길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 법안 스님, 동국대에 장학기금 전달




부산 동국선원 선원장 법안 스님은 3월 25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계영)에 장학기금 2천만 원을 전달했다. 법안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내 동국선원 장학회를 설립할 예정이다.

법안 스님은 "이번 장학기금 전달로 다른 사찰 및 스님, 불자들도 불교종립 대학인 동국대의 발전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안 스님은 현재 동국대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으로 지난 2009년부터 불교인재양성 장학기금과 선센터건립기금 등으로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기부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

## 불교포럼, 2015년 첫 행사 성료




사회 각 분야 재가불자 지도자 모임인 불교포럼은 3월 25일 서울 그랜드앰버서더 호텔에서 조준희 YTN사장을 초청해 2015년 첫 포럼 행사를 열었다.

조준희 YTN사장은 강연에서 CEO의 올바른 경영전략과 자신의 기업 철학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포럼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책특보단장 정념 스님, 김동건 불교포럼 상임대표, 주호영, 이한성, 황인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노덕현 기자**

## "불교시민사회 인재 양성 나설 것"

### 유지원 불시넷 신임 운영위원장



지난 3월 18일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는 신임 운영위원장에 유지원 전북불교네트워크 대표〈사진〉를 선출했다.

유 운영위원장은 불교계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기존의 기대, 즉 불교 종단에 대한 건강한 견제와 비판 외에도 사회변화에 발맞춰 불교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에도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구성원 다수의 공의를 모아 불교 비판 기능을 넘어선 불교시민사회운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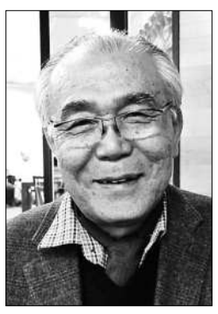
그는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가 발족된 후 지난 4년의 성과로 서로 소통하고 논의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꼽으며 "시민사회가 사회적 경제영역, 인간 중심의 진보운동 등 새로운 운동과 대안 제시에 나서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역시 공의를 모아 새 역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NGO 역량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캄보디아 종합고 건립에 박차"

### 박세동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해외봉사팀 대표



"3년전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에 활동중인 아내를 따라 캄보디아를 방문했다가 뗍뽀디봉 현지의 열악한 현실을 목격하고 봉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해외봉사팀 대표를 맡아 봉사의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해외봉사팀 박세동 대표(67 · 세양산업 대표이사)〈사진〉는 2월 28일~3월 1일 회원들과 함께 라오스 뗍뽀디봉 마을을 방문 우물 기증, 학교 시설 보수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돌아왔다. 앞으로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농업과 기술을 지원하는 종합고등학교 건립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농업과 상업 공업을 아우를 수 있는 고등학교를 위해 회원들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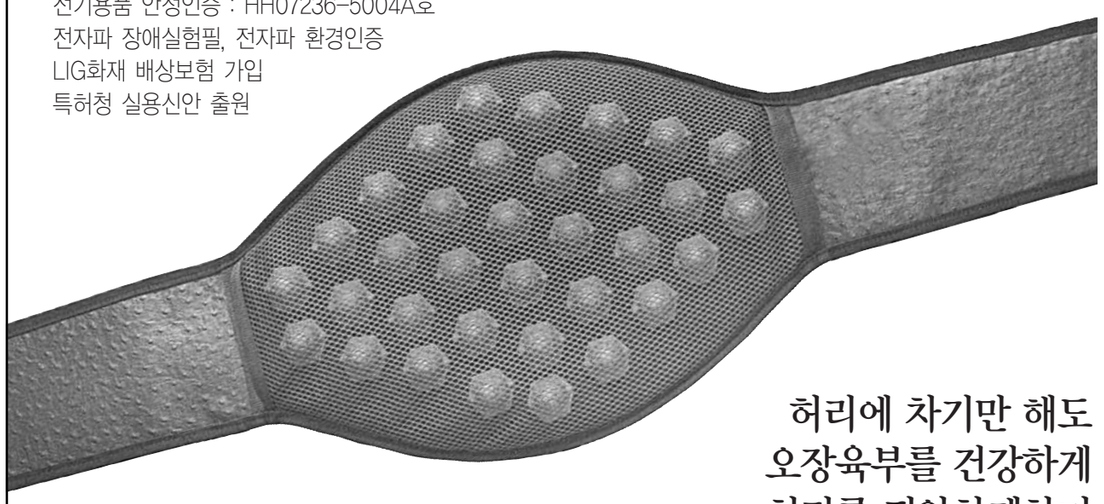
이밖에도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은 △화장실 없는 학교에 화장실 건립 지원 △학교에 유실수 지원 △우물건립 확대 △대학생 재능개발 △대학생 농촌봉사 활동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정혜숙 기자**

## 대구 대관음사 전법사 수여식



대구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회주 우학)는 3월 23일 4층 옥불보전에서 전법사 · 교법사 수여식을 개최했다. 주간반과 야간반으로 나눠 진행된 수여식에는 大관음사 주지 수진 스님과 배선혜 총동문회장을 비롯한 재학생과 졸업생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수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앞으로도 바른 깨달음에 성취와 온 세상의 정토 구현을 위해 정법 교화에 힘 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식약청 의료기기 05-0626호 인증
열침의효능 헬스밸트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적외선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쑥뜸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기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볼이 80℃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적외선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쑥뜸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쑥뜸(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이상)의 원적외선 "열침"이 뱃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 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거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식약청의료용구 개인용온열뜸기 : A83060호
식약청 의료용 전자기 발생기 : A85020호
전기용품 안정인증 : HH07236-5004A호
전자파 장애실험필, 전자파 환경인증
LIG화재 배상보험 가입
특허청 실용신안 출원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십견,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험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님들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053-12-125418 강환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조합자극건강매트, 오십견조끼, 요추베개등 자매품다양)



경남 하동군 쌍계사 십리벗꽃길.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오를 만큼 그 명성을 자랑한다. 하동 화개장터 벗꽃 축제가 4월 3일~4월 5일 열리며 쌍계사에서는 벗꽃템플스테이도 연다. 벗꽃길 트레킹, 스님과의 차담, 불일암 산행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자. 〈현대불교신문 자료 DB〉

# 紅塵에 묻힌 번뇌… 春花보며 '훌훌' 날리자

〈홍진〉 〈춘화〉

## 2015 사찰서 즐기는 봄꽃 축제 프로그램 '다채'

겨우내 움츠렸던 나무들이 꽃망울을 터트리면 세상은 팝콘처럼 환한 봄 세상이 된다. 화려한 꽃들이 상춘객을 유혹하는 봄이 왔다. 봄의 전령사 매화부터 벚꽃 개나리 진달래 참꽃 등 꽃길의 향연이 이어지면 가슴설레는 여행을 계획하게 된다. 사찰에서도 지역 곳곳에서도 봄을 맞아 다양한 꽃 축제를 마련했다. 봄을 만끽하며 사찰에 들러 참배도 할 수 있는 봄의 축제 현장을 모아봤다.

### 진해 군항제서 벚꽃 향기 담자

군항도시 진해에서 즐기는 벚꽃축제로 4월 1일~10일 열린다. 이 기간에는 군악 · 의장이 융합된 군대 예술공연을 함께 볼 수 있다. 진해 대광사는 군항제 기간에 맞춰 3월 31일~4월 1일 '벚꽃향기 가득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 벚꽃 향기 담기, 108배, 편백숲 포행 등을 통해 진해의 봄을 만끽해보자.

### 십리벚꽃길 만끽하며 템플스테이서 '힐링'

경남 하동군 쌍계사 십리벚꽃길은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오를 만큼 그 명성을 자랑한다. 쌍계사부터 이어지는 화려한 꽃구름을 배경으로 추억을 남기는 하동 화개장터 벚꽃 축제가 4월 3일~4월 5일 펼쳐진다.

벚꽃 포토존, 녹차 시음회, 녹차떡 만들기 등 다채로운 행사도 함께 펼쳐진다. 이와함께 쌍계사는 축제 기간중인 4월 4일~4월 5일 벚꽃템플스테이를 실시한다. 1박 2일 동안 화개장터에서 쌍계사 벚꽃길 트레킹, 스님과의 차담, 불일암 산행 등으로 지친 심신을 달래보자.

### 팔공산 동화사 절길 따라 꽃길 감상

매년 4월 대구 팔공산 동화사 옆 동화지구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벚꽃이 아름다운 터널을 이룬다. 4월 4일~10일 사이 이곳에서도 축제가 열린다. 팔공산은 조계종 9교구본사 동화사가 위치해 있으며 전국의 기도명소로 이름난 갓바위가 있어 불자들이 자주 찾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번 축제 기간에도 동화사와 갓바위에 들러 참배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축제를 만끽해보자. 비빔밥축제, 벚꽃가요제, 축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가 제공된다.

### 적멸보궁 참배하고 참꽃 축제를

적멸보궁 용연사가 위치해 있는 비슬산에서도 꽃축제가 열린다. 대구 달성군은 '제17회 비슬산 참꽃문화제'를 4월18~26일 비슬산 자연휴양림 일대에서 연다. 참꽃문화제에서는 참꽃가요제, 참꽃화전굽기 등 참꽃을 소재로 한 체험프로그램이 이어진다.

**쌍계사** 벚꽃템플스테이, 트레킹 등
**화장사** 13회 맞는 가침박달꽃 축제
**심곡암** 산꽃축제, 음악회 · 다도 시연
**동화사** 팔공산 일대 벚꽃축제 풍성

### 들꽃 축제에서 문학을 만나다

통도사 서운암은 4월 25일 '제13회 서운암 들꽃축제'를 마련한다. 금낭화 할미꽃 초롱꽃 등 야생 들꽃 100여종이 만개, 절정에 이를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제5회 전국문학인꽃축제'도 개최 문학 강연 및 시낭송, 깃발시화전, 시화집 발간 등이 마련된다.

### '깨침의 꽃' 보며 혜민 스님 법문도

가침박달꽃은 봄의 경지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로 '깨침의 꽃'이라 불린다. 청주 화장사에서는 5월 1일이면 가침박달꽃 축제를 연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이 축제는 다도시연회, 오카리나공연 혜민 스님 법문 등이 마련돼 있다. 순백색의 진한 꽃향기를 만날 수 있는 가침박달꽃 축제에서 깨달음의 꽃을 만나보자.

### 봄, 산꽃과 음악의 향연을 만끽하자

매년 봄가을이면 산사음악회를 여는 심곡암은 오는 5월 17일에도 '산꽃축제'를 연다. 주지 원경 스님의 원력에 따라 98년부터 시작된 축제는 32회를 맞아 육법공양 다도시연 음악공연 등으로 대중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이밖에도 천년고도 경주에서도 보문로 주변으로 벚꽃을 감상할 수 있다. 매년 진행되던 벚꽃축제는 올해 예산상의 문제로 진행되지 않지만 벚꽃마라톤대회가 열려 주목된다. 4월 4일 오전 8시 경주세계문화엑스포광장 앞에서 시작되며 풀코스(42.195Km), 하프코스(21.0975Km), 10Km 단축코스, 5Km 건강달리기 등이 마련돼 있다. 마라톤으로 건강도 챙기고 불국사 등 불교문화의 보고를 감상할 수 있는 여행을 계획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전북 진안 마이산의 벚꽃도 빼놓을 수 없는 풍경 중 하나다. 마이산 진입로 초입 이산묘부터 탑사를 잇는 2.5km의 벚꽃길이 핑크빛 장관을 이룬다.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봄꽃축제 현황** (날짜순)

| 축제명 | 날 짜 | 내 용 | 전화번호 |
|---|---|---|---|
| 진해 군항제 | 4월 1일~10일 | 대광사 템플스테이 | (055)545-9595 |
| 하동 화계장터 벚꽃 축제 | 4월 3일~5일 | 쌍계사 템플스테이 | 010-6399-1901 |
| 대구 팔공산 벚꽃축제 | 4월 10일~14일 | 비빔밥축제, 가요제 | 010-3424-6624 |
| 비슬산 참꽃 축제 | 4월 18~26일 | 가요제, 화전굽기 | (053)715-1273 |
| 서운암 들꽃 축제 | 4월 25일 | 전국문학인꽃축제 | (055)382-7094 |
| 화장사 가침박달꽃 축제 | 5월 1일 | 다도시연, 혜민 스님 법문 | (043)255-5758 |
| 심곡암 봄 산꽃 축제 | 5월 17일 | 육법공양 다도시연, 노래공연 | (02)914-8860 |



신행 · 포교 소식

##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대회 열린다

### 4월 18~19일 개최, 조계사 · 백련사 등 도심 성지순례

불자 마라톤 동호인들의 축제인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대회'가 4월 18~1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회장 정해선)는 "2015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마라톤을 통해 불법홍포와 신행활동을 증장시키기 위해 '불교 108 울트라 마라톤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대회는 18일 오후 4시 서울 조계사 일주문에서 출발해 신촌 봉원사와 백련사, 수국사, 흥국사, 정릉, 봉국사 등을 거쳐 다음날 오전 9시 조계사로 돌아오는 100㎞구간에서 펼쳐진다.

특히 이번 대회는 마라톤이라는 스포츠를 넘어 불교의 성지인 사찰을 순례하며 체험하는 실천수행이 될 전망이다.

정해선 회장은 "이번 마라톤 대회는 전국서 참가하는 아마추어 울트라마라토너에게 서울과 수도권의 불교문화재를 소개하고 체험하는 코스로 동반 가족들에게는 가정의 화목을 북돋으며 모든 참가자는 함께하는 즐거움을 갖고 나누는 생활공동체의 장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목은 100 · 50㎞ 2개 구간으로 진행되며,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정신 · 신체건강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완주시 완주기록증과 완주기념 메달 및 마라톤용 신발을 상품으로 시상한다.

한국불자마라톤동호회는 "108울트라마라톤대회는 현대인의 체력증진과 정신문화를 복원하는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교인과 불자들의 독특한 생활패러다임이자 건전한 사회만들기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www.108ultra.co.kr) 이나은 기자

## "스펙쌓기보다 상생하는 마음 배웠어요"

### 대불련, 3월 20~22일 석종사서 템플스테이



대불련은 3월 20~22일 충주 석종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회장 이채흔, 이하 대불련)는 3월 20~22일 충주 석종사에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는 '행복한 대학생활을 위한 도움닫기'를 테마로, 40여 명의 대불련 학생들이 참가해 참선, 色으로 말해요, 소리명상, I'm your energy, 108배 사경 등을 체험했다.

대불련은 "지금의 대학생들은 움츠려있지만 에너지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도움닫기'의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스펙 쌓기나 취업준비보다 마음공부와 서로 배려하며 상생하는 삶을 배우기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불련은 금봉선원장 혜국스님을 계사로 수계식을 갖기도 했다. 혜국스님은 수계법문을 통해 "앞으로는 스펙이 좋은 사람보다 어떤 것이 진리인가를 탐색하며 심성지수를 보는 세상이 곧 올 것이다"며 대불련이 미래 희망임을 강조했다.

새내기 오은희(동국대)법우는 "참선으로 나에게 쌓여있던 고민거리와 많은 걱정들에 대해 차분히 정리하고, 108염주를 만들면서 정말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의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들었다"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 명상상담지도사 나도 한번 도전해볼까

### 불교계, 상담심리사 양성

### 상담개발원…제1회 특별과정 개강
### 한국명상심리…인터넷과정도 개설
### "수료후 민간자격증 부여"

개인의 심리적인 장애나 고통이 개인과 가정을 너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같은 심리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직업인 '상담심리사'의 사회적인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특히 명상 등 불교적 요소를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자격증을 주고 있어, 상담심리사의 사회적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도현)은 3월 26일 '제1회 명상지도자 · 지도사 특별과정'을 개강했다.

조계종 종단이 인가한 최초 명상지도 과정으로, 마가 스님, 월호 스님, 김호귀 교수, 정준영 교수, 용타 스님, 인경 스님 등이 강사로 △명상의 이해와 원리 △위빠싸나 · 사마타 이론과 실습 △묵조선 △뇌와 명상 △자애 명상 등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은 "이번 과정은 대한불교조계종 종단자격증인 명상지도자 2급(스님), 명상지도사 2급(재가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며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추구하는 현대인들의 표상으로 우뚝 선 명상리더의 실질적인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원장 인경)은 명상심리상담사 자격연수 제10기 주말반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수업은 4월 4일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9시 30분 부터 7시, 일요일 오전 9시30분부터 5시까지 4개월간 총 8회(160시간) 실시되며, 명상클리닉 4단계, 고집멸도 에니어그램 4단계 등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교육비는 8회 총 160만원으로 매월 20만원 분할 납부 가능하다.

한국명상심리상담교육원은 "이번 교육은 유능한 명상상담심리사 양성이 목적으로 교육 이수자에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가하는 자격증을 수여한다"면서 "거리가 멀어 출석이 어려운 수강생들을 위해 인터넷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명상심리상담사 원격 자격연수 신입생 과정도 모집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명상심리 지도사 2급 과정을 개설한 풍경소리(사무총장 이용성)는 명상과 요가 그리고 미술심리치료 등의 활용과 동시에 소승 · 대승불교에서의 마음구조를 분석 접근해 치유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명상심리 지도사 2급 과정을 개설한 **풍경소리**(사무총장 이용성)는 명상과 요가 그리고 미술심리치료 등의 활용과 동시에 소승 · 대승불교에서의 마음구조를 분석 접근해 치유하는 방법론을 제공하고 있다.

풍경소리는 "12주 과정을 이수하면 명상심리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심사하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인정한 민간자격증"이라며 "명상심리지도사 과정은 나를 치유하고 성장시킴으로써 자아를 확립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자아실현의 주인공이자 나눔의 실천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사)자비명상**(대표 마가)은 동국대 평생교육원과 마인드힐링지도사와 방과후학교 명상지도사 과정을 지난 3월 개강했다. 자비명상에서 주관하고 동국대 평생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공신력 있는 교육으로 인정받고 있다. 마가 스님은 "마인드힐링지도사란 명상과 상담치유 등 마음공부를 바탕으로 스스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고 타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치유와 예방 그리고 교육과 수련을 안내하는 사람"이라며 "또 방과후학교 명상지도사는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청소년들에게 주의력, 집중력, 기억력을 높이는 길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마인드힐링지도사도 교육 수료 후에는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마인드힐링지도사는 국가등록 민간자격 제2014-2980호로, 방과후학교 명상지도사는 민간자격 제2013-1951호로 지정돼 있다.

한편 심리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해에는 금강선원 주지 혜거 스님, 행복마을 이사장 용타 스님,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장 인경 스님, 봉인사 주지 적경 스님, 자비명상 대표 마가 스님 등 불교명상 지도자 및 포교원 인증 명상 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대표하는 명상지도자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기도 했다.

또한 협의체는 지난 2월 향후 명상을 지도할 수 있는 교수배출과 불교명상 대중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다뤘으며, 국가 공인의 명상 자격증 발급을 위해 다각도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 명상나눔, 수원시어린이집 연합회와 협약

### "어린이집 교사 직무만족도 위해 '몸맘건강교실' 프로그램 보급할 것"

명상나눔협동조합(이사장 고대승)은 3월 1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분과장 손판순)와 인성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아동 학대 등 사회문제의 해결과 어린이집 교사의 직무만족도와 복지의 향상을 위해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는 이번 사업을 위해 인성교육을 진행하는 다양한 단체의 프로그램과 강사에 대한 검토를 진행했고, 그 결과 명상나눔협동조합에서 진행하는 '몸맘건강교실'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알맞은 프로그램으로 선정됐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은 "이번 협약을 통해 제공할 '몸맘건강교실' 프로그램은 명상과 교정운동을 함께 교육함으로써 효과적인 교육의 진행이 가능하고, 수강생의 관심과 참여를 높일 수 있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신체균형과 지구력 향상을 통한 스트레스 경감, 직무만족도 향상, 소통과 관계의 증진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손판순 수원시 어린이집연합회 국공립분과장을 포함한 어린이집 원장 30여명을 비롯해 명상나눔협동조합 고대승 이사장, 이용성 상임이사 등이 참석했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이사장 고대승)은 3월 12일 수원시청 중회의실에서 수원시어린이집 연합회 국공립분과(분과장 손판순)와 인성교육 협약을 체결했다.

명상나눔협동조합은 협약에 따라 지난달 말부터 수원시에 소재하는 10여개의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명상교육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어린이와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나은 기자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 육 과 정

⑴ 초 · 중급과정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욕바라, 천수바라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게
◆ 49재, 천도의식

⑵ 상급과정 – 초 · 중급 이수자에 한함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신중작법(104위, 39위), 욕건이
◆ 다게나비춤작법, 운심게작법
◆ 가지게

◆ 개강일시 : 수시모집 가능
◆ 교육시간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연 락 처 : 054)975-4339

■ 강주스님 : 성 우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전화접수 가능)
경북 칠곡군 가산면 인동 가산로 1045

한국불교태고종 대구경북교구종무원



## 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단기속성 3개월과정 (47기)

본 대학에서는 일상적으로 상용화되고 있는 불교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기와 병행하여 실시하며 다음과 같이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 교육안내
· 개강일시 : 2015년 4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30분 (목탁 지참)
· 교육시간 : 매주 화요일, 목요일 오후 2시 30분 ~ 4시 30분
· 교육장소 : 서울 본 대학 (위치 : 서울 조계사 근처)
· 통신교육 : 지방 거주자 (교재, 교육자료, 녹음CD 우송)

2. 교육내용
① 송 주 편 (도량석, 조석종성 등)
② 예 경 편 (상단예불, 조석예불, 각단예불, 향수해례, 사성례, 신중단 등)
③ 헌 공 편 (삼보통청, 중단퇴공, 관음, 지장, 신중청, 각종 불공의식 등)
④ 재의식편 (천도재, 49재, 시다림, 기제사, 명절제사 등)
⑤ 시 식 편 (관음시식, 화엄시식, 상용영반, 구병시식, 방생의식 등)

3. 신청방법 : 전화 또는 방문 접수 (우편, 팩스 접수 가능)
· 사찰 및 포교원에서 실제로 상용화되고 있는 의식방법을 집중 지도함
· 필요에 따라 일부 범음범패를 병용해서 의식 집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함

☎ 02)733-1959 720-1836

깨달음의 법(法) · 전법하는 사(師)
한국불교법사대학.대학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5-3 (견지동, 한선빌딩 3층)
http://pubsa.buddhism.org FAX : 02)737-5305

# 기후변화 아시아 회의, 불교계가 나선다

## 종교 · 시민사회 연대… 4월 24일~5월 1일까지

지난 3월 23일은 UN 산하 세계기상기구(WMO)가 정한 세계 기상의 날이었다. WMO는 '기후변화 대응, 기후과학과 함께' 라는 주제를 올해 화제로 선정한 바 있다. 기후변화가 지구에 대한 위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기후변화를 두고 국제 사회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컨퍼런스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월정사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국내 불교계와 시민사회, 이웃종교계가 힘을 모아 4월 24일부터 일주일간 개최한다. 회의에는 중국, 일본, 네팔, 유럽, 아프리카 등 아시아 25개국과 서구 10개국에서 시민사회 지도자 2백여 명이 참석한다. 회의에서 발표된 선언문은 다가올 12월,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기후체제에 관해 논의하게 되는 파리 기후변화당사국총회에 제출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교토의정서는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국제 협약이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Asia Civil-society Conference on Climate change and Ecology, ACCE)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향후 일정을 공개했다. 이들은 4월 24일 월정사에서 '기후변화 A-Z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서울, 영주, 경주 등을 돌며 지역민들의 자연환경보전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스터디 투어에 나선다. 이어 4월 29~30일에는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과 명동성당에서 메인 컨퍼런스를 통해 기후변화 피해 · 긍정 사례 공유,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5월 1일에는 종교인, 일반인들이 함께하는 기후회복을 위한 연대 단식도 개최할 예정이다. 단식은 2013년 필리핀 하이옌 재난 당시, 필리핀 기후변화 담당관 예브 사노(Yeb Sano)가 UN기후변화회의에서 국제사회에 온실가스감축을 호소하며 감행한 단식에서 비롯됐다.

ACCE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기존 선진국 중심의 기후체제가 아닌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전세계의 동참을 유도하는 온실가

**세계 35개국 2백여명 참석**

**조계종 · 로터스월드 등 주관**

**온실가스 감축계획안 설립 목표**

스 감축계획안 설립이다.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 생존 위협에 내몰린 이들 중 다수는 개도국 주민들. 이상기후로 인한 쓰나미, 태풍이 매년 일어나는 것은 물론 열대 지방인 라오스에서는 얼어 죽는 이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을 정도다. 유럽, 미국, 중국 등 탄소배출국들의 책무가 개도국에게 전가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컨퍼런스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국제사회가 책임있는 온실가스 감축계획안에 합의할 수 있도록 아시아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려주자는 취지에서 개최된다.



기후변화대응 아시아시민사회 컨퍼런스(ACCE)는 3월 25일 템플스테이통합정보센터에서 간담회를 열고 4월 24~5월 1일까지 개최되는 컨퍼런스 일정을 공개했다.

여기에 종교계가 참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조계종 사회부장 정문 스님은 지난해 조직위가 발족할 당시 "자연과 생명을 대하는 인식 변화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이유로 불교계에서는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로터스월드,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원불교환경연대, 자재공덕회(대만), 참여불교네트워크(일본, JNEB) 등이 참석한다. JNEB 오코치 스님은 4월 30일 태양에너지와 지속가능한 숲을 주제로 생태사원에 대해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며 이어 팀별 워크숍을 통해 종교계는 종교 모델과 지역사회에너지 시스템에 관해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오기출 ACCE 조직위원장은 "그동안 시민사회와 종교계가 기후문제에 관해 각각 의견을 개진해왔다면 이번 컨퍼런스는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향후 기후변화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아시아 지역의 기후변화 저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편, 컨퍼런스에는 기후변화 전문가들도 대거 동참한다. 몽골정부에서 환경장관을 역임한 아디야수렌초키오(Adiyasuren Tsokio) 박사,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종교 담당자 나이젤 크로홀(Nigel Crawhall), 예브 사노 등이 참석해 의견을 들려줄 예정이다.

ACCE에는 불교계를 비롯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사회적기업 노나메기, 시민환경연구소, 푸른아시아,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한국브라마쿠마리스협회, 환경운동연합 등 12개 단체가 함께한다.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 재능은 살리고 정은 나누고…대학생 어르신 봉사 활발

## 성북노인 · 송산노인복지관, 건강 · 휴대폰 등 교육


송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대학생들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휴대폰 활용교육을 진행한다.

대학생들의 재능을 살리면서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프로그램이 늘고 있다. 이들 프로그램은 세대간 소통에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홍희자)에서는 4월부터 11월까지 Happy Together! Happy Solution!(해피투게더 해피솔루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생 봉사자와 저소득 홀몸 어르신의 세대통합 프로그램으로 대학생 봉사자들의 전공을 활용한 건강, 뷰티, 영양 관련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하게 된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 학생은 어르신의 건강을 체크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미용예술학과 학생은 손발마사지, 이미용서비스를 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은 어르신들께 식이요법교육을,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은 반려식물키우기, 부채만들기, 말벗서비스를 진행한다. 월 2회 정기적으로 어르신댁에 방문하게 된다.

복지관 측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전공을 활용하는 기회를 얻음으로써 예비 사회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사회 내 홀몸 어르신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높여 상호간의 교류를 통해 세대통합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송산노인종합복지관(관장 법일)도 대진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들과 협력해 어르신 휴대폰 활용교육에 나선다. 3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매주 토요일 9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복지관측은 "어르신과 젊은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해 원활한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기본적인 문자발송부터 시작해 연락처 저장, 스마트폰 기본 기능교육, 카카오톡?앱 설치 등의 심화교육까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폰 교육에 참석했던 어르신들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어르신은 "학생들이 친절히 자세하게 가르쳐 줘 어려웠던 스마트폰 다루기가 한결 쉬워졌다"고 말하며 남은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031)852-2595

**배현진 기자**

# 이주민 관광통역 안내사 수강 모집

## 한국다문화센터, 4월~11월까지 교육 진행

한국다문화센터(공동대표 무원)는 관광산업 발전 및 이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주민 관광통역안내사 양성과정을 진행한다.

수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24주간(주 6시간 수업) 진행되며, 해당언어권의 이민자 및 유학생(취업가능자)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교육과정은 필수 시험과목인 관광국사, 관광자원, 관광법규, 관광학개론이며, 1차 필기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대비반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신청 서류 접수는 4월 13일까지다.

관광통역 안내사는 이주민들에게 인기있는 직종. 지난해는 60명이 수강해 20여명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올렸다. 올해에도 결혼이주여성들의 문의가 많아



통역안내사 과정에 참가했던 이주민들.

수강인원이 120명으로 확대됐다.

이번 사업은 한국다문화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사랑의 열매가 지원한다. (02)737-0467~8

**배현진 기자**

# 이천시장애복지관, 장애인식개선 공모전

## 초등학생 포스터 그리기… 4월 10일까지

이천시장애인복지관(관장 희광)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기념해 '제2회 이천시 어린이 장애인식 개선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한다. 작품 접수는 4월 10일까지다.




이번 공모전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내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와 올바른 인식 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공모전 시상식은 4월 18일 이천시 장애인식개선캠페인 개회식에서 진행되며 이후 이천시내 기관을 순회하며 전시를 진행할 예정이다.

응모를 희망하는 이천시 거주 초등학생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작품과 함께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http://ich.sgwon.or.kr

**배현진 기자**

# "자원봉사교육 신청하세요"

## 조계종복지재단, 사찰대상 교육… 봉사조직 지원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에서는 사찰을 대상으로 무료 자원봉사교육 접수를 받는다고 3월 24일 밝혔다. 교육은 사찰 내 자원봉사를 조직 · 양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진행되고 있다.

사찰이 교육 신청을 하면 재단 직원이 해당 사찰을 방문해 '불교사회복지와 자원봉사', '자원봉사자의 역할 및 자세' 등 자원봉사기본교육을 5시간에 걸쳐 진행한다.

이후 사찰은 조계종자원봉사단의 지부(회)로 등록되며 '자비나눔실천도량' 명패도 부착된다. 향후 1년간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활동지도 및 활동실적 인증관리를 받을 수 있고 사찰 자원봉사단 발대식 및 운영도 지원된다.

재단은 "20년동안 조계종자원봉사단를 운영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원봉사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연대를 강화하고 불자들의 보살행을 실천하는 새로운 방식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교육 사찰을 조계종자원봉사단 지부로 등록함으로써 전국 불교자원봉사조직을 네트워크화하고 있다.

본 교육은 전국 사찰 및 신행단체 어디든 신청가능하다. (02)6334-2212

**배현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88기 佛教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 | |
|---|---|
|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
| 신행과정 (1년) |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5년 4월 中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명리학 과정 (임성도 교수)

① 명리학 : 초급, 중급, 고급 (각과정 3개월) 2시 반 ~ 4시
② 성명학 : 초급, 상급 (각 3개월)
▶ 개강일시 : 2015년 4월 中 (매주 월)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현재 사용중인 법당 앰프에,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장엄한 소리를 책임집니다.


● 大出力 믹싱앰프

오래된 앰프를 『大出力 믹싱 앰프. 스피커』로 교체하시면 구형 앰프는 30만원 보상!!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고급 앰프케이스 무료 보시 합니다.



◇앰프 구성 :
· 스테레오 앰프 300왓트 1대
· 소형 믹서 5채널 1대
· 탁상형 구즈넥마이크 1대
· 사회자용 마이크 스텐드 1대
· CD기기 1대
· 최고급 법당 전용 스피커 1셋트
· YD-675 핸드 마이크 1대
· 무선 핀 마이크 +헤드셋 1셋트
· 고급 앰프케이스 1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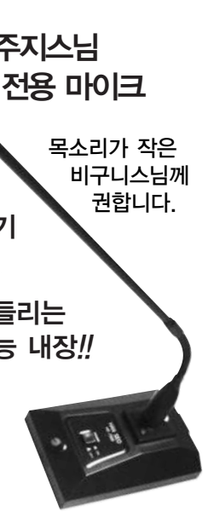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특징 :
자체 제작하는 스피커로 소리가 웅장합니다.
핀 마이크와 잘 맞습니다.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28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서울시 양천구 신월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 “화엄경, 망망대해서 잡은 나무토막 같은 것”

범어사 관음재일 법회

용학 스님(범어사 승가대학 학장)

화엄을 알고 보면 만물이 아름다워진다. 만물은 각기 다른 곳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 맞게 스스로 주인공이 된다면 모든 것이 참되어질 것이다. 용학 스님은 지난 3월 14일 관음재일을 맞아 범어사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청중들에게 법문했다. 용학 스님은 화엄을 통해 법신을 이롭게 하면 육신 또한 지혜광명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리=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용학 스님**은 … 1986년 해인사에서 명진(明振)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 은해사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통도사에서 중강을 역임하고 2002년 무비스님에게 전강한 후 2008년부터 범어사 강주 소임을 보고 있다. 법호는 법해(法海)이다.

### 지혜는 눈동자 굴릴 틈도 없이 나타나야

인간은 매일 돈, 병마와 싸우는 것도 모자라 뜻이 맞지 않는 사람들과도 다투며 전쟁같은 삶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삭막한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이 중생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인간에게는 의지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은 인간에게 있어 눈먼 거북이가 망망대해를 헤매다 얻은 나무토막 같은 존재입니다. 〈화엄경〉은 임진왜란 당시 왜구 침략으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국민들이 어디 기댈 곳도 없고 먹을 식량도 부족하고 도탄에 빠졌던 시절, 상처받은 중생의 마음에 큰 위안을 줬습니다. 의상대사의 진신사리라고 표현되는 〈화엄경 법성게〉 역시 화엄경의 정수를 담고 있죠. 의상조사는 법을 구하기 위해 만경창파를 건너 중국에 유학합니다. 하루 두 끼를 보리죽으로 때우며 〈화엄경〉을 공부한 후 210자 법성게를 펴냈죠. 그 덕분에 우리는 〈화엄경〉 80권을 다 읽지 못해도 그 정수를 운좋게 읊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생이 개인적인 번뇌에 빠져있거나 국난에 처한 상황마다 부처님의 위신력은 큰 힘이 되는 듯 합니다.

〈화엄경〉에는 지혜가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가서 법의 공적함을 환하게 알게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혜가 모든 형상에 다 들어간다는 것은 바른 깨달음의 안목으로 모든 존재의 실상을 꿰뚫어 안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면 탐심이 떨어지고 청정하게 되며 자비로움이 빛처럼 발하게 됩니다. 사람의 음성은 공기의 힘을 빌려야 비로소 들을 수 있지만 빛은 공기가 없는 진공 속으로도 뚫고 나갑니다.

이와 같이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소리처럼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해탈, 삼매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공간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텅 빈 공간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마음껏 대자대비를 펼칠 수 있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사람이 살피는 힘은 아주 고요하고 집착력이 없이 청정합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생각에 무게가 없고 행동에 앞서 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비심을 좀 더 빨리 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생각은 잡념을 떨치고 나면 지혜의 빛으로 바뀌어 온 사방에 떨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면 즉시 방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가 아닌 이해타산으로 살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보고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혜라는 것은 눈동자를 굴릴 틈도 없어야 합니다. 가만있어도 900번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사람입니다. 진정 지혜로운 자는 잠깐 다른 생각을 할 겨를도 없이 지혜 발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 만물이 ‘수처작주’ 할 때 화엄 이뤄져

무비 스님은 〈화엄경〉 강설에서 “화엄해상의 대중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모든 존재들이다. 컴퓨터 자판의 낱낱 글자에서부터 학용품, 책, 침구, 운동기구, 풀, 나무, 구름, 하늘 모두 화엄해상의 청법 대중”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스님은 “끝없는 품류들이 가득하고 형색과 부류가 각각 다르지만 모든 사물들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도 하셨죠. 때문에 “인생을 찬탄하고 그 존귀함을 되새기기를, 이를 찬탄하는 노래를 중생의 업과 번뇌가 다할때까지 목청껏 부르자”고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화엄을 알고 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만물은 각각 형상과 모양이 다르고 그 안의 성질이 다릅니다.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에 앉고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에 앉고 새는 날고 굼벵이는 땅속에 기어 다니며 매미는 나무에 붙어 맴맴 웁니다. 모든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 작은 물체라도 제각기 분수에 맞는 역할을 저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은 태양대로 환하게 비추고 바람은 바람대로 시원하게 지나가며 만물을 자라게 하고 또 향기롭게 합니다. 봄바람 한 줄기 지나면 꽃이 피며 나뭇가지의 잎사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새싹이 돋아납니다. 바람은 까닭 없이 꽃과 잎사귀에게 한 줄기 생명을 주어 만물을 이롭게 합니다.

이처럼 각각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처작주(隨處作主)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은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체적이고 자유자재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의 주관을 세우지 말고 본심으로써 정직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든지 정직할 태세를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일이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이뤄내야 합니다. 수처작주라는 말에서 제가 든 생각은 내가 만약 사형수라면 어땠을까 입니다. 이미 못된 짓을 저질러 사형선고를 앞두고 있는 사형수는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끝까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할까요. 아니면 남은 생이라도 봉사하고 살아야할까요. 이미 살아온 업장이 두껍다면 참회를 위해 조그마한 것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처작주라는 말을 대할 때마다 저도 제 위치에서 도리를 다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가슴이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인간이 당장 자신 앞에 정직하다면 어느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태양이고 어머니가 태양을 받치는 나무숲이라 하면 태양이 아무리 내리쬐도 나무숲에 불이 피지 않지요. 돋보기가 있어야합니다. 그 돋보기가 인연입니다. 바로 제 업연입니다. 그러나 육신은 부모를 빌려 탄생이 됐을지 몰라도 법신(法身)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법신이라는 것은 본래 스스로 왔다가 스스로 가는 길입니다. 법신을 다른 말로는 진신 또는 진심이라 표현할 수 있지요. 육신은 유생유멸이라 생명을 따라 태어나고 죽지만 법신은 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법신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법성정토(法性淨土)에 있습니다. 그러나 허공에 지나가는 바람을 볼 수 없듯 법신도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화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 **음성 들으려면 공기 힘 빌려야 하지만**
> **빛은 진공상태에서도 볼 수 있어**
> **자비행도 빛처럼 조건없이 발휘 가능**
> **지혜로운 이는 마음껏 대자대비 펼쳐**
>
> **생각은 바람에 흩날리는 밀가루 같은 것**
> **밀가루에 물 한 방울 넣고 반죽하듯이**
> **공부도 열심히 반죽해 단단해져야**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에게나 본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가운데 육신이 법신을 잘못만나면 고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스스로가 내면의 법신을 잘 다듬고 개발해 육신을 편하게 해줘야 합니다. 육신은 생로병사의 과정에 따라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썩어 없어지지만 법신은 생로병사를 따르지 않으므로 법신을 잘 연마해 육신이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고 순일하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니 내 발길 한 걸음 내딛는 곳 마다 내 시선 한 눈길 가는 곳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을 되새겨, 어느 곳에서든 스스로 주인이 되어 모든 것이 참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 장님이 보물을 찾을 수 있을까

일체 장엄은 모과가 익어가고 매화가 피고 바람이 불고 햇빛이 쏟아지고 물이 흘러가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중생에게는 선근이 없고 삼매가 없고 지혜의 안목이 없고 신통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늘 살아가는 것에 여기저기 시달리다보니 강가에 가서도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지혜복덕이 없으면 보물 장소를 가르쳐 줘도 가지도 못하고 간다 한들 보물을 챙기지도 못합니다. 눈먼 사람이 보배섬에 산다고 한들 보물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화엄경〉의 보물 역시 챙길 수 없는 것입니다. 화엄경을 숙지하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밤도 별이 가득하고 내일 밤도 별이 가득할 것입니다. 동시에 참 슬프게도 오늘도 생명이 죽어가고 내일도 죽어갈 것입니다. 인생살이가 늘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꽁꽁 얼어 움직이지 않는 영원히 흐르지 않을 강물이 되고 싶단 생각도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람결에 함께 흘러가며 비가 내리면 비를 온 몸으로 맞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밀가루를 바람결에 두면 작은 바람에라도 펄펄 날아가 모두 흩어집니다. 우리 생각이란 것도 바람결에 내놓은 밀가루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에 물 한 방울 떨어트리고 주물러 단단한 반죽덩어리를 만들듯 열심히 공부해 자타일시 성불도를 이뤄야 합니다. 약찬게 뜻을 모르더라도 함께 불경을 외우다 보면 괴로움이 사라지는 때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염불이 단순 반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열매가 익어가듯 내 마음의 열매를 익혀가는 과정이라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보살도를 닦기 위해 수행을 할 때 기본적으로 청정한 계율아래 공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은 깨끗하되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의식주가 적당히 유지가 돼야 수행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어사처럼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공부하면 더욱 좋겠죠. 관음재일 법회를 찾아오신 여러분은 스스로 배우고자 오신 분들이죠. 마음내서 오신만큼 스스로 보살이다 생각하시고 남에게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보살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음식, 수면, 몸, 숨,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조절해야 합니다. 부처님의 도를 행할 때는 스스로 거룩한 도를 행하고 못난 사람도 교화해야 진정한 보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삿된 망령들을 버리고 정법의 길을 가야합니다. 우리 모두가 발보리심하여 정법도량에 앉아 도리를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靑雲天氣轉換秘法(청운천기전환비법)

**한국풍수지리사상 처음으로 조상 묘(墓)의 수맥파를 이장(移葬)없이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전환시키는 청운천기전환비법(靑雲天氣轉換秘法) 탄생(誕生)!**

조상의 묘(墓)로부터 음기(陰氣)의 수맥파가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흘러 냉기(冷氣,저체온)를 유발시켜 각종 암, 우울증, 정신분열, 빙의, 성인병등 난치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나, 현대의학에서는 가족력이나 유전성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집안에도 음기(陰氣)인 유해파를 생기(生氣)로 완전히 전환(轉換)키켜야 보다 빠른 치유와 사업성취가 가능(可能)하다는 것이 소승(小僧)의 오랜 시험(試驗)으로 입증(立證)되고 있습니다.

선친이나 자매, 형제 중에서 같은 암(癌)이나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거나 사업부진, 가정불화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필히 조상의 묘(墓)나 본인이 직접 수맥파 검사를 받으셔서 (현장 방문없이 전화상담으로도 확인가능) 조상묘(7대까지)의 백골(白骨)에서 자손의 혈맥(血脈)으로 흐르는 수맥파를 직접 확인하여 유해파로 인한 음기(陰氣)의 조상의 묘(墓)를 이장(移葬)없이 현장에서 즉시 생기(生氣)의 명당(明堂)으로 모시고, 가족건강과 가정평화를 이루시고 조상(祖上)께 효도(孝道) 하십시오!

**건물, 가정의 수맥파도 현장에서 100% 차단!**

만약 당신이 수맥파 위에서 잠을 잔다면
당신은 이미 병(病)들었거나 병들 위험이 매우 큽니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 580-1번지 / 전화 031-595-8767

善財寺 靑雲 합장

# 영 혼 의 세 계 ( 빙 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 "대승불교, 실크로드 타고 역수출 됐다"

### 금강대 · 섬서사범대 28일 공동국제학술대회서 대거 주장

**실크로드의 상호 교류성 재조명**
**정치경제의 종교 전래 영향 분석**

**韓 한지연 "중국 정치경제 확장 영향"**
**印 나심 "간다라 지역서 증거 발견"**
**中 왕신 "서역 · 중국 승려 상호 무역"**



실크로드 문화교류 디지털 조감도. 한국학계는 실크로드의 종점이 경주이며 단순한 불교전래에 그치지 않고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등을 통해 세계문화 교류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 있다.

흔히 대승불교는 인도에서 발원해 실크로드를 거쳐 중국으로, 또 한국으로 전래됐다고 여겨져왔다. 이런 학계의 인식을 뒤짚는 연구논문이 국제학술회의에서 대거 쏟아져 나와 눈길을 끈다.

한국 금강대와 중국 섬서사범대가 공동 개최한 '종교와 민족, 실크로드'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대승불교가 중국에서 정립됐으며,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힘입어 간다라지역과 인도지역에도 역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 학계가 최근 주장하고 있는 한국불교의 실크로드 지역 영향에까지 향후 연구 확장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지연 금강대 HK교수는 '고대 실크로드 경제권의 변화와 대승불교의 발전' 에서 실크로드 지역이 중국의 영향을 보다 크게 받았으며, 이로 인해 중국에서 꽃을 피운 대승불교가 역으로 실크로드에 전래됐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흔히 대승불교는 서북인도 혹은 인도 내부에서 흥기를 거쳤다고 보지만 당시에는 소승교단이 우세해 입지를 다지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소승 내부에서 '대승' 으로 이르는 의식이 있었는지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이어 "대승불교가 발전해 동아시아 전역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 작용한 것이 바로 '중국' 이라는 요소"라며 "중국에 불교를 전해준 전법승과 그들의 사상전환, 더 나아가 귀국 후의 활동이 서역 및 서북인도 각 국의 불교에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계기로 작용했으며, 그 결과가 대승불교라는 범주의식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서역 출신 승려들의 중국 내 활동과 귀국 후 활동을 대승불교의 발전과 관련하여 검토했다.

한 교수는 "오늘날 실크로드로 칭하는 서역은 인도왕조의 영향권에서 점차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권으로 속하게 되는데 이로인한 상호교류로 중국에서 확고히 자리한 대승불교가 역수출되는 결과를 낳게 됐다"고 말했다.

나심 페샤와르대 교수는 '9세기 이전 간다라와 중국의 상호 문화 교류 – 새로운 고고학적 근거들' 에서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했다.

나심 교수는 간다라 지역의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에서 중국이 간다라 지역에 미친 영향이 컸음을 논증했다. 나심 교수는 "문화는 상호교환되는 것으로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 및 특정 불교에 대한 선호가 간다라 불교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며 "여행객들의 진술, 비문의 기록, 고전학(古錢學)적 증거 등으로 입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나심 교수는 최근 파키스탄 북서부에서 발견된 비문과 주화에 대해 "이는 중국의 영향을 받은 증거"라며 "중국의 영향이 간다라 불교의 변화를 초래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강조했다.

왕신 섬서사범대 서부변강연구원 원장은 '한당시기의 서역불교와 그 동전경로' 에서 당시 승려들이 홍법활동과 함께 각자의 특수한 정치 · 경제적 활동을 벌였음을 주장했다.

왕신 원장은 "서역승려들과 중국 승려들은 특수한 불교전파 과정으로 상업무역활동, 혹은 군사정벌과 연계됐다"며 "이는 불교가 정치적 목적의 매개가 됐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천태학, 불성에 악이 있다는 정의는 틀렸다"

### 김성철 교수,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서 '여래성악설' 논쟁 불붙여

**천태지의의 〈관음현의〉 정밀 분석**
**일본학계 성악설 주장 정면 반박**
**"여래성악설은 여래행악설" 해석**



불성에도 악이 있을까? 천태학 교리 중 여래성악설은 '불성에도 악도 있다' 는 이론이다. 흔히 불심을 이야기 할 때 자비심을 떠올리기에 '불성에 악이 있다' 는 여래성악설은 중국 천태학 논쟁에 이어 근현대 일본에까지 그동안 학문적 시비가 끊임없이 일어왔다.

이러한 논쟁에 김성철 동국대 교수〈사진〉가 새롭게 불을 붙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차차석 박사가 "성악설이 천태를 대표하는 사상이라고 인정하는 입장에 서 있다"고 밝히며 여래성악설이 중도실상의 세계를 지향하며 중생을 제도하려는 원이 반영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다.

김성철 동국대 교수는 3월 28일 동국대 만해관에서 열린 불교학연구회 봄논문발표회에서 "〈관음현의〉의 '여래의 성에 악이 있다' 는 일반적 이해와 달리 '연인(緣因)으로서의 불성과 요인(了因)으로서의 불성에 악이 있다' 는 이론"이라고 정의했다.

〈관음현의〉는 천태 지의대사(538~597)가 〈묘법연화경〉 중 '관세음보살보문품' 을 분리해 별도로 강의한 것을 그 제자인 장안 관정(561~632)이 정리한 것이다.

천태 지의대사는 〈관음현의〉에서 불성을 정인불성(正因佛性)과 요인불성(了因佛性), 연인불성(緣因佛性)의 세 가지로 구분하고 연인과 요인불성에는 선뿐만 아니라 악도 있음을 밝힌다.

김 교수는 "천태지의가 설한 성악(性惡)은 '부처의 성품으로서의 악(惡)' 이 아닌 부처의 씨앗인 연인불성과 요인불성 중의 '악' 이며 세상에 있는 악임과 동시에 성불할 모든 중생이 짓는 보살의 악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 '여래의 성(性)에 있는 악' 으로 이해하면 지의의 불성론 뿐만 아니라 당시의 일반적인 불성 이론과도 어긋난다" 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렇게 해석하면 성악설은 〈관음현의〉뿐만 〈본생담〉, 그리고 〈유마경〉으로 연원이 거슬러 올라간다. 탐진치의 번뇌와 심불선도의 악행이 모두 여래의 씨앗이라는 〈유마경〉의 내용에만 보아도 이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이어 "일본학자들은 여래성악사상에서 '악(惡)의 성(性)을 갖추고 있다는 사상' 이라거나 '부처에게도 악(惡)이 있는 것' 이라거나 '부처는 악의 본질(性惡)을 본구(本具)하고 있다' 고 까지 설명하지만 '여래가 성악을 갖추고 있다' 는 것과 '여래가 성악을 끊을 수 없다' 는 것은 의미가 다르며 이때 성악(性惡)은 '세상에 있는 악(惡) 그 자체' 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끝으로 "천태지의의 여래성악설은 여래용악설(如來用惡說), 여래행악설(如來行惡說)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라며 " '관음현의' 의 독특함은 여래성악설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여래용악설에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 한국 종교지형 변화…불교, 무엇해야 하나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불광연구원(이사장 지홍)은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 를 주제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공동포럼을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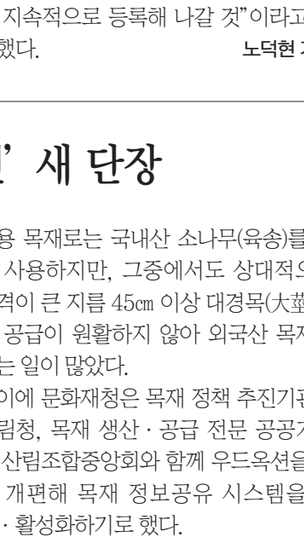
이번 포럼에서는 '한국인의 종교' 를 제작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가 조사결과를 설명하며, 박수호 중앙승가대 강사가 불교 관련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다.

이어 30년간 한국 종교지형의 변화와 종교성향의 변화에 따른 불교의 대응, 종교의 사회적 영향력과 불교,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주요현안, 미래 불교 등을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박경준 동국대 교수,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고명석 포교연구실 선임연구원, 박수호 중앙승가대 강사, 박희승 백련불교문화재단 연구실장 등이 참여한다. (02)2011-1911

**노덕현 기자**

# 문화재청, '무관의 국보' 보물지정나선다

### 국립박물관 등 국가기관 소장 문화재 우선 대상으로


무관의 국보였다가 2014년 보물로 지정된 사택지적비

'무관(無冠)의 국보' 로 불리는 국립중앙박물관 등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품을 국가문화재로 등록하는 사업이 진행된다. 문화재청은 민간이 소유한 유물을 위주로 국가문화재를 지정해 왔지만 국립박물관 소장 유산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문화재청과 국립중앙박물관은 이에 따라 2014년 전국 국립박물관이 보유한 유물 65건 181점을 국가문화재로 우선 지정하고 이어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해나가기로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문화재청은 3월 24일 이성계가 조선건국전 발원해 봉안했다는 금강산 월출봉 출토 이성계발원사리기 · 희귀 고려나한도 6점 · 12세기 제작 은제 도금 탁잔 · 최고(最古)의 함통 6년명 금고(국립중앙박물관), 금령총 금제허리띠(국립경주박물관), 무령왕릉 금동제신발 등 일괄출토품(국립공주박물관) 등을 상반기 중으로 국가문화재로 승격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5년에는 불교조각 중 국립중앙박물관 불상인 금동관음보상입상, 금동대세지보살입상 등의 금동아미타삼존불이 검토되고 있다.

이미 양 기관 협약에 따라 2014년 12월 경주 월지(안압지) 출토 금동초심지가위(국립경주박물관 소장), 백제 의자왕 때 대좌평을 지낸 사택지적이 불당과 탑을 건립하면서 세운 부여 사택지적비(국립부여박물관)가 각각 보물로 등재됐다.

황룡사 9층목탑 금동 찰주본기(국립경주박물관), 원주 학성동 철조약사여래좌상(국립춘천박물관), 전(傳) 회양 장연리 금동관음보살좌상 등 9건도 보물 등록이 예고된 상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약정된 181점 모두를 올해 내 조사해 하반기 내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보물 예고를 마칠 것"이라며 "내년부터 중장기 과제로 매년 최대 35점까지 지속적으로 등록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덕현 기자**

# 목재 정보공유 '우드옥션' 새 단장

문화재청은 국내 최대 특수목 취급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사이버 거래장터인 우드옥션(www.woodauction.kr)이 개편 오픈한다고 3월 25일 밝혔다.

우드옥션에서는 문화재수리용 특대재(特大材)를 비롯한 다양한 특수용 목재의 공급 정보 검색이 가능하며, 판매자와 수요자 간 거래정보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다.

전통 건축물 등지에 소요되는 문화재수리용 목재로는 국내산 소나무(육송)를 많이 사용하지만, 그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격이 큰 지름 45㎝ 이상 대경목(大莖木)은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외국산 목재를 쓰는 일이 많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목재 정책 추진기관인 산림청, 목재 생산 · 공급 전문 공공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와 함께 우드옥션을 전면 개편해 목재 정보공유 시스템을 구축 · 활성화하기로 했다.

**노덕현 기자**


**인간의 길흉화복**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혼들의 영향력 확인 천도법**

**일반적인 천도제가 아닌 내가영혼을**
**체험하는 확실한 영가천도법. 환자와 가족이 확인**

1 영가장애를 상담자리에서 영가가 누구인지 확인체험
2 영가를 환자의 몸에서 확인가능 (6하원칙에 의한 빙의 경로 확인)
3 인체오라장 (생명전기장측정을 통한 과학적인 빙의 확인 치유과정 확인)
4 일반병, 정신병, 영가질환의 구분 (질병의 원인 영가장애 확인)
5 보라색과 파란빛, 황금빛으로 영가들이 천도되는 것을 확인
6 암, 당뇨, 고혈압,중풍,치매,우울증, 불면증,공황장애, 트라우마, 빙의, 무속병, 환청, 환시 현대의학으로 안되는 질환의 원인규법 (유전병 치유, 특이성 질환)
7 영가들의 수준확인
⇨ 저급영가 – 한과 집착 질병 호소
⇨ 중급영가 – 진리를 찾아 방황과 혼돈
⇨ 고급영가 – 내면의 깨달음에 대한 갈망
8 신앙생활과 기도를 해도 진도가 없는분 스님, 불자분, 포교원
9 기도명상,만트라진언,영언수련을 통한 자신의 영혼과 교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과 삶의 가치확립, 영혼의 윤회 과정을 확실히 앎

검색 유튜브강의 자각선원 | 네이버카페 자각선원

자각선원 (인체전기파동의학) ☎ 043)296-5258. 010-9242-5259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원봉로 93



**대도로 두뇌와 마음을 열어 우주만법을 담아 견성도통 천지공사로 귀신잡는 마장 살생 명부를 천부에 올려 견성도통 령과 혼 영육으로 도인되는 을미년 유불선도통 천안통 입문 대법회**




거부장자로 사는 달마구입처 : 태일
02)821-6622
010-3239-3110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대도는 진법과 스승없이는 세울 수 없는 하늘땅 사람에게 감춰진 천부경, 지부경, 인부경, 예단경, 금강진법사구계인 수,육,보,영,진종도, 민족업, 봉천명, 비법은 말과 글, 문자와 참선수행자 종교를 초월 역대선지식님들도 풀지 못 한 진법인 도, 고, 마성인 귀신 장난에 수행자나 스님 및 도인들도 철퇴맞아 병에걸려 수행자의 문전만 남기고 갈길을 가지 못하는 귀신장난인 령과 혼 그리고 령육이 하나로 되는 경신일 자오시에 빛으로 자신을 구하고 병겁을 넘어 비구, 비구니, 보살들도 종교를 초월하여 도통하는 정법안장 마음에 문을 여는 유불선 자오시에 천지개벽은 밖에서 오는것이 아니고 내안에 삼신과 오장육부의 대지진으로 자신을 이겨야 자성의 빛을 보는 천지인신 개벽으로 도인, 신선, 선녀가 되는 의통 능력의 초 신통력을 얻는 천하제일의 도법인 불생불멸하는 무량광자로 일류스승 되소서...?
신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원방각 해인도법의 잣대로 만유를 제도하고 마음의 두뇌를 지배하는 법으로 지구촌 가장 빠른 수행자, 스님, 성직자, 도인들의 성불 도통하는 법은 하늘, 땅, 사람, 자연, 귀신, 바다와 자연이 하나로 되는 날이 육십갑자인 경신일 자시와 오시에 입문하여 도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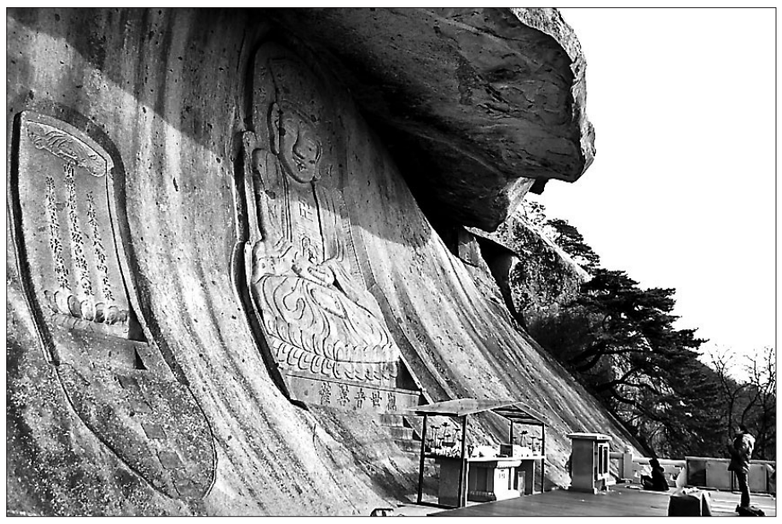
■ 입 제 일 : 2015년 4월 13일 월요일 저녁 9시 (필기도구 준비)
■ 해 제 일 : 2015년 4월 14일 화요일 저녁 9시 무박 2일
■ 동 참 비 : 기도 및 교재비 10만원, 계좌번호 : 농협 029-01-167866 곽한영
■ 상담전화 : 032)502-6625 / 010-9292-3110
■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4동 204-4의 3층 용천사 (부평 재래시장 입구)

**유불선 천지공사 불선도 십경신 도통회 총본산**
**사)대한불교 달마조계종 종정 환성 무상사 태일대종사**

# 섬관광 프로젝트 '전등사' '보문사' 뜬다

## 인천시 16일 섬관광 인프라구축 추진 계획 발표

**세월호 참사 후 관광 20% 감소**
**종교문화 · 안보 · 레저 활용방안**
**전등사 템플스테이 코스 추가개발**


강화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섬투어 프로그램 일환으로 종교콘텐츠가 적극 활용된다.

인천시가 인천 섬만의 특수성과 생활문화를 고려한 섬관광 인프라 구축 및 관광콘텐츠 개발에 나선다. 세월호 참사 이후 침체된 인천 섬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는 '섬관광 활성화 프로젝트'가 그것이다.

16일 인천시의 '섬 관광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역사와 문화, 생태, 레저 등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된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섬 역사와 생태 등을 활용한 콘텐츠 부분이다. 강화 전등사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보문사 등을 답사하는 코스가 개발된다.

전등사의 템플스테이는 다도 · 명상 · 단청 등 전통문화 체험과 삼랑성 역사길 포행 및 내 모습을 만나는 페르소나 마스크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전등사-보문사 코스와 함께 남한 최초의 교회로 알려진 백령도 중화동교회, 강화도 교산교회 등을 둘러보는 기존 백령도 성지순례 코스에 천주교 답동성당, 강화갑곶성지 등을 함께 탐방하는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이어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백령도 물범과 강화도 갯벌, 시도 저어새 등을 아우르는 생태 관광, 무의도 · 시도 트레킹, 거잠포 해돋이 등을 연계한 바다열차, 어촌 · 바다 체험 관광 상품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된다.

이 밖에도 5월 중 인천 섬 관광 홍보전을 서울에서 개최하며 캠핑하기 좋은 섬과 인천 섬 '10도(島) 10색(色)' 등도 선정한다.

이와 함께 평화를 주제로 한 콘텐츠 개발도 진행된다. 연평도에는 연평해전 평화기원 등대언덕이 들어선다. 옹진군은 73억원을 들여 2018년까지 10㎞의 평화안보 둘레길 조성, 희망전망대 건립, 안보수련원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구 세어도에선 5.4㎞의 탐방로 재정비, 휴게정자 조성 등과 함께 민가와 폐가에 벽화를 그리는 공공예술프로젝트도 착수된다.

거센 조류의 강화해협 바닷물이 치받는다고 물치섬으로 불렸던 작약도에는 관광단지가 조성되며 50만㎡ 부지에 민간자본 2,700억원을 투입해 관광호텔, 청소년수련원, 요트장, 워터파크 등을 짓는다. 올해 말까지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매립공사에 착공, 2020년 12월 준공 예정이다.

골프장 건설 문제로 오랜 홍역을 앓았던 굴업도 관광단지 사업도 본격화한다. CJ 관계사인 씨앤아이레저산업은 3,500억원을 투자해 옹진군 덕적면 굴업리 120만 1,690㎡에 골프장을 제외한 호텔, 요트장, 생태학습장 등을 지을 계획이다. 시는 올 하반기 중 관광단지 지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문종건 인천도시공사 관광기획팀장은 "강화도를 중심으로 한 불교문화와 인천지역의 기독교 문화 등 종교문화와 함께 백령도 등이 지닌 안보와 평화 콘텐츠를 활용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인천 연안 섬 관광객은 20% 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인천 연안 여객 수송 실적은 148만명으로 2013년 178만명에 비해 30만명 감소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 자연음식문화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MOU




(사)자연음식문화원(원장 유정희)은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정유진)와 3월 17일 지역자원연계 협약식을 체결했다.

전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교육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자연음식문화원을 비롯해 세이브더칠드런 전북지부 등 7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이들 단체들은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와의 연계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정희 자연음식문화원 원장은 "지역사회 가족의 건강한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가정문제를 예방하는데 앞장 서겠다"며 "지역사회 연계기관으로서 상호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의 공동발전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연음식문화원은 자연사찰음식 제철생활요리강좌를 봄, 여름, 가을, 겨울 학기에 나눠 진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북불교신도회, 지안 스님 초청법회



전북불교신도회(회장 김백호)는 3월 22일 전북불교회관에서 조계종 고시위원장 지안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김백호 신도회장을 비롯해 주정기 전북포교사단장 등 지역 신도회 임원들과 각급 신행단체 장들이 참석했다.

지안 스님은 법문을 통해 "법회는 즐겁게 살자는 마음을 나누는 자리"라며 "부단한 정진노력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위상을 높이는 성숙된 불자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불교신도회는 매월 초청법회를 봉행하며 지역 불자들의 신심고취에 노력하고 있다. 4월에는 무주 백련사 주지 평상 스님의 법회가 진행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법정 스님 가르침 담은 〈무소유〉 카페 문열다

## 맑고향기롭게 27일 전국최초 개설




법정 스님의 삶과 가치를 실천하기 위한 〈무소유〉카페가 광주에서 최초로 문을 열었다. 맑고향기롭게 광주지부(본부장 고현)는 3월 27일 광주 동구 산수1동에 '〈무소유〉 맑고향기로운 가게' 〈사진〉를 개원했다.

〈무소유〉 카페는 맑고향기롭게가 진행하는 지부 수익사업 중 첫 사업으로 카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은 전액 공양나눔센터, 독거노인 도시락 지원사업,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된다. 맑고향기롭게 서울본부에서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마련됐으며 운영은 광주본부가 담당한다.

이날 개원한 카페는 대지 83평에 2층 건물로 1층 40평, 2층 30평으로 광주지방법원 등이 있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1층에는 주방과 창고 등이 위치하며, 2층에는 향후 공양나눔센터가 자리할 예정이다.

카페 실내는 고현 조선대 교수가 연출을 맡아 법정 스님이 주석한 불일암을 연상시키는 대나무 등을 활용해 꾸몄다. 카페에서는 법정스님의 책을 비치해 누구나 볼 수 있다.

〈무소유〉카페는 매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운영되며, 바리스타 2명과 자원봉사자가 상주한다. 커피와 직접 만든 전통차, 전통떡 5가지, 음료수가 판매된다.

이금지 운영위원장은 " 더 많은 소외계층에 도움을 주기위해 수익사업을 진행하고자 개설했다"며 "문화상품 판매와 함께 불자들의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꿔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맑고향기롭게 광주본부는 현재 독거노인세대를 위해 매일 도시락 반찬을 지원하는 한편 인근지역 어려운 이웃을 위한 '1000원 밥상 공양나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독서모임, 노래모임, 자연보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임제불교 조계종 창종 8주년 기념행사

## 3월 21일 여수 청암사 300명 운집




임제불교조계종(종정 지암, 청암사 주지)이 창종 8주년을 맞아 복지포교를 위한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임제불교조계종은 3월 21일 여수 청암사에서 '창종 8주년 기념대법회'를 개최하고, 청소년복지사업을 더욱 활발하게 할 것을 다짐했다. 본산인 청암사는 그동안 광주 · 전주 · 제주소년원 등에서 사회에서 이탈한 청소년을 상대로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법요식에는 한국불교원효종 종정 법민스님,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보현 스님, 해탈불교조계종 종정 대광 스님, 대한불교구생종 총무원장 원당 스님, 나용수 총신도회장 등 300여 대중이 동참했다. 법요식에 이어 지역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초청가수 공연 및 점심공양 등이 진행됐다.

지암 스님은 이날 "지금까지 지역불교 발전과 어린이 · 청소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정진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지암 스님은 이어 법계고시 증서 수여와 함께 여명학교 장애청소년 3명, 청암사 신도 자녀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한편 임제불교조계종은 2007년 2월에 창종한 이후 청암사를 중심으로 군부대 위문과 교도소 교화사업, 지역 비행청소년 선도사업, 불우이웃돕기, 지역 경로잔치 등을 매년 진행하고 있다. 또 자원봉사단을 조직하여 대덕소년원, 광주소년원, 제주소년원, 전주소년원 등과 결연을 맺어 멘토링 사업과 장학금 지원 등을 이어오고 있다.

주지 지암 스님은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장을, 신도들은 법무부 표창과 제주 · 전주소년원으로부터 감사패와 감사장, 전남도지사 표창장, 여수시장 표창장을 각각 수상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인드라망 생명, 제1기 도시농부학교 개교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시농부를 양성하기 위한 강좌가 개설됐다. 광주 선덕사(주지 원묵)는 3월 19일 '제1기 인드라망 도시농부학교 개강식'을 개최했다.

도시농부학교는 6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예비 도시농부를 위한 다양한 강좌가 마련된다.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 스님을 비롯해 이해경(남원귀농귀촌학교 교장), 이종국(광주사회경제센터 본부장), 신수오(광주전남귀농하교), 변현단(귀농인), 남성동(광주전남귀농학교), 박양순(자연음식연구가) 등이 강사로 나서 바른 먹을거리와 바른 농사이야기, 다양한 텃밭만들기 사례, 텃밭작물 재배의 기본원리, 흙의 이해와 흙 살리기, 병충해와 천연농약 만들기, 유기자재, 텃밭정원 만들기 등이 진행된다.

도법 스님은 19일 진행된 첫 강의에서 "모든 사람이 바라는 삶은 생명평화의 삶이지만, 현대사회는 이 삶을 살아가기는 불가능한 사회"라며 "도시농부학교란 생명평화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법주사 미륵대불 황금옷 갈아입는다

보은 법주사의 상징인 미륵대불이 황금옷을 갈아입는다. 법주사는 3월 26일 미륵대불 불상 표면을 뒤덮은 녹과 오염물질을 벗겨내고 금박을 덧씌우는 개금불사(改金佛事)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청동으로 된 높이 33m의 미륵대불은 2002년 개금불사를 진행했으나 청동 녹이 배어 나와 2011년 대대적인 보수공사를 했다. 그러나 그 뒤에도 녹스는 현상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 개금작업은 햇볕이나 비바람에 변색되기 쉬운 순금 대신 '골드펄'이라고 불리는 인조금이 사용돼 탈색과 변색을 막고 방청작업도 진행된다.

현재 미륵대불은 공사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공사용 천막집이 씌워져 있는 상태다.

**노덕현 기자**


# 2015년도 대한불교 ⊙(원) 조계종
#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 공고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2015년도 승려증 갱신 및 사찰등록증 갱신을 실시 하오니
한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 **2015년 4월 1일 ~ 5월 15일**
■ 대 상 : 대한불교원조계종 소속의 모든 승려 및 사찰
■ 구비서류 : • 승려 - 주민등록등본, 구 승려증 사본, 명암판사진 3매
• 사찰 - 구 사찰등록증사본, 주지임명장 사본
■ 접수장소 : 대한불교원조계종 총무원
■ 주 소 : 부산시 금정구 부곡 1동 717번지 (4층)
회문사 전화 051)518-0307, 010-3839-7714

위 기간에 승려증 및 사찰등록을 필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조계종 종도로 인정하지 않아 세무서에 통보하여 연말정산 관계 및 사.암 등록등을 취소, 말소 처리하오니, 이점 유의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총무원으로 직접 방문하여 주시거나 전화 051) 518-0307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 정 **일선 동암** 총무원장 **혜우 도암**
총무부원장 **혜공 보성** 호법원장 **수봉 법일**

불기 2559년 3월 25일

**대한불교 ⊙(원)조계종 총무원장 혜우 도암 합장**



#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 1천원 밥상으로 기부문화 확산한다

## 행복1%나눔재단 … '천원의 행복 밥집' 운영





행복 1% 나눔재단이 개원한 '천원의 행복 밥집'은 천원 이상의 기부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사진 왼쪽은 식당 전경, 오른쪽은 봉사자들의 모습.

### 김해청년회원 20여 명이 시작
### 지난해 10월부터 밥집 운영
### 계층 종교 초월한 봉사자 참여

(사)행복1%나눔재단(이사장 조유식, 김해불교신도회 회장)이 운영하는 '천원의 행복 밥집' 현장을 3월 25일 찾았다. 오전 11시 봉사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졌다. 이내 다슬기 국, 숙주나물, 어묵 조림 등으로 구성된 푸짐한 밥상이 차려진다. 2년 이상 지난 효소 발효액으로 조리된 반찬이라고 하니 정성이 느껴졌다.

'천원의 행복 밥집' 개점 시간은 오전 11시 30분. 하지만 그전부터 문을 열고 들어와 식사를 청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렇게 끊임없이 손님들이 줄을 서면 오후 2시까지 식사행렬이 이어진다.

하루에 밥집을 찾는 손님은 평균 300여 명에 이른다. 할머니, 노동자, 시장 및 상인부터 직장인들까지 구성원들도 다양했다. 식당을 찾은 손님들은 천원 이상씩 후원함에 보시를 한다. 이렇게 모인 후원금은 모두 식재료 구입에 쓰인다. 하지만 밥집 운영자금으로는 금액이 턱 없이 부족하다.

조유식 이사장은 "매달 적자가 500만원 가량인데 나머지는 사비로 희사하고 있다"고 현실을 설명한다. 왜 무료급식이 아니냐는 질문에 "천원의 행복밥집은 바로 '행복1%나눔재단'을 위한 홍보 창구라 할 수 있다. 손님들이 식사를 하는 동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매달 정기 후원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와서 식사를 하지만 형편이 괜찮은 이들도 있다. 이런 분들은 우리의 뜻을 알고 선뜻 기부에 동참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행복1%나눔재단'은 후원자 2000명 모집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조 이사장은 "2000명이 만원씩 후원하게 되면 극빈자들을 위한 수술비, 무주택자 전세금,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사)행복1%나눔재단 봉사자들은 불자에 한정되지 않고 종교를 초월해 찾고 있어 훈훈함을 더한다. 김해 중앙교회 허영배(54 · 물리치료사) 집사는 평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설거지 봉사를 하고 후원함에 만원씩을 넣는다. 그는 "종교와 상관 없이 봉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설거지 하는 동안 마음도 편안해지고 소외이웃에 도움이 된다 생각하니 행복합니다"라고 봉사의 기쁨을 이야기한다.

행복나눔재단은 김해불교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임원 20여명으로 출발해 현재 정기후원자가 200명이 넘어선 상태다. 후원자 대부분은 김해 시민들로 노점 및 시장 상인, 마트 점원, 주유소 사장, 약사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고 있다. 비정기적으로 활동하는 봉사자들도 있다. 청소년들을 비롯해 주부들이 와서 설거지와 청소를 돕는다. 또 길 가던 시민들이 들러 치약, 과일, 커피까지 소소히 놓고 가니 훈훈하지 않을 수 없다.

조 이사장은 "일체 모든 것이 부처라고 했다. 불교를 굳이 내세우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포교 활동이다. 현재의 활동을 통해 모두가 나눔을 실천하는 보살이 되는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현재 행복1%나눔재단은 사단법인 인가를 정식으로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후원자를 발굴, 기부 문화 확산에 매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행복1%나눔재단은 2007년 7월에 출범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조손 가정 등 소외이웃들의 의료비 학비 전동휠체어 쌀 등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또한 복지사각 지대에 놓인 극빈층 발굴을 통해 적극적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하성미 기자

# 불광사, 라오스 초등학교 방문 교육 지원

## 3월 11일~18일 40여 회원 참여



후원물품을 전달하고 있는 보광 스님(오른쪽)

부산 초읍 불광사(주지 보광) 자비나눔실천단체 '라오의 산들바람'이 3월 11일~18일 라오스 방비엥 지역 반 티온 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반티온 초등학교는 불광사가 2014년 설립한 학교로 이번 행사에는 사부대중 40여 명이 함께했다.

보광 스님과 회원들은 국내에서 준비한 스케치북, 색연필, 신발, 컴퓨터 3대 등 총 7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했다.

또한, 루앙프로방 등 라오스 산지 곳곳을 방문해 나눔 활동을 펼쳤다.

회원들은 과자, 학용품 등을 직접 현지에서 구입하고 13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역 아동들에게 전달했다. 그리고 지역의 환우를 돕는 보시행도 실천했다.

주지 보광스님은 "행복을 베푼다는 생각으로 봉사에 임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행복을 얻으러 이곳에 왔죠. 여러분이 기꺼이 낸 이 마음이 현지 학생들에게 더 큰 행복으로 전달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오스 방비엥 마을 대표는 라오의 산들바람을 이끌고 있는 보광 스님, 김동현 총무, 학교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봉사자 백성기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하성미 기자

#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 보살계 봉행

자장율사가 계를 전한 계율의 근본도량 통도사(주지 원산)가 보살계를 봉행한다. 통도사는 4월 23일~25일 설법전과 금강계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연다. 수계산림은 3일 동안 입재식과 산림법석, 연비, 사리탑 참배, 탑돌이 등으로 진행된다.

통도사는 "개산조 자장율사께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를 봉안하고 금강계단을 쌓아 계를 설한 계율의 근본도량이다. 을미년 보살계 수계산림 법회를 3사 7증사를 모시고 여법히 봉행하니 두루 동참해 세세생생의 불연으로 자비광명이 함께 하기를 발원한다"며 참여를 독려했다.(055)382-7182

하성미 기자

# 부산 조계종 연합, 수진 스님 '선요 특강'

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수진 스님)는 3월 24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선요 Ⅱ' 강좌를 열었다.

스님 100여명이 모인 이번 강의에서는 조계종부산연합회장 수진 스님이 강사로 나섰다.

수진 스님은 "연수교육이지만 이 인연이 여러분의 삶과 전법 수행에 도움 되길 바란다. 연수 교육은 단순히 구속하는 의미보다는 수행자다운 수행자를 만들어 보자는데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교육원 인증과정으로 이번 강좌를 수료한 스님은 연수점수 30점을 받는다. 수업은 3월 24일~4월 21일 매주 화요일마다 총 5회 열리며 3시간씩 총15시간으로 진행된다. 교육원 연수교육 인증과정 이수를 위해서는 80% 이상을 출석해야 한다.

하성미 기자

# 미타선원, 4월 25일 창건 18주년 개산대재

## 장학금 및 보살행 후원금 전달… 지역사회에 회향

###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후원금 수여

나눔으로 개산의 의미를 돌아보는 시간이 마련된다.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하림)이 창건 18주년을 기념해 4월 25일 개산대재를 봉행한다.

이 자리에서 미타선원은 이웃을 위한 장학금 전달과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 등을 마련한다.

개산대재 법요식 1부에서는 육법공양, 합창단 음성공양 등은 물론 이웃사랑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 및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된다.

또한 어린이 · 청소년 포교 특별 후원금 수여, 봉사자 감사장을 수여한다. 또한 스님들을 위해 학업 장학금을 보시한 불자들을 초청 회향 감사인사를 전한다. 이어 2부에서는 법문이 3부에서 합동천도재도 봉행된다.

장학금은 해동중 5명, 동주여고 3명, 신도자녀 초중고 대학생 9명 등에 총 1,000만원이 수여된다.

이웃을 위한 보살행 후원금 전달식도 진행된다.

이는 미타선원 불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으로, 지난 2008년 1월부터 중구 노인복지관 '중구지역 재가어르신의 치매예방 등 건강증진사업' 후원금과 캄보디아 어린이 돕기 등 6개 단체에 정기적으로 후원되고 있다.

올해는 복지법인 해원에서 운영하는 영도구노인복지관을 새롭게 후원처로 선정 보시금을 전달한다.

주지 하림 스님은 "미타선원이 도심 속의 전법도량으로 발전해올 수 있었던 것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마련된 자리다. 앞으로도 지역과 사회에 꾸준히 회향할 수 있는 나눔의 장을 만들어가고자 한다"며 취지를 전했다.

하성미 기자

# 창원시불교연합회 3대 회장 도홍 스님 취임

## 3월 27일 창원호텔서 이 · 취임 법회… "연합 봉축 법회 기대"



"창원불교연합회는 마산, 창원, 진해라는 세 지역을 아우르는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암불교연합회를 구성하고 체계적 협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창원불교연합회 새 회장으로 창원 불곡사 주지 도홍 스님〈사진〉이 취임했다. 창원시불교연합회 제2 · 3대 회장 이취임법회 준비위원회(회장 응산)는 3월 27일 창원호텔 3층 목련홀에서 취임법회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창원시불교연합 상임고문 지태 스님 및 안상수 창원시장, 강기윤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사암주지스님, 각급 기관 · 사회단체장, 신도회 · 신행단체 임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이날 법회에는 제2대 회장 원행 스님의 공로패 시상, 창원시불교연합회 제3대 임원진 임명장 전달식 등이 진행됐다. 제3대 회장 도홍 스님의 취임사 및 안상수 창원시장, 강기윤 국회의원의 축사 등도 진행됐다.

도홍 스님은 창원불교연합회의 과제에 대해 '화합과 협력'을 꼽았다. 스님은 "경남 지역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지만 대략 30% 정도만 연합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각 종단별로 나뉘어 활동하며 연합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모든 종단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스님은 각 종단과 마산, 진해, 창원 각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연합체를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스님은 "봉축법회 등 큰 행사는 창원과 마산 진해에서 연합으로 진행할 수 있기를 발원한다"고 전했다.

도홍 스님은 1974년 근파 스님을 은사로 출가, 1979년 (사)대한불교우담종문회 불교전문강원을 졸업했다. 명해 스님을 전계사로 1979년 비구계 수지, 1998년 전통사찰 창원불곡사 주지로 임명됐다. 현재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 창원봉림청소년문화의집 관장, 창원교도소교화법사회 회장, 경남불교대학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성미 기자


방수 연등전선 최저가 생산 판매



방수연등전선 전문 KS정품 생산업체인 (주)삼정전기와 계약 체결로 연등전선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해 드리겠습니다.
- Made in Korea -



색상 : 회색선
선굵기 : 1.5㎜

• 2줄 이상일때 한줄당 가격입니다.
• 22cm, 23cm, 25cm (50구) @65,000 (2줄이상)
• 30cm (50구) @65,000 (2줄이상)
• 35cm (50구) @70,000 (2줄이상)
• 40cm (50구) @73,000 (2줄이상)
• 50cm (50구) @75,000 (2줄이상)
• 1m (50구) @90,000 (2줄이상)
• 2m (25구) @80,000 (2줄이상)



바림등(6cm) @2,500원(60개이상)
바림등(8cm) @3,000원(30개이상)

＊국산LED전구 (50개)
＊ @90,000〈개당 1,800원






• 화엄등(6cm)@ 3,200원 (60개이상) • 화엄등(7cm)@ 3,500원 (50개이상) • 화엄등(8cm) @4,000원 (30개이상)

동진기획 · 붓다쇼핑
☎(051) 515-8888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FAX.(051)508-0101
인터넷전화 . 070-7425-0518 H.P 011-554-298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농협:010-2094-2991-09 ◆국민은행:9011-554-2988 [예금주:강태규]

**포교**

한국불교
포교 70년

# ‘포교는 사명’ … 조계종 3대 지표로

1945년 8월 15일 36년간 일제 식민통치가 막을 내리고 해방을 맞았다. 해방 이후 불교가 직면한 과제는 일제 잔재의 청산, 사찰령의 철폐와 자주적 교단의 건설 등을 꼽을 수 있다. 더불어 불교는 미군정의 비호 속에 급격히 성장하는 서양종교의 도전에 맞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 과제까지 떠안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1954년 5월 불교정화를 촉구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담화는 ‘정화운동’의 기폭제가 됐다. 정화운동은 불교를 비구 스님과 대처승으로 양분하고 휴전 이후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관통하면서 길게 이어지다가 결국 1970년 5월 태고종의 분종과 통합종단 출범으로 막을 내린다.

이 긴 기간 동안의 갈등과 진통을 거쳐 현대 한국불교의 모습이 정비됐지만, 이 시기는 ‘포교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불교는 움츠러들지 않고 통합종단을 출범시키면서 포교, 역경, 도제양성이라는 3대 사업을 정해 포교를 우선순위에 두고 기지개를 켜기 시작했다. 이나은 기자


1966년 7월 송광사에서 열린 대불련 제6차 수련대회. 남학생 44명, 여학생 18명이 참여해 여성 불자의 참여도가 높아졌다.


포교원은 2013~14년 확장해 전국민이 명상을 경험하고 변화를 체험하는 힐링법회를 열어 포교의 장을 발돋움 시켰다.


조계종 포교원 개원식(1977.3.6) 석주 스님이 초대 원장이었다.

### 포교 · 역경 · 도제양성…불교 중대과제로

1962년 조계종 통합종단이 출범하고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이라는 세 가지 중대 과제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한 것은 정화 과정에서 비구스님과 대처 양측이 함께 참여한 불교재건위원회가 1962년 1월 25일 비구스님과 대처 양측이 함께 참여한 불교재건위원회가 1962년 1월 25일 발표한 ‘재건공약’이다. 재건공약에서는 “우리들은 왕석의 민족문화에 끼친 불교의 소란한 업적을 거울삼아 민족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제양성, 포교 및 역경사업을 위해 총력을 경주한다”고 밝혔고, 이후 조계종 3대과제로 정립됐다.

1962년 12월 25일 개회된 제2회 중앙종회에서 교육법과 포교법이 통과됨에 따라, 1963년 9월 10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전국 포교사강습회’가 용주사에서 개최돼 모두 23명이 수료했다. 이때 강사로 관응 스님(불교개론), 청담 스님(선학), 기종 스님(의식), 운허 스님(교리), 대은 스님(교리) 등 쟁쟁한 대강백들이 참여해 교육을 담당했다. 또한 신도단체법을 제정해 전국신도회를 단일로 하는 신도조직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밖에 1966년을 ‘한국불교 중흥의 해’로 제정하고 포교 · 역경 · 도제양성을 3대사업으로 확정했다는 것은 통합종단 초기부터 포교를 종단적 차원에서 종책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이러한 종단의 논의에도 불구하고 포교활성화를 위한 종단적 사업이나 활동은 종단 정화가 마무리되는 1970년까지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 불교 침체기…군승 · 신행단체 · 대불련 탄생

1960년대는 군승과 신도단체가 탄생하고 청소년을 위한 불교 교재가 간행되는 등 의미있는 시기였다. 1964년 국회에 군종장교 파견 건의서를 제출하고, 1968년 11월 군승제가 실시됐다. 권기종, 김복식, 이지행, 장만수, 권오현 법사가 제1기 군종장교로 임관됐다.

1967년에는 조명기, 서경수, 전준열, 김동화, 운허 스님, 법정 스님 등 20명이 참여해 종립학교 불교교재를 편찬했다. 부처님의 생애, 밝은 생활, 바른 길, 진리의 생활, 대승의 길 등 총 6권으로 이루어진 종립학교 불교 교재는 학교 교과서 형식의 최초 불교교재인 동시에 청소년 지도용으로도 그 활용도가 매우 높았다.

포교의 암흑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 포교의 명맥을 이은 재가불자들의 자생적, 자발적 활동 또한 빼놓을 수 없다.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다수의 불교단체가 등장해 불교와 종단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했다. 대표적인 단체로는 전국신도회, 교법수호전국신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대한불교청년회, 룸비니회, 삼보학회 등이 있다. 이들 신도단체들은 종단의 혼란과 분규가 야기될 때마다 종단에 대한 애정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타협을 위한 활동을 다했다.

**일제 청산 · 불교정화로 포교 어려움**
**조계종 출범 후 출 · 재가자 노력**
**군 · 어린이 · 청소년포교에 박차**
**스마트 세대 등 맞춤형 포교 나서**

특히 1963년 9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이하 대불련)가 창립하면서 젊은 불자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대불련은 불교사상과 신앙의 체득을 위한 순수한 활동을 펼쳐 나갔고 통합종단 직후 대학생들에게 포교하려는 종단 및 스님들의 후원이 작용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청담 스님과 탄허 스님 등 당대 고승들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며 대학생, 청년 불자 양성을 위해 힘을 쏟았다.

대불련의 창립은 당시 새로운 불교를 일으키려는 노력의 결실이었다. 1956년 9월 황산덕, 이종익, 김경만, 고병완(후 광덕 스님)거사가 지성인을 위한 불교강좌를 시작해 3주일 후 대각사에서 대각회가 발족됐다. 1년 후 대각회 출신들에 의해 서울대, 연대, 고대, 성균관대학 등에 불교학생부가 조직됐다. 이러한 활동은 교화의 대상으로 지성인과 청년에 주목했다는 점과, 이 영향으로 대불련이 창립되고 지성인 불자양성에 대한 필요성을 환기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 1970년…불교대중화 주력

1970년대 포교의 특징은 불교의 대중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순회포교’를 통해 불교의 대중화를 지향했다. 1973년 동국대에 재학 중인 스님들의 모임인 석림회가 방학 기간을 이용해 7월 22일~8월 5일 전국을 순회하며 설법하는 순회포교를 실시했고, 이 순회포교는 이후 매년 석림회의 중요 사업이 됐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1974년 10월 중앙포교사들이 전국 각지를 순회하며 불교사상 강연회를 실시하며 불교 대중화에 힘썼다. 무진장 스님, 법성 스님, 김어수, 김한천, 선진규 등 중앙포교사들이 참여한 순회사상강연회는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전국 53개 지역에서 실시됐는데 총 16만 명의 청중이 모여들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이런 활동으로 불교에 대한 대중적 수요는 높아졌고, 1976년부터는 전국 각지에서 불교 사상강연회가 활발하게 진행됐다. 이 시기에는 여러 분야의 포교, 신행 단체가 활동했는데, 이 가운데 재단법인 대원정사와 한국불교연구원, 불광법회, 한마음선원, 그리고 대한불교진흥원이 대표적이다.

1970년 동국제강의 창업주인 대원 장경호 거사는 불교 대중화를 목표를 남산에 대원정사를 건립했다. 그리고 1973년부터 대원불교대학을 개설해 시민들에게 기초교리와 불교문화를 전수했다. 이보다 앞선 1972년 6월, 서울신도회가 불교신도의 자질 향상과 교양확충을 위해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했다. 이 교양대학에는 석주 스님(불교강론)을 비롯해 이기영(한국불교사상), 서경수(세계불교개론), 김두헌(불교윤리) 등 스님과 불교학자는 물론 양주동(불교문학), 장원종(시사경제)박사와 같은 석학들이 강사로 참여해 인기를 모았다. 이와 같은 활동은 불교의 저변확대에 큰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후 교계에 불교교양대학이 개설되는 시초가 됐다.

### 1980년대…포교당 건립 · 청소년포교 활기

1970년대 후반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포교당 건립은 1980년대 포교의 큰 특징이 된다. 해방 이후 종단 정화 시기는 포교의 암흑기라고 명명할 정도였으나, 이후 통합종단이 발족하고 포교에 대한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면서 1970년대 후반부터 일제 강점기에 버금가는 도심포교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현대식 도심 포교활동 효시는 광덕 스님의 불광법회를 들 수 있다. 1974년 광덕 스님은 종로 대각사에서 불광법회를 창립하고 매주 목요일에 시민을 대상으로 법회를 열어 올바른 불교의 진리와 가치관을 펼치다가 점차 청법 대중이 증가하자 1982년 송파구 석촌동에 불광사를 창건했다. 불광사는 사찰에서 신도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진행한 신도교육과 법회활동의 결과로 이루어낸 성과라는 점과 지역별 법회와 같은 새로운 신도 조직이나 신행활동의 모델이 시도됐다는 점에서 현대 포교당의 시초라 일컬어진다.

이후 도심포교당 건립이 활발하게 일어나 1980년대 포교의 가장 특징적 양상의 하나가 됐다. 1982년을 기점으로 서초동 강남포교원(성열 스님), 대조동 은평포교원(지원 스님), 구로동 남부포교원(일면 스님), 광명시 정각원(법장 스님) 등이 개척포교당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개원되면서 불교 대중화를 이끌기 시작했다. 또 통도사 포교당 구룡사(1985), 능인선원(1985) 등은 도심 속에 현대식 건축과 사찰의 전통미를 가미한 건물을 건축해 도심포교를 활성화 시켰으며 다양한 시도와 활동으로 포교의 영역을 확대해 나갔다.

한편 도심 속 대중 포교활동의 흐름과는 또 다른 방식의 포교당이 건립됐다. 이른바 ‘민중포교당’으로 1980년대 들어서자마자 불교는 신군부에 의해 10 · 27 법난이라는 최악의 시련을 겪는다. 독재 권력에 의해 ‘불교가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되는’ 현실을 목도하면서 스님들은 불교의 자주성회복과 대중포교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불교의 대중화와 현대화를 위한 새로운 움직임을 시작했다. 주로 젊고 의식 있는 스님이나 청년 불자가 중심이 돼 구로, 성남, 부천 등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포교를 실시하며 사회 각 부문의 민주화운동과 연계를 시도했다.

1980년대 포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유아포교와 청소년 교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일어났다는 점이다. 1980년 이전까지 10개 미만이던 불교유치원은 80년대 들어오면서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4년 1월 당시 전국 불교유치원 수는 18개이며 이 가운데 10곳이 1980년 이후 설립됐다. 1984년 들어 불교 유아유치원연합회가 발족하는가 하면 사찰과 포교당들이 유아원과 유치원을 새로 개원하면서 유아포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이와함께 청소년포교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면서 포교원이 주최하는 청소년 지도법사 연수회가 1984년 6월 법주




포교
한국불교 포교 70년

# ‘불교적 포교’ 대중감동·성공 지름길


조계종 포교원은 일선 학교에서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 폭력, 게임 중독 등이 문제가 되는 가운데 일선 사찰과 협약을 맺고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조계종 신도등록 안내 문건


2012년 5월 2일 문을 연 논산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 신축 법당. 3500여명을 수용하는 국내 최대 법당이다.

사에서 개최됐다. 이 연수회에서는 전국 222명의 스님들이 참여해 청소년 교화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었음을 확인시켜주었다.

### 1990년대…포교원 별원 “포교 새시대”

1994년 출범한 개혁회의는 종단의 숙원사업이었던 포교원 별원을 해결했다. 1995년 1월 20일 조계종은 포교원 개원식을 열고 첫 포교원장으로 정락 스님이 취임했다. “포교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공연한 스님은 포교활성화를 위해 ‘21세기에 적합한 포교 방략과 장단기 포교사업 완성’ ‘포교의 체계화와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 ‘어린이 청소년 군불자 등 계층별 포교프로그램 개발’ ‘자리이타행이 조화된 참다운 불자가 됩시다 운동 추진’을 4대 서원으로 제시했다.

별원 승격 원년을 기념해 1995년을 ‘신행혁신의 해’로 정한 포교원은 ‘포교 체계화’ ‘신도회 활성화’ ‘설법교안 발행’ ‘통일법요집 추진’을 4대 중점사업으로 설정했다. 이를 통해 포교인력 배양, 효율적인 포교자료 개발, 포교활성화를 위한 전문 조직화 등을 추진했다. 포교원은 1995년 전국의 불교교양대학 실태조사를 진행해 종단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그 결과 1995년 한 해 동안 전국 43개 불교교양대학이 종단등록을 마쳤다. 포교사 고시를 도입해 종단 차원에서 직접 포교사를 양성했다. 1995년 5월 종단 차원의 첫 설법자료인 월간 ‘법회와 설법’을 발간해 각 사찰마다 법회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포교원은 1995년 신행단체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전국신도회를 대신할 중앙신도회를 발족하기로 뜻을 모으고, 같은 해 11월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 신도종단등록 사업을 추진해 조계종 신도증을 배부했고, 신도교육체계도 정비했다. 1996년에는 ‘불교청소년의 해’로 정한 포교원은 어린이 청소년 포교에 주력하고 청소년단체인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를 조직해 전국 단위로 확대했다. 또한 1997년 전국 교사불자연합회를 창립하는 등 직능단위 신도조직도 확장해나갔다.

별원 이후 포교원이 주력했던 분야는 군포교 지원이다. 조계종은 군포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95년부터 2000년까지 총 18억원 이상 포교예산을 군법당 건립 기금으로 조성했다. 군승단 운영비도 정기적으로 보조해 군포교 활성화를 뒷받침했다. 이는 2005년 출범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의 토대가 됐다.

### 2000년대…사이버·해외포교 확장

2000년대 포교 흐름은 청년불교·군불교·지역포교·사이버·해외 포교 확장의 시기로 볼 수 있다.

2001년 제4대 포교원장으로 취임한 도영 스님은 취임 직후 신도기본교육 전면 실시, 10월 경찰불자회 창립에 이은 11월 경승총회와 경승단칙 제정, 군불교위원회 창립 등을 치르면서 포교원의 주력 사업들을 계승했다. 2002년 월드컵 기간에는 전국 33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 1천여명에 달하는 외국인들에게 전통사찰을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주력하기 시작했다. 2003년을 ‘지역포교 활성화의 해’로 정한 포교원은 종단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직할 사찰을 대상으로 한 포교 현황조사’와 ‘신도회 현황조사’를 실시해 자료집을 발간했다. 더불어 신도단체가 교구와 사찰을 중심으로 활동하도록 유도하고 교구본사 포교국 업무를 정형화해 포교국장의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도했다.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공간에서의 포교활성화는 포교원 초기부터 큰 관심사 중 하나였다. 1999년부터 ‘수련법회 정보센터’ 및 사이버 포교를 위한 포교원 독자 홈페이지를 운영한 포교원은 각 신행단체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지대방을 생성하는 등 포교사이트(www.ibuddhism.org)를 개편하고 새롭게 운영을 시작했다.

2006년 2월 조계종 국제사이트를 오픈한 데 이어 인터넷을 통해 신도 기본교육을 진행하는 사이버불교대학도 개설됐다.

제5대 포교원장 혜총 스님 시기는 포교 성숙과 재도약기로 말할 수 있다. 오랫동안 어린이포교에 많은 활동을 해온 혜총 스님은 어린이포교단체협의회를 발족하고, 어린이 포교에 매진해 온 기존 단체들이 서로 힘을 모아 유기적 연대를 이루도록 했다. 이밖에 불교 대중화를 위해 1인 1수행, 1단체 1나눔 운동 전개, 어린이법회 콘텐츠 개발, 불교상담대학, 불교상담대학원을 설립하기도 했다.

진각종도 어린이 포교에 힘을 기울였다. 2004년 진각종 포교부는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포교잡지 자성동이 창간호를 10월 1일자로 발행하고 전국 74개 자성학교에 보급함과 동시에 자성동이 어린이 풋살대회를 매년 개최해 본격적인 어린이·청소년 포교활동을 시작했다.

또한 포교원은 신도의 위상과 조직화를 위해 2009년 신도멤버십 개념의 새 신도증 발급을 개시했다. 당시 신도등록 사업 변화는 그간 논의에만 머물렀던 종단 신도종책의 각 분야에 대해 본격적인 개선을 시행하는 원동력이 됐다.

군포교 활동의 결실도 이 시기에 맺어진다. 조계종 군종교구는 2012년 5월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군장병 3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국내 최대 법당인 호국연무사를 완공했다.

최근에는 마음과 정신의 상처치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인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상용화에 따라 SNS 사용자가 늘면서 법륜 스님·혜민 스님·법상 스님 등 여러 스님들이 트위터, 페이스북으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현대인들에게 불음을 전파해 마음을 달래주었다. 또한 ‘힐링’에 대한 열풍이 전국을 강타하면서 조계종 포교원이 전지역을 다니며 개최한 2013~2014년 힐링 법회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불교 심리상담과 명상·수행을 접목한 프로그램 포교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불교계에서는 명상 워크숍, 심리상담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일반인들을 불교 심리학 분야로 안내했으며, 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도입해 청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데 앞장섰다. 이처럼 템플스테이, 명상심리치료 등이 불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게 큰 호응을 끄는 이유는 사회적 추세를 따른 것도 있을 테지만, 부처님 가르침과 더불어 불교가 한국인 심성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포교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내면적 심성을 자극하는 불교적 포교를 통해 대중을 일깨우고 감화시킬 때 포교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포교 역사를 이어간 인물들

## 역경·설법·해외포교로 한국불교 일궈


운허 스님


청담 스님


광덕 스님


숭산 스님


대행 스님


운문 스님


이한상 거사


장경호 거사

1960~80년대 포교 침체기에 빛나는 노력으로 포교 역사를 이어간 선구적 활동들이 있었다. 바로 포교에 헌신한 스님과 재가자들의 활동이다.

종단정화운동 당시 조계사 주지 겸 중앙종림강사, 중앙포교사를 겸임한 관응 스님은 정화중에 조계사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매주 300명~500명 정도가 법회에 참석하는 등 정화 초기 포교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대은 스님은 탑골승방에서 〈관음경〉을 강의하며 대중을 교화했고, 대월 스님은 밀양, 화산 스님은 대구 관음사를 무대로 포교활동을 펼쳤다. 소천 스님은 특히 〈금강경〉 강의로 유명했는데 서울 대각사 대각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음을 전했다.

정화의 기수로 일컬어지는 청담 스님은 1966년 한 해에만 모두 288회의 설법을 해 주위를 놀라게 했으며, 역경원장 운허 스님은 1969년 8월부터 1970년 3월까지 8개월간 삼보학회에서 〈능엄경〉 전권을 강의해 장안의 화제를 모았다.

강의에는 연인원 1만 여명이 수강하는 등 당시로서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성황을 이뤘다.

어린이법회와 해외포교의 시점도 이 시기에 찾을 수 있다. 1961년 운문 스님은 조계사에 서울연화어린이회를 창립해 어린이 포교의 신기원을 세웠다.

숭산 스님은 일본에 건너가 재일 홍법원을 개설해 재일동포에게 정신적 귀의처를 마련하고 한국 불교를 해외에 진출시키는 단초가 됐다.

방울 스님이라는 별명으로 널리 알려진 홍도 스님은 후암동 산비탈에 주택을 구입해 법당을 개원하고 매일 새벽 골목을 돌며 도량석을 하고 항상 불서를 갖고 다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등 대중 속에 뛰어들어 불음을 전하는 포교활동을 실천했다.

1964년 4월 성철, 청담 스님은 당시 백성욱, 김동하, 서돈각, 홍정식, 이종익 거사 등의 대석학과 함께 이한상 거사의 원력으로 ‘대한불교삼보

**청담 스님… 한 해 288회 설법**
**운허 스님… 능엄경 전권 강의**
**광덕·대행 스님… 도심포교 앞장**

장학회’를 창립하기에 이른다. 이후 언론과, 장학사업을 펼친 ‘삼보장학회’는 ‘삼보법회’(이하 삼보회)로 거듭나며 불교교양대학 개설과 함께 해외불교 교류와 포교, 문화활동도 전개하며 불교의 대중화에 진력했다.

이밖에 광덕 스님, 대행 스님 등이 불광사와 한마음선원을 창건해 도심포교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최근에는 법륜·정목·혜민 스님 등이 도서·SNS로 대중과 소통하며 일반인들에게 불교를 알리고 있다.

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JJUN Heating System Module
“쭌 난방” 난방시스템 난방비(가스) 최대 30% 절감
난방필름 전기판넬 대비 50%
2013년 국내 최초 바닥접착식 모듈 건식 온수난방 시스템개발!!
대한민국 온돌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온 건식 온수난방시스템의 종결자!!
스님, 불자님 직접 온수 난방을 시공하세요.
DIY형 모듈 온수난방 시스템 www.junheating.co.kr
국내 유일 D.I.Y 모듈형 접착식 건식온수난방 SYSTEM
업계최초 바닥 접착방식 적용
에너지 소비효율 최고수준
공기순환형 구조로 열섬현상 제거
D.I.Y 시공 가능
저온수(45℃ ~ 50℃) 난방 가능
01 02 03 04
특허청 KIBO 기술보증기금 인증 벤처기업
특허등록(특허제 10-1267515호)
ISO 90001:2008 인증업체
ISO 14001:2004 인증업체
■ 설치장소 ■
보일러만 있으면 어디든지 시공 가능
적용보일러 : 가스, 기름, 전기, 화목, 공기열, 지열, 연탄 등
사찰 및 암자 주택, 상업건물, 교육시설, 숙박시설
www.jjunheating.co.kr
제품구입 및 A/S는 전국어디서나 무료통화
080-254-9113
H·P 010-2323-9068
본사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장안로 61(영화동)
■ 지역 대리점
강남 : 010-5097-8291 울산 : 010-4597-5577 평창 : 010-6433-8612 제주도 : 010-3000-1945
익산 : 010-6610-2337 양산 : 010-6294-6126 수원 : 010-5211-7260
광주 : 010-6890-0365 진주 : 010-3583-7139 남양주 : 010-9183-9729

사찰 연등 및 전선(법당용 외곽용)
초심의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불자기업입니다.
등간격·규격참조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SMD LED전구(국산정품) AC 220V
고추구 12E 3구 인지구 26E 4구
연등(등표)사다리
불제 대원안전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 986-0277~8 (02)2266-2634,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구입문의 H.P 010-3630-7092
http://www.bulje.co.kr 본사·공장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
전선 간격
22cm,25cm,28cm,30cm,
40cm,50cm,1M,2M,3M,5M,
8M,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연분홍 백색 금색
▶연등규격 : 4cm, 6cm, 7cm, 8cm, 10.5cm, 13cm, 20cm, 30cm
제등행렬 용품
일지A형 S형 T분리형
LED버A형 LED홀더B형 건전지 초
▶방생, 탑돌이, 각종 행사용에 적합
사찰, 법당, 외곽, 연등용 (정품) 전 선 시 공

# “숨결 연기 같아지니 세계가 환하게 열려”

## 원통문에 든 25성자 ‘수능엄경’에서 만나다

### 〈3〉 육식원통(六識圓通)

세 번째 시간은 안이비설신의의 육근을 통해 접한 현상의 마음작용에 대한 설법시간이다. 부처님의 제자들은 앎의 작용에 대한 수행에 대해 각자의 입장을 얘기하고 있다. 〈편집자 주〉



그림 · 최주현

**사리불 “심견 청정이 진지진견의 길”**
**보현보살 “마음으로 들을때 분별 자재”**
**손타라난타 “밝은 숨결에 시방세계 열려”**
**부루나 “법음으로 마군항복, 번뇌 소멸”**
**우바리 “몸과 마음 단속하니 환히 열려”**
**대목건련 “마음의 빛을 밝히는 법 수승”**

**사리불**

사리불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舍利弗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오랜 옛 겁부터 심견이 청정하였으며, 이러한 상태로 몸을 받아 태어남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았사오나, 그때마다 세간과 출세간의 가지가지 변화를 한 번 보면 통하여 장애가 없었사옵니다. 저는 길을 가다가 가섭파 형제를 만나 그들이 선양하는 인연법을 듣고 마음이 끝이 없음을 깨달아 부처님을 따라 출가하였사옵니다. 여기서 보는 작용의 앎이 밝고 원만하여 두려움이 없는 큰 법을 얻고 아라한을 성취하여 부처님의 장자가 되었으니,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좇아서 태어나고 법을 좇아서 변화하여 나왔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가 증득한 바로는 심견이 빛을 내어 진지진견을 증득함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曠劫來 心見 ]淨 如是受生 如恒河沙 世出世間 種種變化

一見則通 獲無障 u我於路中 逢迦葉波 兄弟相逐 宣說因緣

悟心無際 從佛出家 見覺明圓 得大無畏(成阿羅漢) 爲佛長子

從佛口生 從法化生 佛問圓通 如我所證 心見發光 光極知見

斯爲第一

**보현 보살**

보현 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普賢菩薩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일찍부터 이미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은 여래의 법왕자가 되었사옵니다. 시방 여래께서 보살의 근기를 갖춘 제자들에게 보현행을 닦도록 가르치심은 저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세운 것이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마음으로 듣고 중생의 지견을 분별하옵니다. 만일 항하의 모래처럼 많은 다른 세계에 한 중생이라도 마음속에 보현행을 밝히는 자가 있으면, 저는 그때 여섯 어금니의 코끼리를 타고 백천으로 나누어 다 그 곳으로 가옵니다. 비록 그 사람의 업장이 두터워서 저를 못 볼지라도 저는 보이지 않은 가운데 그 사람의 이마를 만지며 보호하고 위로하여 원하는 일을 이루게 하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저는 수행의 근본인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밝혀서 분별이 자재로워지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已曾與 恒沙如來 爲法王子 十方如來 敎其弟子 菩薩根者

修普賢行 從我立名 世尊！我用心聞 分別衆生 所有知見

若於他方 恒沙界外 有一衆生 心中發明 普賢行者 我於爾時

乘六牙象 分身百千皆至其處[分身百億 皆知其所] 縱彼障深

未合[得]見我 我與其人 暗中摩頂 擁護安慰 令其成就 佛問

圓通 我說本因 心聞發明 分別自在 斯爲第一

**손타라난타**

손타라난타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孫陀羅難陀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제가 처음에 출가하여 부처님을 따라 도에 들어가서 비록 계율은 갖춰 지녔으나, 삼마지에 들려고 하면 마음이 항상 흐트러지고 흔들려서 번뇌가 없는 법을 얻지 못하자, 세존께서는 저와 구치라에게 ‘코끝이 희어질 때까지 코끝을 보라’ 고 가르치셨사옵니다. 저는 처음부터 자세히 관하여 21일만에 콧속의 기운을 보았더니, 드나드는 숨결이 연기와 같았사옵니다. 따라서 몸과 마음이 안으로 밝아지고 세계도 환하게 열려서 유리처럼 두루 비고 맑아지더니, 연기의 모양이 점점 사라져서 코의 숨결이 하얗게 변하였사옵니다. 여기에 마음이 열리어 번뇌를 다하고 드나드는 숨결들이 모두 광명으로 변화하여 시방세계를 비치며 아라한을 성취하자, 세존께서는 저에게 ‘앞으로 반드시 보리를 이루리라’ 고 수기를 내렸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숨결을 오래도록 소멸하여 숨결이 밝음을 일으켜서 밝음이 원만한 가운데 번뇌를 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初出家 從佛入道 雖具戒律 於三摩提[地] 心常散動 未獲

無漏世尊! 敎我及俱 羅 觀鼻端白 我初諦觀 經三七日 見鼻中氣

出入如煙 身心內明 圓洞世界 遍成虛淨 猶如琉璃 煙相漸銷

鼻息成白 心開漏盡 諸出入息 化爲光明 照十方界 得阿羅漢

世尊記我 當得菩提 佛問圓通 我以銷息 息久發明 明圓滅漏

斯爲第一

**부루나미다라니자**

부루나미다라니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富樓那彌多羅尼子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오랜옛 겁부터 말재주가 걸림이 없어서 괴로움이 공한 법 등 모든 소승법을 설하는 가운데 깊이 실상을 통달하였사옵니다. 이와 같이 갠지스 강의 모래처럼 많은 여래의 비밀법문을 대중 가운데서 미묘하게 연설하여 두려움이 없는 법을 얻었사옵니다. 여래께서는 저의 뛰어난 말재주를 아시고, 음성 굴리는 법으로 저를 떨쳐 일으켜주시니, 제가 부처님 앞에서 부처님을 도와 법륜을 굴리며 사자후를 떨치고 아라한을 성취하였사옵니다. 이에 세존께서는 저에게 설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인가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법음으로 마군의 원한을 항복시키고 온갖 번뇌를 소멸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曠劫來 辯才無 u宣說苦空 深達實相 如是乃至 恒沙如來

秘密法門 我於衆中 微妙開示 得無所畏 世尊知我 有大辯才

以音聲輪 敎我發揚 我於佛前 助佛轉輪 因師[獅]子吼 成阿

羅漢 世尊印我 說法無上 佛問圓通 我以法音 降伏魔怨

銷滅諸漏 斯爲第一

**우바리**

우바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優波離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몸소 부처님을 따라 성을 넘어 출가하여, 직접 여래의 6년 고행을 지켜보았사옵니다. 또 여래께서 온갖 마군을 항복시키고 모든 외도를 제압하시어 세상 사람들을 탐욕과 온갖 번뇌에서 해탈시키는 모습을 직접 보면서,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율을 받들어 지켰사옵니다. 이와 같이 삼천三千의 위의(威儀)와 팔만의 미세한 성업(性業)과 차업(遮業)에 이르기까지 모두 청정하여 몸과 마음이 적멸한 경지에 들어서 아라한을 성취하고, 여래의 대중 가운데 기강(紀綱)이 되니, 여래께서는 친히 저의 마음을 인가하시고 대중에게 ‘계율을 지니고 몸을 닦는 일에서는 가장 으뜸이다’ 고 추천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몸을 단속하여 몸이 자재한 다음, 마음을 단속하여 마음이 막힘 없이 환히 열린 뒤에, 몸과 마음이 모두 다 부드럽게 잘 통하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親隨佛 踰城出家 (親觀如來)六年勤苦 親見如來 降伏諸魔

制諸外道 解脫世間 貪欲諸漏 承佛敎戒 如是乃至 三千威儀

八萬微細 性業遮業 悉皆 ]淨 身心寂滅 成阿羅漢 我是如來

衆中綱紀 親[佛]印我心 持戒修身 衆推無上 佛問圓通 我以

執身 身得自在 次第[益]執心 心得通達 然後身心 一切通

[遍]利 斯爲第一

**대목건련**

대목건련이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 발에 예를 다하고 부처님께 사뢰었다.

大目 d連 æ 從座起 頂禮佛足 而白佛言

저는 거리에서 걸식을 하다가 우루빈라, 가야, 나제 등 세 가섭파를 만나서, 그들이 선양하는 여래 인연법의 깊은 뜻을 듣고 단번에 발심하여 크게 통달하자, 여래께서는 제 몸에 저절로 가사가 입혀지고 수염과 머리털이 저절로 떨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옵니다. 또 저가 시방을 다니면서 걸림 없는 경지에 들어 신통을 밝히자, 여래로부터 ‘더없이 훌륭한 신통’ 이라는 추천을 받고, 저는 아라한을 성취하였사옵니다. 어찌 세존 뿐이겠사옵니까? 시방의 여래께서도 저의 신통력을 ‘원만하게 밝고 청정하고 자재하여 두려움이 없는 경지’ 라고 찬탄하셨사옵니다. 부처님께서 원만한 통달법을 물으시니, 제 경우로는 맑은 대로 돌아가 마음의 빛을, 탁한 물을 오래 두어 맑히듯, 밝히는 법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하옵니다.

我初於路 (乞食)逢(遇) 優樓頻螺 伽耶那提 三迦葉(波) 宣說

如來 因緣深義 我頓發心 得大通達 如來惠我 袈裟著身 鬚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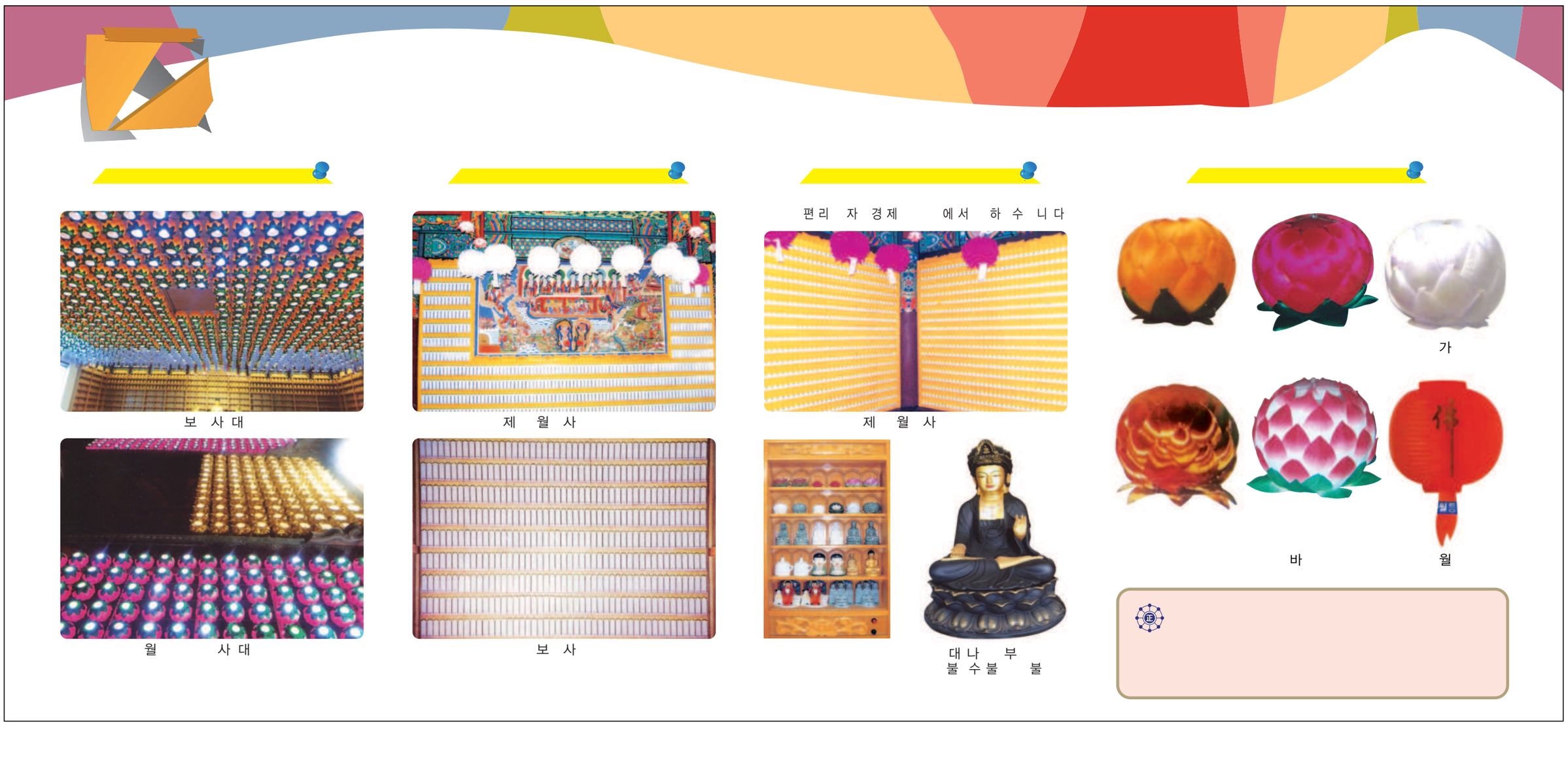
自落 我遊十方 得無u 神通發明 推爲無上 成阿羅漢 寧唯

世尊 十方如來 歎我神力 圓明 ]淨 自在無畏 佛問圓通

我以旋湛 心光發宣 如澄濁流 久成 ]瑩 斯爲第一

정리=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 글은 최근 이수덕 박사가 〈세계와 중생이 생긴 내력을 말하다〉로 편역한 ‘수능엄경’에서 발췌했다.



#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보라"

## '현대불교 입문' (마츠다니 후미오 저, 정병조 前금강대 총장 편역)

### 12. 붓다 설법의 기본적 성격



부처님의 설법은 형이상학적이지 않고 직관적이며 단순하다. 사진은 보물 제1472호 통도사 아미타여래설법도(通度寺 阿彌陀如來說法圖).

**붓다 설법의 성격을 구하다**

이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붓다의 기본 설법에 관해서 이야기 하였다. 그러나 그 외에 아직도 수천의 부처님의 직설(直說)을 기록한 경전이 있다. 이런 것에 관해서 옛날의 논사(論師)들은 붓다 가르침의 기본적 성격을 여러 가지의 형식으로 요약하려고 힘써 왔었다.

예를 들면 소위 삼법인(三法印)이라고 알려져 있는 〈제행무상(諸行無常), 제법무아(諸法無我), 열반적정(涅槃寂靜)〉의 삼송(三頌)은 붓다의 가르침을 사상적 입장에서 거론(擧論)하였다. 그것이 외도(外道) 즉 당시의 다른 사상가들의 그것과는 틀린다는 점을 요약하면 이 세 가지의 섭송(攝頌 uddana 시구로 요약해서 교리를 설명한 것)에 귀착(歸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붓다의 가르침은 이것을 존재론(存在論)의 입장에서 말하면 '제행무상'의 입장을 취하는 것이며, 그것을 인간론(人間論)의 견지(見地)에서 보면 '제법무아'라고 표현할 수 있으며, 다시 또 이것을 목적론(目的論)적으로 거론한다면 '열반적정'을 구극(究極)으로 한다. 이렇게 하여 이 세 가지의 섭송(攝頌)을 불교의 깃발로 삼으며 거기에 불교의 사상적 입장을 명확히 제시하려고 한 것이 소위 삼법인(三法印)이었다.

이러한 시도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불교를 사상적으로 파악하며 표현하려고 할 경우에는 무시할 수 없는 훌륭한 사상적인 영위(營爲)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붓다 가르침의 기본적 성격을 잡으려는 시도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다양하게 행해져 왔으며, 또 앞으로도 행하여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리 잡고 있는 사상적 사회적 종교적 입장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이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또한 우리들의 입장에서 붓다의 가르침의 성격을 포착하려는 시도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것**

그러한 시도로써 지금 나는 여기에서 붓다 설법에서 볼 수 있는 몇 가지의 특징적 모습을 지적해볼까 한다. 이러한 시도를 일삼는 사람은 지금 이 시대에 있는 내 자신이다. 따라서 그 거론하는 방법에는 역시 현대의 요구가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내 자신도 또한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자료는 어디까지나 근본불교(원시불교)경전에 의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이미 어느 정도 붓다 설법의 성격을 제시하면서 우리들의 요구에 응(應)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붓다의 설법에 접함으로써 계몽(啓蒙)된 사람들은 자주 다음과 같이 마음을 털어 놓으면서 이 스승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여러 경전은 말하고 있다.

"훌륭하도다. 세존이시여, 훌륭하도다 세존이시여, 비유하면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 덮힌 것을 깨끗이 걷듯이 방황하는 자에게 길을 가리키며 보여주듯이,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켜면서 눈 있는 자는 보라는 듯이 이렇게 세존은 여러 가지 방편(方便)으로서 법을 현시(顯示)하셨도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세존을 받들며 그 교법을 받들며 또 그 비구중(比丘衆)을 받들며 진심으로 귀의(歸依)하노라. 원컨대 세존이시여, 나를 세존의 제자로서 허용하소서."

이 구절은 아함부(阿含部)의 여러 경전에서 벌써 유형화(類型化)되어, 자주 볼 수 있는 것이다. 유형화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박미(素朴味)를 상실(喪失)하고, 진상(眞相)을 희박(稀薄)하게 하였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역시 이 구절은 붓다의 설법에 대한 제자들의 술회(述懷)를 상당히 진상에 가깝게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다.

그러면 이 구절은 붓다의 설법에 관해서 그 어떠한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것일까.

거기에서 지적되어 있는 점은 이 가르침이 무엇보다도 있는 그대로를 본다는 가르침, '여실지견(如實知見)'의 가르침이라는 점이다. 오늘날의 말을 빌리면 좀 어폐(語弊)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가르침은 실증성(實證性)이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 술회(述懷)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캄캄한 어둠 속에 등불을 켬으로써 눈 있는 자는 보라고 말하듯이' 라는 한 구절이 가장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물론 이 한 구절이 지적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다.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 라는 한 구절은 전도(顚倒)의 견(見)을 떠나서 정견(正見)에 뜻을 두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다. 또 '덮힌 것을 깨끗이 걷듯이' 라는 한 구절은 고대(古代)의 진리관에 서서 진리란 덮이지 않은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에도 여전이 세상의 종교를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환상(幻想)을 즐거워하며 불가사의(不可思議)를 말하는 것을 본지(本旨)로 하는 이가 많다. 종교를 탐구한다는 사람들 가운데도 신비(神秘)를 즐거워하며 초자연(超自然)에 관해서 듣기를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그러나 붓다는 그렇지 않았다. 붓다 설법의 어디에도 우리들은 환상이나 불가사의나 신비나 초자연에 관한 언설(言說)을 볼 수가 없다. 이 스승은 다만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여실지견(如實知見)' 하기를 가르치셨다.

'불법에 불가사의(不可思議)는 없다' 라는 훗날의 불자(佛子)의 말도 여기에서 함께 생각하여 봄으로써, 붓다의 설법의 이러한 성격을, 우리들은 제일 첫 번째로 깊이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단순(單純)하다는 것**

또 어떤 경전에 의하면 이 스승의 가르침에 접하여 재가(在家)의 신자가 된 어느 외도(外道)의 행자(行者)는 붓다의 설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술회를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세존이시여, 진실로 크나 큰 사라(紗羅)의 나무가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떨어지며 나무껍질도 벗겨지고 부재(膚材)도 탈락되어 다만 심재(心材)만이 남아서 서 있는 것처럼 세존이 설명하시는 바는 일체(一切)를 탈락하여 다만 심재(心材)에 있어서만 확립(確立)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또한 앞서 말한 '넘어진 것을 일으키듯이' 라는 한 구절이 이것 다음에 계속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이 한 구절도 또한 붓다의 설법이 갖는 다른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 점에서 매우 흥미 깊은 술회라 할 수 있다.

이 한 구절이 지적하고 있는 부처님 설법의 하나의 성격은 단순성(單純性)이라는 점이다.

붓다의 설법은 돌연이 결론만을 말하는 일은 별로 없으며 오히려 정연(整然)한 이론으로써 이끌어 간다는 점을 그 본질로 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 설법은 언제나 이치가 정연하게 갖추어져 있으며, 차츰 차츰 단계를 따라서 유도(誘導)하기 때문에 얼핏 보기에는 매우 복잡하다고 말하는 것도 지나친 일만은 아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조건의 복잡 괴기(怪奇)하게 얽힌 속에서 매일의 생활을 영위(營爲)하고 있다. 그런 속에 있으면서 능히 올바른 관찰을 잃지 않으며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들은 먼저 부수적인 조건을 끊어버리고 필연적(必然的)인 조건만을 남기며, 가능한 한 단순화된 조건 속에서 잘 관찰하며 판단한다면 아마 판단의 정곡(正鵠)을 얻게 되리라고 생각한다.

여기 붓다의 이로정연(理路整然)한 설법이 훌륭한 단순화를 갖고 있다는 표현은 이러한 뜻의 단순화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 한 그루의 큰 사라(紗羅)나무가 있다. 그 잎이 먼저 떨어져 없어진다. 다음에는 그 가지가 끊겨지며 없어진다. 다시 그 나무껍질도 떨어져 나간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남는 것은 다만 한 그루의 사라(紗羅)나무 줄기의 심재(心材)만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설명하는 바는 일체를 탈락하며 다만 심재(心材)에 있어서만 확립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외도의 행자는 관취(觀取)하였다. 관취하며 또 명쾌하게 그 설명한 것을 이해함으로써 이 스승에 따르는 재가신자(在家信者)가 된 것이다. 우리들은 이 술회가 지적하는 부처님의 설법의 성격을 잘 음미하며 생각하여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들은 자칫하면 붓다의 교설이 복잡하며 번쇄하다는 인상을 가지기 쉽다. 그러나 이 술회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그것은 도리어 훌륭한 단순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만일 그러하다면 우리들도 또한 일체의 부수적인 것을 구하지 말며 단순하게 가르침을 들으려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스승의 설법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다시 읽는 유석질의론

(함허 스님 저, 송재운 교수 역)

### 불교의 인과는 황당하지 않나

**문** 유교에서는 불교의 삼세인과 · 죄복보응의 설이 황당하다하며 믿지 않는데 무엇으로 증거하여 그러함을 알겠는가

**답** 삼세의 인과 죄복이 보응(報應)이 있음은 천도자연(天道自然)의 정리이다. 밝기가 푸른 하늘의 백일(白日)과 같은데도 사람들이 스스로 살피지 못함으로 부처님이 밝혀서 가르쳤을 뿐이다. 유자(儒者)인들 어찌 말하지 않았겠는가. 다만 말을 했어도 지극하지 못함이 있을 뿐이다.

'보응' 이란 무엇인가. 복의 극치를 말한다. '죄복' 이란 무엇인가. 선악을 말함이다. 이는 유씨(儒氏)의 황극조화에 밝혔으나 다만 유자의 말은 삼세에 미치지 못할 뿐이니, 이것이 지극하지 못한 까닭이다.

만일 "정신(精神)이 일생에 그치지고 진멸(殄滅)한다"고 말하는 것은 단견이니 이는 생생의 이치를 매혹함이다. "사람은 항상 사람만 되고 축생은 항상 축생만 된다"는 것은 상견(常見)이니, 이는 음양변역의 이치에 매혹됨이니, 단 · 상의 두 견해에는 부처님께서도 꾸짖으신 바이다.

부처님은 삼세인과의 설로서 세간을 개유(開諭)하여 크고 미세한 사물의 이치가 다 그러하지 않음이 없다.

이른바 '삼세' 라는 것은 밤과 낮의 도이다. 낮이 장차 반이되면 음기가 오중(午中)에 싹튼다. 그러나 밤이 오히려 이르지 않는 것은 삼시(三時:未 · 申 · 酉)니 이것을 인(因)이라고 말하고 이미 저물고 나면 음(陰)의 과(果)가 이른다.

이른바 '인과' 라는 것은 콩을 심으면 콩을 얻고, 보리를 심으면 보리를 얻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말하기를 '봄에 한 알의 곡식을 심으면 가을에 만 알의 씨를 거둔다' 고 하였는데, 인생이 선악을 지으면 과보도 다시 이 같이 받는 것이다.

또 말하기를 '전세(前世)의 인(因)을 알고자 한다면 금생(今生)에 받고 있는 결과이고, 미래세(未來世)의 과(果)를 알고자 한다면 금생에 지은 원인이다' 라고 했다.

그러므로 존자 · 귀자 · 부자는 스스로 전생의 공덕을 다행으로 여기고 더욱 나아가 닦으며, 가난하고 천하며, 아픈 사람들은 스스로 전생의 잘못을 뉘우치고 매일 착한 행실을 닦으며 허물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백성이 감탄하며 착한 사람으로 변화하는 까닭이다. 유생이 이에 대해 황당하다고 하는 자는 부처님의 이치만 자세히 살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황극(皇極)의 도(道)도 알지 못하는 자이다.

예의와 사양으로 사람을 따른다면 사람도 또한 그에게 예를 하고, 악한 말로 사람을 꾸짖는다면 사람도 그를 꾸짖는다. 이는 눈으로 보는 인과이다. 옷을 입으면 따뜻하고 음식을 먹으면 배부르다. 봄에 갈면 가을에 수확하고 여름에는 모시옷을 입고 겨울에는 솜옷을 입는데에는 세공(歲功)의 인과이다.

생로병사(生老病死)는 사시(四時: 사계절)와 같고, 순환출몰(循環出沒)함은 해와 달과 같다. 주역에 음양을 논하며 양음이라 말하지 않고 음양이라 말한 것은 음이 다하고 선변(旋變)하여 양이 됨을 말하며, 신귀라지 않고 귀신라고 말한 것은 굽히고 나서 다시 폄을 이루는 것을 말함이다.

### 삶에서 선악을 지으면 인과가 따른다
### 이를 모르면 佛法 · 儒敎 모두 모르는 것

덕을 닦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대우(大禹) · 직(稷) · 설(楔)의 하는 바와 같이 하는 것이 이것이며, 유교의 인 · 서(仁 · 恕)이며, 부처님의 대비이니, 무릇 사람에게 이택(利澤)이 있고 물(勿)의 급난(急難)함을 구제하는 것이 이것이다.

하나라의 왕 노릇은 4백년이고 은나라의 왕노릇은 6백년이고 주나라가 천하를 소유함은 8백년이니, 또한 먼저인 자는 촉박하고 뒤에 있는 자는 연장함이 아니겠는가.

무릇 착한 행실이 누적되면 성인이 되고, 천하의 임금이 되며, 다음으로는 어진 사람이되고 신하 · 재상이 되며 그 다음으로는 부귀와 명예가 잃지 않고 천하 후세가 함께 그 아름다움을 칭찬하니 경하로움이 있다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것이 곧 유자의 현세의 인과이다. 이를 미루어 다함이 없는데 이르러도 이치가 어긋나지 않음이 사시의 운행과 같이 진실하니, 부처님의 보이신 가르침이 어찌 황당하다 하겠는가.

〈유석질의론〉 번역 저본은 동국대 역경원이 1984년 발행한 것(송재운 교수 역)을 발췌한 것이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 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그리하여 산자와 죽은자가 부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이고득락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데 의의가 있다. 〈영산재보존회 前 사회부장 처명〉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 (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은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영산재 보존도량 봉원사 경내 설법전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 ~ 8:30
■ 수강대상 : (1)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통한 약사여래부처님의 가피로 몸과 마음을 치유 받고자하는 모든 분
(2) **영산재**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3) 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지도 : 봉원사 법화정토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영산재범패소리 氣에너지치유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0-5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0-5264-3906 www.yjkukak.com

# “후학 양성이 한국불교 미래 위한

**본각 스님**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은 … 1976년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1979년 통도사에서 비구니계를 받았다. 동국대 철학과와 봉녕사 승가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본 릿쇼(立正)대학서 석사과정을 마친 뒤 고마자와(駒澤)대학에서 화엄학을 공부해 불교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중앙승가대 불교학과와 봉녕사 승가대학 교수로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한국비구니연구소 소장, 화엄장학회장, 샤카디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 조계종 교육원 고시위원, 포교원 포교위원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화엄관법과 기초적 연구〉 〈화엄경십지품개설〉 〈진리의 숲 법구경 이야기〉 〈한국 비구니의 수행과 삶(공저)〉 등 다수가 있다. 또한 현대불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2008년에는 제6회 대원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청빈낙도의 삶을 실천하는 수행자들에게도 몇 가지 애환거리가 있다. 바로 본인의 몸이 아파 치료비가 필요할 때와 학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때다. 사찰 소임을 맡지 않고 무소유의 삶을 사는 스님들일수록 뒷바라지하는 불자들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다. 특히 주로 불교를 접한 학인 스님들에게 이러한 고민은 더욱 크게 다가온다. 최근에는 종단차원에서 종립대학에 진학한 사미 · 사미니 스님에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스님이 무슨 공부냐’ 며 야단만 맞던 시절에는 수많은 학인 스님들이 이런 남모를 고민을 안고 살았다.

이런 학인 스님들에게 지원을 꾸준히 아끼지 않은 한 스님이 있다. 바로 중앙승가대 교수 본각 스님이다. 3월 24일 김포에 위치한 중앙승가대에 가는 길은 마음을 저절로 차분하게 했다. 안암동 개운사 시절을 거쳐 김포 풍무동으로 옮긴지 15년, 산 속에 자리한 대학은 고요하기만 했다. 간간히 들리는 스님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뒤로 산세를 따라 세워진 수행관 앞에는 인자한 미소를 띤 본각 스님이 기자를 맞았다. 스님은 1995년부터 20년 넘게 학인 스님들을 돕는 화엄장학회를 운영해오고 있다.

### 20년간 학인 스님들 위한 장학회 운영

본각 스님이 화엄장학회를 운영한 것은 1995년 3월 중앙승가대학의 안암동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 교육은 백년지대계다
### 20년간 장학회… 482명 이수 총 3억여원
### 1년에 두번씩, 40회 자비교육 나눔

일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대학의 요청으로 대학 기숙사 보타사를 맡으면서 부터였다.

“비구니 학인 스님이 거주한 보타사도 엄연한 사찰이기에 많은 절 살림이 있습니다. 법당 부전을 비롯해 절에 불을 때는 화전, 청소 등 모두 학인 스님들이 담당하는데 학내와 달리 이런 소임에는 장학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공부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학인 스님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장학회를 만들게 됐어요.”

스님은 보타사 신도들과 인연이 있는 불자들을 한데 묶어 장학회를 결성했다. 학인 스님들을 돕는다는 말에 선뜻 동참자들이 늘었다.

본각 스님은 “첫 장학금 수여식 날, 십시일반 힘이 만들어낸 벅찬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했다.

20년 동안 화엄장학회의 도움을 받아 학업을 이수한 이들은 482명, 금액은 2억 9400만원에 달한다. 2000년부터는 환경이 불우한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까지 장학 혜택을 받았다.

“십시일반으로 출발했지만 신기하게도 ‘곳간’이 비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6개월간 모아주신 장학금을 3월 봄 장학금 수여식 때 전부 드리고 나면, 다시 차곡차곡 채워졌어요. 모두 불자님들 덕분입니다. 1년에 두 번씩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마흔 번의 자비공덕을 함께 쌓았습니다.”

### 아버지 49재 인연이 6남매 출가의 복으로

본각 스님이 학인 스님들을 돕게 된 것은 발심한 후배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불법에 매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스님은 형제자매가 함께 동진출가한 후 청소년기 환속 후 발심, 다시 재출가하기 까지 많은 일을 겪으며 이러한 발심을 키웠다.

1952년 스님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친이 급작스런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큰 오빠인 천제 스님이 먼저 출가를 하며, 스님의 불교와의 인연이 시작됐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천제 스님이 출가하자 1년 뒤 큰언니 혜근 스님도 출가의 뜻을 비쳤고 이에 본각 스님의 어머니는 가족 모두의 출가를 결심하고 태백산 홍재사로 입산했다.

성철 스님의 맏제자가 된 천제 스님을 비롯해 ‘성종’ 이란 법명을 받고 입적한 모친과, 큰 언니 혜근 스님, 둘째 언니 적조 스님, 셋째 언니 보명 스님, 둘째 오빠 삼소 스님까지 온 가족이 출가의 복을 지었다.

모친의 입적 이후 세 살의 나이에 스님은 인천 부용암에서 육년(六年) 스님을 은사로 인연을 맺었다. 이후 성철, 일타(지족암), 법명을 지어 준 전강, 혜암(수덕사), 춘성, 석남사 인홍, 봉녕사 묘엄 스님 등에게서 배움의 길을 닦았다.

“은사 스님은 저에게 어머니 이상인 분이셨어요. 은사 스님은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셨지요. 청소년기에 세상을 경험하겠다고 나설 때도 나무라기는커녕 도와주셨어요. 이런 은사 스님의 따뜻한 가르침에 불교의 참공부를 하고 싶다는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스님은 동국대서 서양철학을 전공한 뒤 다시 출가했다. 운문사 강원에서 내전, 치문, 대교, 사집 등을 공부하면서 환희심을 느꼈고, 평생을 공부에 매진해야겠다고 발심했다. 봉녕사에서 3년간 중강 소임을 맡다 1982년 가을 일본으로 건너가 〈화엄경〉에 등장하는 많은 보살들의 활동상에 이끌려 화엄학을 전공했다. 도쿄 릿쇼(立正)대 석사, 도쿄 고마자와(駒澤) 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스님은 1991년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교수로 강의를 시작해 현재에 이르렀다.

“은사 스님에게 약속했습니다. 유학을 갈 때 돌아와 꼭 강단에 설 테니 그때까지 살아계셔 달라고요. 다행히 제가 돌아와 강단에 서는걸 보셔서 마음의 짐은 덜었지요. 학인 스님들을 돕게 된 것도 은사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스님들뿐만 아니라 장학으로 인연을 맺은 대학생들도 사회에서 자리 잡은 뒤 재능기부로 회향을 하고 있습니다. 씨는 뿌리면 열매가 됩니다.”

### 인재양성에 우리사회 미래 있어

스님은 불교가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소년기 환속기간 동안 외부에서 스님과 불교를 어떻게 바라보는 지를 느낀 것이 소중한 경험이라고 스님은 평소 지론을 밝혔다.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들은 불교에 대해 고리타분하고,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본격적으로 불교를 접한 학생들은 불교가 논리적이면서도 종교를 넘어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 또한 밖에서 오히려 불교의 소중함을 더욱 더 느끼게 됐고 서양철학을 공부하며 불교의 수승함을 알게 됐습니다. 경쟁으로 치닫는 우리 사회가 현재 잃어버리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삶, 그리고 생명의 존귀함 등 불교 속에는 삶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를 젊은이들에게 알려야 해요. 특히 실천을 강조하는 대승보살의 삶을 전파하고 어떻게 하면 불교적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전해야 하겠지요.”

이런 원력 하에 스님은 승가대에서 화엄학을 가르치는 한편 주석하는 곳 마다 젊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의 장도 함께 열고 있다. 홍은동 금장사에서는 2006년부터 6년간 방과 후 교실을 열어 초등학생을 지도하기도 했으며, 2010년 고양 금륜사로 사찰을 이전 한 뒤부터는 어린이 청소년 법회와 함께 60사단 권율부대서 매주 장병들을 대상으로 법회와 강연에 나서고 있다.

“문제가 있는 이도 한 마음만 돌이키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인성교육을 비롯해 어려서부터 공동체정신 등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스님들은 교육자로서도 사회적인 몫을 가지

### 젊은이들 위한 교육의 장 펼쳐
### 금장사서 2006년부터 6년간 방과후 교실
### 2010년 금륜사 이전… 군 장병 대상 강연

고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하고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많이 듣고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을 하지 않는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기에는 가르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구별이 없습니다.”

### 회향 속에 피어나는 화엄의 꽃

화엄경의 선재동자가 만난 선지식은 한 사람이 아니라 쉰세 명의 보살들이었다. 화엄학을 전공한 스님이 승가대 학인들에게 강조하는 것도 그래서 ‘내’가 아닌 ‘우리’ 이다.

“〈법화경〉이 ‘일불승’ 즉 한 송이 백련을 상징한다면 〈화엄경〉은 일 년 내내 피는 수많은 꽃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분별을 타파하고 깨치는 것이 화엄행자의 도리입니다. 꽃을 보살행에 비유해서 일체 모든 중생의 가치를 꽃으로 즉 보살로 승화시키는 것이 화엄경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스님은 “자신이 공부한 공덕을 일체중생의 공덕으로 돌리는 것이 〈화엄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회향이자 보살사상”이라고 했다.

스님이 비구니 스님들의 행장기와 근현대 자료를 총망라하는 아뜩한 일을 뿌리치지 못하고 자신의 일


탱화 청동불상 전문 [ 1,000불 3,000불 10,000불 ]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신중탱화

四 代 傳 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 동 불 교 미 술 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

사찰 건축
천년 가람을 이루는 지극한 마음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최신스틸공법 시공 / 대웅전 / 요사채 / 산신각 / 전문시공





스틸한옥의 장 점
◆ 단열효과가 높고 유지 보수가 쉬우며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다.
◆ 층수에 관계없이 고층 시공이 가능함. 한옥빌라, 한옥빌딩, 한옥아파트 등
◆ 스틸구조에 의해 디자인 면에서도 한옥의 선을 맘껏 살릴 수 있다. 다양한 디자인 한옥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립니다.
(주)만성기업 한중열 합장
부산 사상구 강선로 11번지 / 010-4245-1335

# 최고의 불사”



본각 스님(왼쪽 세번째)이 비구니연구소 회원 스님들과 출간을 준비 중인 비구니사 자료집을 정리하고 있다. 스님은 화엄장학회를 통해 1999년부터 줄곧 연구소 연구지원비를 후원하고 있다.



2013년 인도에서 열린 샤카디타 세계여성불자대회에 한국 대표단과 함께 참가한 본각 스님(왼쪽 네번째). 스님은 현재 샤카디타 코리아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본각 스님(오른쪽)이 3월 8일 고양 금륜사에서 열린 화엄장학회 20주년 기념법회에서 학인 스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2008년 불교 대중화에 기여한 공로로 대한불교진흥원이 수여하는 제8회 대원상 승가부문 대상을 수상한 본각 스님(왼쪽 세번째)

로 삼은 것도 여기에 기반한다. 1999년 겨울, 대한매일신문사의 〈근세 여성 종교 지도자 명감〉에 들어갈 자료를 요청 받은 스님은 비구니사 정리에 원을 세웠다.

“당시 자료를 찾아보니 불교계에서 비구니 스님들에 관한 자료는 ‘승적부’가 고작이었습니다. 당시 신문사의 요청자료인 500명에 미치지는 못하더라도, 200명이라도 자료를 모아 보자고 생각해 수행관에 함께 사는 97학번 비구니 스님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매진해 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스님은 2000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소하고 자료수집과 연구작업에 들어갔다. 2003년에 1차 성과물인 〈신문 기사로 본 한국 근현대 비구니 자료집〉(전6권)과 〈비구니와 여성 불교〉(전6권)를 비롯해 비구니 자료를 지속적으로 펴냈다.

학인 스님들과 함께 1000명에 가까운 비구니 스님들을 전국 사찰에서 취재하고, 자료화 작업을 위해 밤을 새기도 했다. 꾸준한 노력에 ‘비구 스님 연구기관도 없다’며 정식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대학 측도 2014년 비구니연구소를 정식기관으로 인정했다.

2004년에는 세계여성불자대회인 제8회 샤카디타 대회의 추진위원장을 맡아 대회를 원만히 치러냈으며 이후

**비구니사 정리에 큰 원 세우다**
**2000년 ‘한국비구니연구소’를 개소**
**〈근현대 비구니…〉〈비구니와 여성불교〉 출간**

공동대표를 맡아 매 대회마다 스님들을 이끌고 대회에 참여하고 있다.

### 불법의 씨를 뿌리는 농부의 삶으로

정년이 2년 남짓 남은 스님은 퇴임 후 금륜사에서 농부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스님의 농부라는 표현은 불법의 씨를 뿌리는 포교와도 맞닿아 있다.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닷새 씩 연구실에서 연구와 강의에서 매달리던 데서 보다 자유롭게 대중과 접촉하겠다는 의지다.

스님은 사회 변화에 대한 인식을 게을리 한다면 불교는 더 이상 설 자리를 찾기 힘들 것이라 여긴다. 금륜사 일대에 주말농장을 개척해 고양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찰로 오게 하고, 북까페 ‘다륜쉼터’를 만들어 휴식공간을 제공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주말에는 기도와 함께 요가강좌 등도 마련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불교도 시대에 발맞춰야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절도 바쁜 현대인들이 잠깐 들려 차 한 잔 밥한 그릇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요. 시민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실 홍은동 금장사에서 고양으로 사찰을 옮기며 이어오던 방과후교실을 문 닫게 돼 마음 한편에 짐이 남아있는데 사찰이 안정화 되면 ‘방과후교실’도 다시 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끝으로 스님은 2015년 불교계에 안 좋은 일들이 많지만 스님들이 더욱 힘을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답답한 일이 많지만 한 명이라도 불교를 좋아하는 불자가 있으면 승려가 힘이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승려는 ‘내 앞에 불자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분을 행복하게 하겠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미래를 내다보는 식견을 갖춘 스님들이 중심이 돼고 불자들이 뭉쳐 부처님 법을 널리 펼쳐야 합니다.”

중앙승가대 마당에는 쌀쌀한 3월 날씨 속에도 겨우내 움츠렸던 푸른 잎들이 솟아 오르고 있었다. 스님의 말 속에서 긴 겨울을 겪고 있는 불교에도 새 봄이 찾아옴이 느껴졌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전법일기

## 사회와 함께하는 사찰 만들기

### 바자회부터 재정 공개까지

2015년 을미년 3월도 막바지다. 완연한 봄이 찾아왔다. 원각사가 자리한 서울 관악산 곳곳에는 봄꽃들이 기지개를 피며 봄이 왔음을 알린다. 산골에서만 살았던 내가 원각사에 온지도 이제 2년이 되어간다.

도심사찰에서 초임 주지를 맡으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한 것이 봉사와 포교였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그간 원각사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이 저조한 편이었다. 그래서 신도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소통하려는 시도를 해왔고 그간 소정의 성과도 있었다.

원각사 주지로 부임해서 처음 시도한 것은 ‘자비나눔 바자회 장터’였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자비나눔 바자회 장터를 열어 신도들이 기증한 헌 옷과 각종 먹거리, 토속식품, 생활용품 등을 판매했다. 그렇게 생긴 일부 수익금은 지역 소년, 소녀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독거노인 분들에게는 쌀을 지원했다.

‘지역민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봉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자연스럽게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로 이어졌다. 이 역시 신도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한 끝에 만들어진 결론이다. 그래서 원각사에서는 매년 가을 정기적으로 효행 잔치를 연다.

신도들과 소통하면서부터 지역사회와 함께 하기 시작한 원각사는 청소년들과 공무원 불자들의 신행활동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관내 관악경찰서의 소년계 형사들과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비행청소년 상대로 템플스테이를 운영한 것은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관악경찰서의 표창을 받기도 했다. 또한 원각사는 관악구청 공무원 불심회 법회를 주관하며, 공무원 불자들과도 즐거운 소통을 이어오고 있다.

이런 변화하는 사찰의 모습은 신도들의 신뢰가 회복된 것은 물론이고 사부대중 화합에도 많은 영향을 줬다. 원각사 신도회장은 어느 날 이런 말을 내게 건넸다.

“예전 젊었을 때에는 시간과 건강이 허락해서 절에서 봉사와 포교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요즘은 건강이 이전 같지 않아서 많은 도움을 못 드리고 있지요. 그래도 신도들과 함께 봉사하니 즐겁습니다. 앞으로도 원각사 발전과 지역 포교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할께요.”

신도회장의 말에 이제 2년차 초임 주지인 나는 고마움에 눈물이 핑 돌았다. ‘2년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구나. 신도들과의 소통이 이제는 이뤄지고 있다. 이제 힘들어도 즐겁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나는 요즘 원각사가 서울 관악구 포교에 앞장서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교 활성화에 별 다른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 나는 지금도 사찰과 신도의 믿음과 신뢰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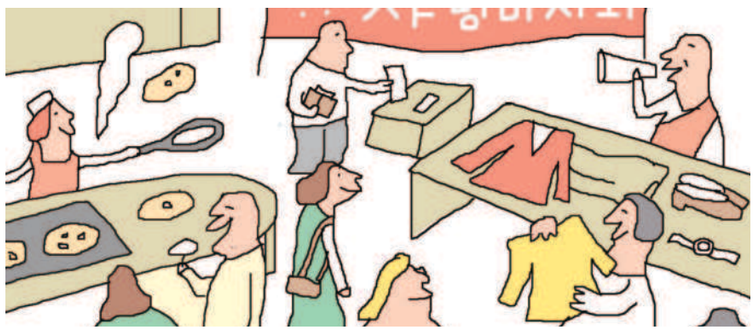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생기면 자연스럽게 포교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절실히 믿고 있기 때문이다.

원각사 사찰 회계, 재정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년에 2회에 걸쳐 신도회 임원들에게 회계장부를 공개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런 노력은 지난해 제9교구 본사 팔공총림 동화사 종무지도 감사에서 우수 사찰 선정이라는 결과를 내기도 했다.

지역 포교를 실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2년 동안 뼈에 사무치게 체험했다. 모든 것은 ‘소통’의 문제였다. 하지만 신도와의 소통은 사찰의 안정을 가져오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과 ‘소통’하니 사찰의 위상도 높아졌다. 이런 경험은 부처님 법을 전하는 수행자로서 귀중한 경험이자 자산이 되고 있다.

오늘도 대웅전의 부처님께 기도를 드린다. 2년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의지처가 돼주시는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린다.



날마다 좋은 날이고, 모두가 좋은 인연이다.

연호 스님 (서울 원각사 주지)

2559년
석가탄신기념
특별한정판 출시

능인향당에서는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를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능인계향을 출시합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戒香 계향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초파일까지만 특별 한정판으로 생산되며
주문에 의해서 사찰에만 공급합니다.

■ 가격 : 15,000원 (초파일 이후 현지 사정에 의해 단종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www.nihwa.com
02)3663-6777

능인향당

생활밀착형 온라인 쇼핑몰 무료배송
칠성상회
02-879-2007

상품 문의 및 기타 사항
02-879-2007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금계좌 안내 :
신한 100-023-357023 (주)한메소프트



교세라 복사기(중고)
A3~A6용지 사용가능
팩스,복사,프린트 모두가능
금액: 950,000원




수행 중 찾아오는 피로와
손발의부기,냉기 예방에 탁월한
아시혈 패치(30매)
금액 : 33,000원




수행에 지친 분들의 원기 회복과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리산 다슬기엑기스
한달분(80ml/60팩)
금액 : 115,000원



멀리 있어도 함께하며
마음과 진심을 전달합니다.
3단 근조 화환
(지정 날짜,시간에 배송가능)
금액 : 100,000원




5차 재입고,매년 인기 상품
올 겨울 따듯하게 준비하세요.
거성 온수피아 카페트 매트
금액 : 330,000원




풍수총론(風水總論)
이산 장태상선생님의 현공풍수학
연구의 절정 (무료배송)
금액 : 35,000원

# "캠퍼스서 수행자로 생활하니 힘드네요"

## 하버드가제트, 하버드신학대 재학 스님 조명

수행자이지만, 현재 '대학생'의 신분으로 캠퍼스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스님들이 있다.

〈Harvard Gazette〉 지는 3월 23일 하버드신학대(Harvard Divinity School)에 재학 중인 스님 5명을 조명하고, "'고요'와 '평화'의 결정체로 여겨지는 스님들이지만, 그들 모두 대학을 찾게 된 남다른 서원이 있고 캠퍼스 문화에 적응하기 위한 그들만의 노력이 있다"고 보도했다.

〈Harvard Gazette〉 지가 조명한 이들은 반테 쿠사라(Bhante Kusala, 스리랑카), 우파리 스레만(Upali Sraman, 방글라데시), 장 간 시(Chang Gan Shi, 중국), 이스워 스레스타(Ishwor Shrestha, 네팔), 셍엔 입(Seng Yen Yeap, 홍콩) 스님 등이다.

"불교 수행자는 하버드 캠퍼스에서 결코 평범하지 않은 존재"라고 설명한 반테 쿠사라 스님은 "대학이라는 특성상 동급생들과의 교류를 마다하지 않아야 하는데, 거기에는 스님마다 원칙이 있는 것 같다"며 "서로에게 편안한 소통 방법을 찾는 게 캠퍼스 생활에 적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덧붙였다.

쿠사라 스님에 따르면, 스리랑카 스님들은 신체적 접촉에 민감하다. 심지어 악수도 하지 않는다.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동급생들은 우정을 표하는 방법으로 악수는 물론 포옹을 특히 선호한다. 이 문제는 쿠사라 스님에게 캠퍼스에서 첫 학기를 보내는 동안 '화두 아닌 화두'가 됐다.

"한 학기 내내 동급생들에게 스리랑카 스님의 가치관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데 노력했다"는 쿠사라 스님은 "그 노력과 또 동급생들의 이해로 올해로 2년째를 맞은 캠퍼스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파리 스레만(Upali Sraman, 방글라데시, 사진 왼쪽)과 반테 쿠사라(Bhante Kusala, 스리랑카, 사진 가운데) 스님이 동급생 카트리나 페터슨(Katrina Peterson)과 담소를 나누고 있다.



장 간 시(Chang Gan Shi, 중국) 스님. 스님은 하버드신학대에서 유일한 비구니 스님이다.

## 스리랑카 · 홍콩 · 중국 출신 스님 '완벽한 인격체' 선입견 힘들어 피자먹으며 학생과 교류할 때 행복 성속 경계서 자신의 위치 바로 세워

방글라데시 유학파인 우파리 스레만 스님 역시 적잖은 어려움을 극복해야만 했다. 스레만 스님의 어려움은 동급생들의 '선입견'이었다. 이는 다름 아닌 '수행자는 완벽한 인격체'라는 선입견이었다.

스레만 스님은 "수행자로서 매일 입었던 가사가 학생들의 이목을 잡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며 "캠퍼스에서 찾아보기 힘든 수행자의 모습을 본 동급생 대부분 '완전한 인격체'의 기대감을 키웠고, 이로 인해 내 캠퍼스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스레만 스님에 따르면, 처음에는 동급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주변을 지나치게 의식하다보니 스스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맡기도 했다. 결국 스님은 '가사는 옷일 뿐, 그 안에는 너희들과 똑같은 인간이 있다'는 점을 이해시키는 길을 택했다.

"단지 가사를 입었을 뿐, 스님도 한 인간"이라는 스레만 스님은 "이것을 인정하고 나니, 수행자로서 캠퍼스 생활을 하는데 한결 편해졌다"며 "이는 성속을 벗어나지 않는 수행자로서의 삶에 진일보의 계기가 된 듯하다"고 말했다.

장 간 시 스님 역시 스레만 스님의 말에 동의했다. "대학 공부는 그룹 스터디가 중요하다"고 전제한 시 스님은 "그러나 비구니에게 그룹 스터디를 제안하는 동급생은 전무했다"며 "이곳에서의 첫 학기는 공부면 공부 여가면 여가 모두 외로움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시 스님은 하버드신학대에서 유일한 비구니 스님이다.

"캠퍼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치즈피자와 콜라"라고 말한 시 스님은 "그 음식이 동급생과의 거리를 좁혀주는 단초가 됐다"며 "음식을 먹으며 시간을 나누는 동안 나와 동급생의 거리는 좁혀질 수 있었고, 이제는 수행자로서 '적절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동급생과 우정을 나눌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셍 엔 입 스님은 "스님이 캠퍼스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주변의 '선입견'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 스님에 따르면, 미국인 대부분은 스님에 대해 '고요', '평화' 등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스님을 만날 때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해야 하나?' 등의 고민을 하게 마련인데, 바로 이 점이 유학파 스님들의 캠퍼스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이스워 스레스타 스님 역시 이 점에 공감하고, "하버드신학대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모두 자신만의 서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대학 과정을 마쳐야 한다"며 "캠퍼스에서 자신의 위치를 바로 세우고, 공감대를 형성할 때, 학문의 여정에 올곧게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Harvard Gazette〉 지는 "배가 고플 때, 그 굶주림을 없애줄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닌 음식(방편)"이라는 스레스타 스님의 말을 인용, "스님들이 이곳에서 공부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서원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만의 음식(방편)으로 캠퍼스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노력이 주변 동급생의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나아가 수행자로서 학생으로서 풍요로운 캠퍼스 생활을 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2천년 이상된 열반상 파키스탄서 발견

## 높이 15m…이중광배 형식 이례적

파키스탄에서 거대한 석가모니의 열반상이 발견돼 학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열반상은 약 15m 높이로 간다라 고고학 역사에서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광배가 두 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물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파키스탄 고대 도시유적 탁실라(Taxila) 지방 바말라(Bhamala)에서 발견됐다. 바말라는 거대한 불탑이 있는 불교유적지로 유명한 곳이다. 바말라 유적 발굴은 미국과 현지발굴팀에 의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이중광배 열반상은 머리와 팔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감실에서 발견됐다. 이와 함께 510개의 유물들도 함께 출토됐다. 테라코타 상, 진흙으로 빚어진 불두, 철기류, 구리 공예품, 쿠샨왕조 시대(BC20~AD5C)에 통용됐던 주화 등이다.

유물은 탄소연대측정 결과 2천년 이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발굴팀장 암둘 사마드 박사는 "열반상은 간다라 문명권에서 발견된 유물 중 가장 큰 규모"라며 이번 발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열반상은 동쪽을 바라보며 바말라 유적지의 북서쪽에 놓여있었다. 칸규르 석으로 조성됐으며 다리는 천으로 뒤덮여 있었다"고 전했다. 안타까운 건 석상의 왼쪽 다리와 팔 일부가 떨어져나갔고 머리는 없어진 상태다. 사마드 박사는 불법도굴꾼에 의해 손상이 가해진 듯하다고 말했다. 현재 사진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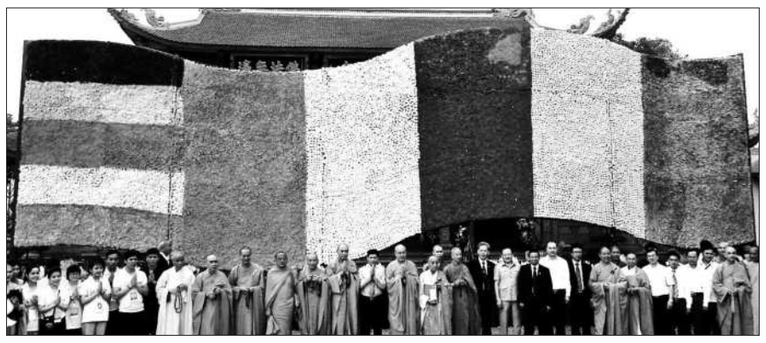
배현진 기자 linus@hyunbul.com



파키스탄에서 2천년 이상된 열반상이 발견됐다.

# 베트남, 세계 최대 불교기 선보여

## 15m×4m… 생화 25만여 송이 사용



세계기록연합(World Records Union)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가 지난 3월 23일 공개한 '생화 불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로 공인됐다.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旗)는 어떤 것일까?

세계기록연합(World Records Union)에 따르면, 베트남 불교계가 지난 3월 23일 공개한 '생화 불교기'가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로 공인됐다.

〈TUOI TRE NEWS〉 지는 "베트남 북쪽 지역인 닌빈(Ninh Binh)의 킴 손(Kim Son)에 있는 킴 리엔(Kim Lien) 사원이 생화(生花)를 이용, 가로 15m 세로 4m 규모의 세계에서 가장 큰 불교기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이번 생화 불교기는 킴 리엔 사원의 주지 틱 토 락(Thich Tho Lac) 스님의 제안으로 제작됐다. 틱 토 락 스님은 지난해 베트남에서 개최된 세계불교대회에서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생화 불교기' 제작을 제안했고, 이를 수용한 베트남 불교계가 대거 참여한 것이다.

〈TUOI TRE NEWS〉 지에 따르면, 생화 불교기 제작에는 20명의 플로리스트와 108명의 자원봉사자가 20일간 참여했고, 다섯 개 대륙의 불교계를 상징하는 각양각색의 꽃 255,800 송이가 사용됐다. 생화 불교기에 사용된 꽃송이 무게만 6톤에 이른다.

틱 토 락 스님은 "서로 다른 민족이지만, 부처님 앞에서는 모두가 일불제자라는 생각으로 제안하게 됐다"며 "생화 불교기가 베트남은 물론 세계 각국의 평화를 기원하는 단초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 중국, 헝가리에 '미라 등신불' 반환요구

## 헝가리 "네덜란드 드렌츠 박물관에 반환"



헝가리에서 미라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나온 미라 등신불이 중국에서 도난된 문화재라며 반환하라고 중국이 요구했다.

헝가리에서 미라를 주제로 한 전시회에 나온 미라 등신불이 중국에서 도난된 문화재라며 반환하라고 중국이 요구했다.

이 불상은 최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헝가리 자연사 박물관이 네덜란드 개인 소장가의 작품을 빌려와 전시한 것으로 12세기 때 입적한 수도승에 금박을 입혀 만든 등신불인 것으로 X선 촬영결과 나타났다.

중국 언론들은 3월 23일 중국 푸젠성(福建省) 유물관리국 대변인은 "부다페스트에서 전시했던 등신불이 양춘(陽春)시의 한 절에 있던 것이 틀림없다"고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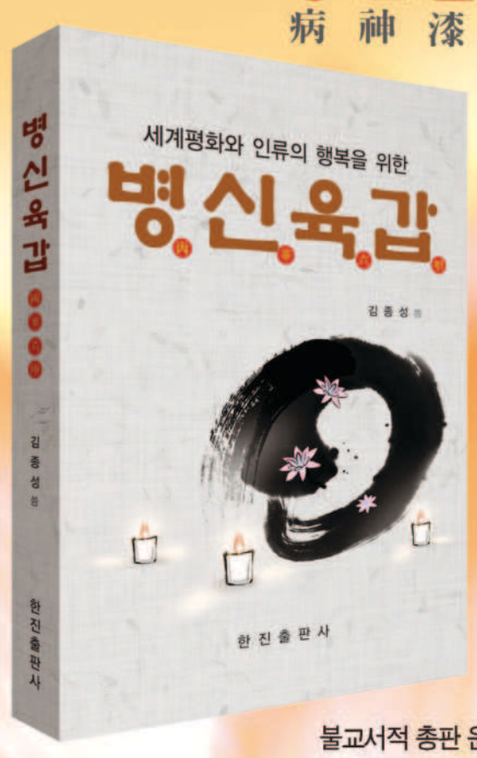
이어 "불상은 그간 많은 주민이 찾아와 소원을 빌던 명물이었으나 지난 1995년 사라져 도난된 것으로 추정한다"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다.

하지만 헝가리 자연사박물관은 전시가 끝나 이 불상을 빌려준 네덜란드 드렌츠 박물관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이나은 기자




# 병신육갑을 하면 천당 가고, 丙辛六甲
# 병신칠갑을 하면 지옥 간다. 病神漆甲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필독서!
민족종교와 문화를 지키기 위한 필독서!
국가와 민족과 가정을 위한 필독서!

나 한사람의 방관도 깨닫고
다른 이웃의 방관을 깨닫게 합시다.

**김종성** 씀 / 값 **17,000**원(전면 칼라판)
불교서적 총판 운주사 (02-3672-7181) 서점에 있음. 다량주문(010-2465-1357)

##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 소중한 분들께 마음의 등불을 선물하세요~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향초
## 쑥 양초 세트 · 밀납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지리산 토종 꿀을 생산하는 양봉원과 계약하여 독점으로 원료를 공급받고 있으므로 품질이 우수합니다. 프로폴리스 성분이 함유되어 벌레 등이 접근하지 않으며 실내 공기 정화도 뛰어 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 박태원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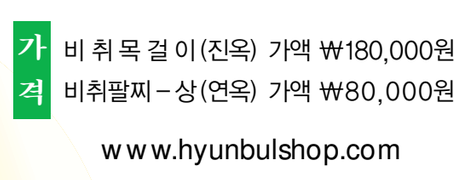
비취는 세계7대 보석중의 하나이며, 중국사람들이 비취를 하늘의 돌로 생각하여 항상 몸에 지녔으며, 유럽인들은 병마를 치유하는 신빈의 보석으로 여겨왔으며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고하여 영혼을 부활시키는 보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비취란?*

- 비취 경도는 6.5 ~ 7이다.
- 비취의 유일한 산지는 미얀마(버마) 뿐이다.
- 예로부터 신비의 돌이라 불리며, 성경과 불경에 최고의 보석으로 서술되고있다. 왕위를 상징하는 보석으로 중국의 국석이 되었다.
- 중국 명나라 이시진의〈본초강목〉, 허준선생의〈동의보감〉에도 약석으로 기록.
- 아주대 오흥국 교수팀의 실험 결과 –
  - ▶ 원적외선 방출량 94% (신진대사 원활, 혈액순환 원활, 화상치료, 저혈압 고혈압 조정, 통증완화, 뇌세포 재생)
  - ▶ 음 이 온 방출량 86% (음이온 : 세포활성화, 혈액정화, 피로회복, 자율신경안정, 면역력증가, 통증완화, 알러지 체질 개선)
  - ▶ 탈취율 90% 1시간 ▶ 항균성 85%
  - ▶ 대장균 감소율 83.6% ▶ 녹농균 감소율 86.3%
- 비취는 생리작용과 피부탄력에 영향을 주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 혈액 순환에 효과가 커서 정신을 맑게 해주면 독성을 중화하고 수면기능을 높임.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 (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가격 비 취 목 걸 이(진옥) 가액 ₩180,000원
비취팔찌 – 상(연옥) 가액 ₩80,000원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3**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www.hyunbulshop.com
## 불경 라디오 成佛
불경과 라디오를 하나로!!!

언제 어디서나 불자의 기도, 각종 염불, 찬불가를 간단한 조작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등산, 산책, 모임, 법회 언제 어디에서나 간편하게...

**※일반 가요 듣기도 가능합니다.**
(USB 포트에 가요데이터 삽입)




**사용설명**
원하는 번호를 누르면 해당 불경이 바로 나오고, 불경 SD카드를 빼시면 라디오로 전환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사용설명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제품구성**
가로 13cm × 세로 6cm × 두께 2cm +
4GB 불경 SD카드 + 이어폰 + 1200AM 베터리 +
USB 충전케이블 + 충전아답터 + 불경목록 + 사용설명서

● 가격 : **6만원** (발송비 포함) / 청색, 홍색 2컬러

*** 스님들께서 불자들에게 드리는 선물로도 더욱 좋습니다.**
(100개이상 구입 시 사찰명 별도 표기해 드립니다.)




SD카드 삽입 방향

**구입처 : 현대불교현불샵 (02)2004-8214**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 **불경목록** (음원 저작권 협약)

□ **정천의 삶을 위한 기도**
1. 불자의 기도
2. 아침의 기도
3. 가내 평안을 위한 기도
4. 병마 쾌유를 위한 기도
5. 명상음악
6. 행복한 가정을 위한 기도
7. 자녀을 위한 부모의 기도
8. 생일의 기도
9. 장엄 염불
10. 저녁의 기도
11. 마음이 머무는 곳에
12. 빈손으로 왔다가
13. 사람을 쓸때는
14. 여름 벌레는 겨울이 있음을
15. 가난은 죄가 아니요
16. 마음이 머무는 곳에
17.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18. 향수를 바르면
19. 남의 과실을 꾸짖는 마음으로
20. 일시에 분을 참으면

□ **항공스님의 염불시리즈**
21. 광명진언 1
22. 광명진언 2
23. 개경게
24. 지경공덕분
25. 예불문
26. 아산 혜원선사 발원문
27. 천수경
28. 반야심경
29. 화엄경 약찬게
30. 법성게
31. 참선곡
32. 우리말 반야심경
33. 관음정근

□ **찬 불 가**
34. 삼귀의
35. 찬양합니다
36. 예불가
37. 청법가
38. 불교의 노래
39. 새 법우 환영가
40. 부처님께 기원합니다
41. 부처님께 바칩니다
42. 사홍서원
43. 산회가
44. 관세음의 노래
45. 보현행원
46. 감로법을 전하자
47. 초파일의 노래
48. 마하반야의 노래
49. 성도제의 노래
50. 우리도 부처님 같이
51. 홀로 피는 연꽃
52. 관세음보살 1악장
53. 관세음보살 2악장
54. 개경게
55. 이상정멸분

현불샵 특가판매
## 편백나무 원목 경상(經床)
법회나, 경전강의, 개인기도 등
법당 및 가정에서 불자님들의 수행과 함께 합니다.

**경상** (經床)
불교경전을 얹어놓고 읽는데 사용하는 책상. 법당과 가정에서 기도와 공부하는데 꼭 필요한 책상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혀 자신은 물론 가족 모두가 불자가 되는 처음 시작하는 책상.



● 재 질 : **편백나무**
● 크 기 : W60㎝ × D40㎝ × H28㎝
● 특 징 : 고급 접이식 경첩을 고정하여 사용이 편리합니다.
● 가 격 : 개당 6만원
● 주 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4**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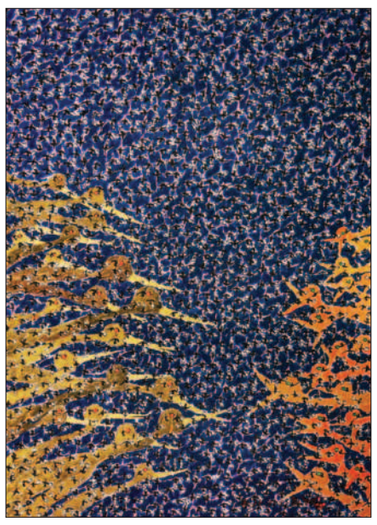

▶ 편백나무 경상


▶ 접은 상태


▶ 접이식 고급 경첩

# '화엄법계' 일체생명 덩어리로 표현

## 허허당 스님 개인전 5월 6일~12일 가나아트센터서


'바람의 기억' 시리즈 중 하나인 '팽목항'

"그리고 또 그렸습니다. 일체 생명의 자유와 아름다움, 깨달음을 염원하며 30년 세월,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어디든 갔습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등 생명이 있는 곳에 새를 날렸습니다. 수천수만 마리. 그리고 자유로운 새들이 날갯짓 속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 우주는 하나의 큰 생명의 덩어리임을 외쳤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존재 그 자체로 아마 충분히 아름답고 놀랍고도 신비로운 예술입니다."

세상은 일체 생명의 자유와 아름다움 그리고 깨달음을 노래하는 무대라 말하는 허허당 스님의 '바람의 기억' 전이 5월 6일~12일 인사동 가나아트센터 1층에서 열린다. 스님은 '새벽' '바람 불지 않는 곳에 휘파람 불며' '달구경하는 사람' '팽목항' 등 40여 작품을 전시한다.

'화엄법계도 백만동자 새벽' 은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화엄법계를 일체 생명의 덩어리로 표현해낸다. "초기 작품들은 수천수만 동자승들을 배경화면에 가득 채워 그 속에 탑을 세우고, 나무를 심고 새를 날리고 꽃을 피우고, 숲을 이루어냈죠. 이

**새 날개짓·동자승의 연속적 이미지**
**화엄법계 생명의 덩어리로 표현해**
**4월, 긍정적 메시지 담은 신간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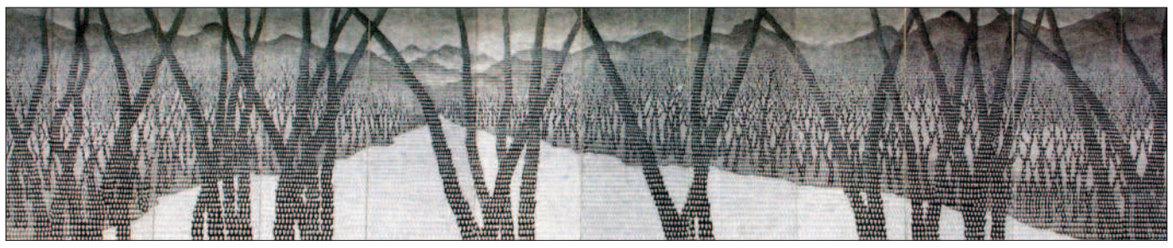
는 생명 속에 생명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품 역시 작은 동자승들이 모여 나무를 이루고 작품 전체를 완성하죠. 이는 만물의 생명의 흐름을 보여주며, 시작도 끝도 없는 생명의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스님 작품 대부분은 무수한 사물의 반복을 통해 새로운 화면을 구성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진리, 종교 등의 틀에서 벗어나 생명 그 자체에 울림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생명 근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있죠. 작은 새가 모여 줄기세포가 되고 이 줄기세포가 모여 우주가 되고 우주가 큰 생명 덩어리가 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스님은 그림을 통해 혼자만의 세계는 없으며 깨달음으로 가는 이치를 보여주고자 했다. "결국 제 그림의 전부는 부처님 말씀을 보여주고자 하는 데에 있어요. '나' 라는 생명이 또다른 생명과 만나 반응하면서 더 좋은 세계로 나아가고자 하는 몸짓이 그림 속에 담겼죠."

스님은 남미 아프리카 북유럽 인도네시아 등 곳곳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속에서도 부처님을 만난다고. "지난해 아프리카와 북여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여행지의 풍광을 보면서 인간의 삶을 보고 듣고 깨닫게 되죠. 그리고 생각하죠. 부처님이 여기 계셨다면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저는 항상 부처님과 도반이 되어 걷는 듯한 느낌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경험한 모든 것을 회향하는 매개체가 그림이라고 말할 수 있죠."

스님은 '내 마음 속에 있는 자유의 집' 을 상징하는 포항 휴유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끊임없이 성찰하며 열심히 그리면 결국 누군가가 보아주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고 말하는 스님은 4월 경 책 출간도 앞두고 있다. 삶이 힘들어도 내면에 휘파람을 불며 긍정적으로 살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02)736-1020 **정혜숙 기자**


화엄법계도 백만동자. '새벽' 허허당 스님은 동자승이 나무를 이루는 과정을 통해 생명 속에 생명을 그림으로 표현한다.

# 구도의 과정 춤으로… 깨달음 그려내

##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6월 9일까지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의 한 장면

전통 춤공연을 도심 한복판 소극장에서 관람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사)한국춤예술센터(이사장 이철진)가 '2015이철진의 승무 이야기' 를 연다. 올해로 9회를 맞는 '이철진의 승무이야기' 는 6월 9일까지 매주 화요일 8시 대학로 성균소극장에서 진행된다. 매해 승무를 소극장에서 정기공연하고 있는 승무가 이철진 씨는 올해도 40분 동안 숨막히는 승무의 감동을 전해줄 예정이다.

이철진 씨는 "승무는 한국 전통춤의 기본이면서 정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승무 공연을 통해 한국 전통춤의 정점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춤은 곧 고행이자 구도자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이철진 씨. 그는 고행과 수행의 과정 나아가 깨달음을 이룬 구도의 과정을 이번 승무 공연 속에 그대로 담아낼 것이다. 또한 살풀이춤, 태평무, 맨손살풀이, 소고춤, 진주교방굿거리, 교방검무 등의 전통춤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차명희, 정연희, 송영숙, 하애정, 쥬디정, 박숙희, 김유진 등이 함께한다. 이와함께 (사)한국춤예술센터는 6월 14일까지 매주 금·토·일 '2015한영숙류이철진춤' 도 선보인다. (02)745-5035 **정혜숙 기자**

# 캔버스에 나투어진 마음속 부처님

## 불화가 김명희 개인전


'자아' 은 불두와 그림자가 마주보고 있는 모습으로 표현,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과정을 그려냈다.

불화가 김명희 개인전이 4월 1일~7일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미담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자아, 관세음보살도, 귀녀도 등 27점의 불화를 선보인다.

'자아' 는 마음속에 있는 부처님을 표현했다. "부처님 안에 또다른 부처님 그리고 다시 그 안에 관세음보살 이미지를 투영해 부처님이 제 마음 안에 있음을 표현했죠." '자아' 은 불두와 그림자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듯한 모습이 흥미롭다. "왼쪽이 현재의 나라면 오른쪽은 내 안의 또다른 나라고 말할 수 있죠. 수행을 통해 스스로를 바라보는 동시에 저의 내면을 바라보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도' 역시 바다의 소용돌이치는 모습을 중생의 마음에 비유했다. "불화 작업 때문에 제주도 관통사에 다녀올 일이 있었어요. 그때 돌아오는 길에 파도를 보니 소용돌이 치는 파도가 중생의 마음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처님이 제 마음속에 있지만 한번 소용돌이 치면 이 마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관세음보살은 실제의 관세음보살일 수 있지만 중생인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재동자를 바라보며 들끓는 마음을 가라앉힌다는 의미가 들어있죠." 작가는 이 밖에도 중국의 벽화에서 그 형식을 빌려온 '귀녀도' 와 연꽃으로 표현한 소품 등도 공개할 예정이다.

남편의 권유로 94년부터 불화를 그리기 시작한 김 작가는 7년째 조계사 청년부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불화강사이기도 하

**4월 1일~7일 안양아트센터 갤러리**
**자아 관세음보살도 등 27점 선봬**
**"재능보시로 나누는 삶 발원"**

다. "제가 그림을 그릴 거라 생각해본 적은 없어요. 당시, 남편이 몸이 안 좋아 직장을 잠시 휴직하고 조계사에서 불교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불화를 그려보라고 추천해준 게 인연이 되었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남편의 외조 덕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재는 조계사 청년부 불화반을 지도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은 '불화의 정신' 이라고 생각해요. 내면에 깃든 불심이 중심이 되어야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는 장애인 복지 시설, 보육원 등에서 10여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앞으로 그의 꿈은 불화를 통해 세상에 좀더 잘 쓰일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다.

"둘째를 낳고 참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어느날 나혼자 이렇게 행복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주장자로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후부터 이웃과 함께하며 살겠다는 발원을 하게 됐죠. 그런 맥락에서 전시회에서 얻은 수익금도 다 기부를 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교도소 등에서 불화를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찾고자 합니다." **정혜숙 기자**

# 무용과 음악으로 만나는 '5천년의 중국'

## 뉴욕 션윈예술단 4월 내한


5천년 중국 문화를 무용으로 펼쳐내는 션윈예술단이 4월 내한한다.

미국 션윈예술단(Shen Yun Performing Arts)이 2015년 시즌 월드투어 일정으로 4월 한국을 찾는다. 경기도 창원 대구 등을 순회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중국의 과거와 현재를 무용으로 표현한다.

션윈예술단은 문화대혁명으로 소실된 중국의 5천년 전통문화를 부흥시키겠다는 취지로 지난 2006년 뉴욕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다.

션윈 공연의 프로그램은 문명이 싹트던 5천 년 전 고대 설화에서, 역사에 등장했던 여러 왕조와 오늘날 현대 중국의 모습까지 다양하고 풍성한 이야기를 다룬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중국의 전통적인 세계관을 표현하면서도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다채로운 무용으로 이끌어간다. 또 최첨단 기술로 탄생시킨 생동감 넘치는 무대배경과 수작업으로 제작한 수백 벌의 화려한 무대의상도 놓칠 수 없는 관람 포인트이다.

션윈예술단은 설립 9년 만에 단원만 400여명, 동일한 구성과 규모의 4개 공연단을 보유하고 있으며, 매년 전 세계 5개 대륙 100여 개 도시를 순회하며 400회 이상의 공연을 펼치고 있다.

션윈 한국 공연은 4월 24~26일 경기도 군포문화예술회관, 4월 29~30일 창원 성산아트홀, 5월 3~4일 대구 수성아트피아에서 각각 열릴 예정이다.

인터넷 예매는 션윈닷컴(ShenYun.com)과 웹티켓팅(webticketing.co.kr), 그리고 인터파크, 예스24에서 가능하다. 1544-88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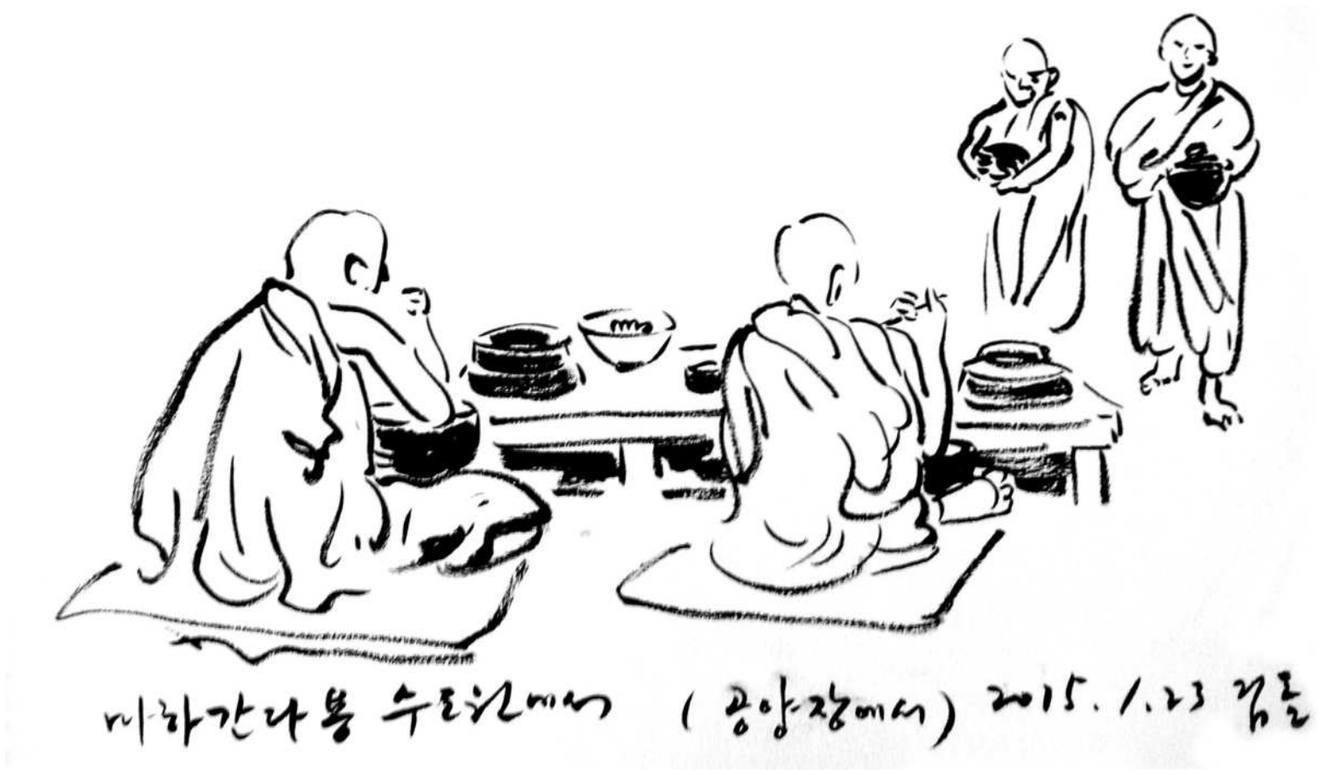
**정혜숙 기자** bwjhs@hyunbul.com



황금부처님의 나라를 가다 ②

그림 이호신·글 이종성 작가

# ‘때 아닌 때’ 먹지 않는 깨달음 보았네




**마누하 사원 거대 불상 인상적**
**쉐산도파고다 부처님 머리카락 봉안**
**마하간디용 수도원 오후 불식 수행**
**우빼인 다리 목가적 풍경미 빼어나**

### 틸로민로 사원… 왕 상징 흰우산 ‘눈길’

‘우산이 선택한 왕’ 이라는 의미를 가진 틸로민로 사원으로 이동한다. 티(Hit)는 일산(日傘)을 뜻하고, 로(Lo)는 선택의 의미라고 한다. 사원의 불상 옆에 흰 우산이 세워져 있다. 흰 우산은 왕의 상징이었고, 왕위 계승자를 정하는 방법으로 흰 우산을 공중에 날렸다가 땅에 떨어져 우산 머리가 향한 곳에 있는 자가 왕위를 이어 받았다고 한다. 불상의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보았던 형태와는 사뭇 다르다. 나와, 스페, 수련 등 부처님께 올리는 꽃을 사원의 입구에서 1달러에 팔고 있다. 수련 한 묶음을 사서 꽃 공양을 한다. 마음이 향기로 전해지기를.

배가 고프다. 예약된 식당에 들러 인형극을 보며 점심을 먹는다. 식당의 정원에 핀 붉은 꽃 부겐베리아가 낯선 이방인을 맞아준다. 잠시 두 번째 날의 숙소인 미얀마 트레저 리조트 호텔로 이동한다. 근위병이 세워진 왕궁이나 대사원의 모습을 연상케 한다. 여장을 풀고 잠깐 휴식을 취한다. 열대의 야자수 정원이 아름답다. 다시 대절된 버스를 타고 천년의 역사를 이어온 전통 칠기 수공예 공방으로 간다. 고도의 숙련된 솜씨를 가진 장인에서부터 그렇지 못한 사람까지 여러 명이 한데 모여 순전히 손작업으로 다양한 그릇들을 만들고 있다. 제작되는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커다란 항아리 하나를 표본으로 세워놓았다.

마누하 사원(Manuha phaya)으로 간다. 옆으로 누운 거대한 불상이 인상적이다. 이어 북쪽 히말라야에서 발원하여 흘러온 강물이 흐르는 드넓은 이라와디 강변을 전망 할 수 있는 부파야 파고다로 간다.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서있다. 사원의 뜰에 세워진 파고다는 박 모양을 닮은 원통형 제디다. 부(Bu)는 미얀마 어로 ‘박’ 이라는 뜻이다. 두 겹의 연꽃잎 받침대 위로 첨탑이 치솟아 있고, 꼭대기에는 티가 있다. 1975년 지진 때 강에 떨어져 완전히 파괴되었던 것을 다시 복원하였다는 설명이다. 강가에는 배들이 정박해있고, 스님은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고 있다.

### 불심 대평원 보고 강가서 별을 보다

늦은 오후 쉐산도 파고다로 향한다. 부처님의 머리카락 한 올이 봉안되었다는 사원이다. 규모가 장대하다. 사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무척 가파르다. 여인들은 다소 힘든 길이다. 손을 잡으며 올라온 보람이 무한한 감동으로 번진다. 수많은 사원들이 대평원에 끝없이 펼쳐져 있다. 장엄하고 광활하고 웅대하다. 이 사원의 정상부에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미얀마의 바간이 진정 사원의 도시임을 알지 못했을 것이다. 진면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아무도 내려가자는 말을 좀처럼 하지 않는다. 해가 서서히 지평선으로 내려가고 있다.

말이 끄는 수레를 타고 저녁을 먹기로 예약된 이라와디 강의 선셋 레스토랑으로 간다. 수레는 흙길을 지나 도로로 나와 속도를 낸다. 말의 크기가 다 다르다. 나이가 다섯 살에서 열일곱 살까지 다양하다. 식당 입구에 아프리카 평원에 사자가 서있는 커다란 나무를 연상케 하는 나무가 있다. ‘마지디나무’ 라고 알려준다. 강가 테이블에 앉는다. 유도화를 닮은 니즈바꽃이 석양의 햇살을 받아 더욱 붉다. 이라와디 강물은 금빛으로 물들고 저 아래 강변의 부파야 파고다는 순금의 빛으로 찬란히 빛나는 가운데 우리의 가슴도 그렇게 곱게 물들어간다. 참으로 오랜만에 맛보는 평화로움이며 고요함이다. 어느 샌가 초승달이 나오고, 그 아래 개밥바라기가 눈물처럼 반짝인다. 해가 진 다음의 시간은 강물의 수심보다 깊다. 강물과 함께 흐르던 마음은 테이블의 모서리를 돌고 돌며 서로의 가슴에서 머물며 흐르기를 반복한다.

숙소로 돌아와 샤워로 몸을 푼다. 여행의 즐거움은 내게 주어진 시간이 일상의 굴레를 벗어난 넉넉한 시간의 여유와 자유로움에 있다. 호텔의 야외무대에서 연주되고 있는 실로폰 소리는 적당하고, 조명은 은은하게 우리가 앉아 있는 테이블을 넌지시 비춘다. 맥주를 한 잔씩 곁들여 서로 담소를 나누며 즉석에서 시낭독으로 분위기를 이어간다. 야자나무숲 위로 우리들의 이야기는 반짝거리며 그렇게 두 번째 날의 시간이 밤하늘의 무수한 별들과 함께 깊어만 가고 있다.

### 처연토록 아름다운 황금빛 사원

알람이 울린다. 길에 선 자는 또 길을 나서야 한다. 공항으로 가기 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디싸와라사원에 들른다. 어둡고 폭이 좁은 가파른 사원의 내부 계단을 오른다. 광활하게 펼쳐진 사원의 나라 밝아오는 아침이 경이롭다. 저 멀리 북한산을 닮은 산 위로 엄숙한 해돋이가 일어난다. 황금의 나라답게 구름 사이로 비쳐드는 햇살은 순금의 빛이다. 사원의 사이사이로 서서히 떠오르고 있는 수많은 열기구들, 영화 속의 한 장면이다. 비행기를 타러 가야하는데, 아무도 가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 다시 계단을 조심스럽게 내려온다. 가슴 속에 감실 같은 공간을 두어 작은 불상을 안치한 불상의 이마에 햇빛이 비친다. 들어갈 때 보지 못한 미소가 흰 매화꽃이다. 다시 한 번 뒤돌아본 황금빛 사원이 처연토록 아름답다.

국내선 비행기를 타고 만달레이로 간다. 공파웅 왕조의 수도였던 만달레이는 부처님의 예언에 의해 세워진 도시라 한다. 현재는 미얀마 제2의 도시로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다. 이라와디강 삼각주와 무수한 사원의 평원 위로 비행기가 날아오른다.

공항에 도착하여 삼천 명의 학승들이 수행하는 마하간다용 수도원으로 향한다. 입구에 학교가 있다. 커다란 보리수나무가 인상적이다. 학교 건물은 단출하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수업 중에 자꾸 우리들을 바라본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것 같아 곧바로 수도원으로 이동한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동자승과 학승들이 길게 줄을 선 모습 속에서 경건함을 느낀다. 점심공양 후에는 다음날까지 아무 것도 먹지 않는다고 한다. 오후불식(午後不食)을 통해 청빈(淸貧)과 각성(覺醒)을 실천하는 스님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한다. ‘비라삼매경’ 에 의하면 부처님은 ‘때 아닌 때에 먹지 않으면’ 다섯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였다. 즉 적게 먹음으로써 탐욕을 제거할 수 있고, 잠이 줄어들고, 정신이 맑아 상쾌해지며, 복과 수명이 늘어나 깨달음을 얻는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다. 실제적으로 당뇨를 비롯해 비만, 동맥경화, 신경성 질환 등 각종 성인병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탁발문화에서 비롯된 하나의 계율이 건강한 세상을 만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 목가적 풍경 속에 든 평정 호수 걷다

세계 최장의 나무다리 우빼인 다리로 이동한다. 미얀마에서는 사람이 공덕을 쌓아 내세에 더 좋은 세상 더 훌륭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방법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 째는 불탑 불사요, 두 번째가 스님이나 부처에 대한 공양이고, 세 번째가 아들을 낳아 부처님께 귀의시키는 것이다. 우빼인다리로 가는 길가에 모내기를 하는 모습이 보인다. 우리나라 칠십 년대의 풍경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평온해진다. 미얀마의 쌀은 알랑미가 대부분이다. 인도차이나 반도의 안남 지방에서 생산되는 쌀을 뜻하는 안남미(安南米)에서 유래되었다. 쌀 모양은 길쭉하고 끈기가 없으며 푸석푸석하다. 6.25전쟁이 끝나고 외국의 구호물자로 들여온 그 쌀이 바로 안남미였다. 미얀마(당시 버마)도 우리에게 쌀을 원조해준 나라였다.

우빼인(U Bein)다리는 마하간다용 사원과 타웅터만 호수 건너편 만달레이 아마라푸라 사원을 오가는 탁발승을 위해 만들어진 다리다. 1849년 공사를 시작하여 이듬해 완성했다고 한다. 길이는 1.2km이고, 물속에서도 썩지 않는 미얀마의 티크나무를 사용했다. 이 다리를 처음 만든 우빼인 노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목가적 풍경이 아름답다. 어쩌면 이 다리가 미얀마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상징이 되리라. 순박하고 검소하다. 고요하고 깊다. 슬픔이 묻어나는 처연한 아름다움이다. 이 다리가 그렇다. 지금까지 만난 미얀마인이 그렇게 보인다. 호수는 잔잔하다. 어느 누구의 마음에도 싸움이 없는 미얀마의 사람들, 호수 같은 그런 마음의 평정에 이르렀다. 호숫가에 고목이 하나 눈에 띈다. 모든 것을 초탈하고 생사 너머의 세계에 있는 모습이 천년만년 마음의 화평을 이룬 노스님을 닮았다.

다리 위에서 그림을 그려서 팔고 있는 화가와 나무열매의 씨로 만든 멜로시라는 팔찌와 목걸이 등을 팔고 있는 풍경을 뒤로 하고 다음의 장소로 이동한다. 한국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다. 각종 야채와 모든 음식이 우리나라 식단 그대로다. 뭔가 조금 부족하게 느꼈던 입맛이 여행 중의 피로를 말끔히 가시게 해준 인상적인 식당이다.



이라와디 강이 보이는 선셋레스토랑. 일몰이 아름답다.



장인들과 함께하는 전통칠기 수예공방 작업 모습.



세계 최장의 나무다리 우빼인 다리.


## 수정기공 및 기공재활사 자격과정 특강

(사람정비 메뉴얼 수정기공)이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 (수정기공 재활사) 민간자격(2014-5765)을 등록하고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아직도 약물이나 침 뜸 지압, 마사지 등으로 질병을 치료를 고집하는가?**

수정기공은 1-3차원에 강압에 준하는 단계가 아닌 거의 힘을 주지 않는 4단계를 지나 과거 설화나 천기누설같이 사랑의 극치인 5단계 재활 단계로 영육간 불편했던 모든 장애인에게 건강과 희망과 행복을 재활시키는 꿈의 결정판입니다.

◆강 의 일 정 : 매월 첫주 일요일 시작, 1개월 4주 단기코스 (일정변경 가능)
◆강 의 내 용 : 기공을 이용한 사람정비 매뉴얼
◆접 수 인 원 : 선착순 8명 이내.
◆수강 대상자 : 의료인, 물리치료사, 건강과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모든 남녀.

1 강 사 : 김문기 원장 (박사 / 한국 신지식인)
2 교 재 : 환상의 통증치유 STT의 4단계와 5단계 기공법 전수
3 강의 장소 : 수원 성균관대학 전철역 앞
4 접수 및 상담 : 010-3463-7806
5 수강료 : 수정기공 수료 및 자격증 취득과정 전화 상담
6 참고 홈페이지 : soojung99.pe.kr

## 행복이 가득한 효소

세계 최초 꼭꼭 씹어 먹는 효소 「15g의 기적」을 선물 합니다.

병마의 후유증으로 하루하루가 힘드십니까?
몸이 차고 늘 피곤하여 의욕이 없으십니까?
손발이 차고 속이 답답하여 소화가 힘드십니까?

*몸속의 독소를 해독 배설시키고, 세포를 재생시켜 보십시오. 무기력하고 힘든 하루하루가 살맛이 납니다.*

**이런분께 권합니다**
- 매일 제를 집전하시는 스님
- 100일 기도 1000일 기도수행을 하시는 스님 및 제가불자
- 피로와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
- 성장기 자녀의 건강이 걱정이신 학부모님
- 수험생이나 입시 준비생



■ 6년근 홍삼과 벌꿀로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36만원
■ 6년근 홍삼과 러시아산 녹용을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100만원
■ 6년근 홍삼과 유기농 커피를 발효한 효소환 15g×30환. 20만원
■ 6년근 홍삼을 진하게 농축 발효한 당치 효소파우더 10g×90호. 60만원

※ 식품법 제11조에 의하여 탁월한 효능과 임상을 전하지 못합니다.

www.행복이가득한효소.com
경북 경산시 옥곡동 80번지 (장산로 1길 5)
1577-0891

신간! 실증설 5개국어판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70번째 저서 출간!

대한불교조계종 해인사 용성선사로 이어진 강맥을 한 몸에 받은 수덕사 만공·전강선사로 이어진 법맥과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불법의 참뜻을 보이기 위해 홀연히 펜을 들어 일시에 써내려간 실증설! 실증한 이가 아니고는 설파할 수 없는 도리로 가득한 이 책이 드디어 영어, 불어, 스페인어, 중국어를 더하여 5개국어로 편찬되었다.

禪의 일상, 禪의 누림!

## 방거사어록




말 밖의 말을 어쩌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일상의 말로 잘 할 수 있었을까. 감탄사가 절로 나온다. 여기 방 거사의 말은 본연의 바탕에서 꽃피우는 일상의 함이라 하리라.

– 대원 선사님 서문 중에서

www.zenparadise.com 참조 ☎ 031-534-3373

## 지혜의 보고 佛書

###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3/18 ~ 3/24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 순위 | 도서명 | 저자 | 출판사 |
|---|---|---|---|
| 1 | 지금 여기 깨어있기 | 법륜스님 | 정토 |
| 2 | 꽃잎이 떨어져도 꽃은 지지 않네 | 법정스님, 최인호 | 여백 |
| 3 | 검색의 시대, 사유의 회복 | 법인스님 | 불광출판사 |
| 4 | 인공지능 붓다를 꿈꾸다 | 지승호 | 운주사 |
| 5 | 아미타경을 읽는 즐거움 | 동봉스님 | 민족사 |
| 6 | 숫따니빠따 (빠알리원전번역) | 일아스님 | 불광출판사 |
| 7 |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 | 월호스님, 배종훈 | 민족사 |
| 8 |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 이제열 | 모과나무 |
| 9 | 닦는 마음 밝은 마음 | 김재웅 | 용화 |
| 10 | 젠 만다라 컬러링북 | Dessain et Tolra | 담앤북스 |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 법정 스님의 죽비 법문이 그립다



**달 같은 해**

**변택주 지음**

**큰나무 펴냄**

**1만4천원**

"살 때는 삶에 철저해 그 모두를 살아야 하고, 죽을 때는 죽음에 철저해 그 모두가 죽어야 한다. 꽃은 필 때뿐 아니라 질 때도 아름다워야 한다."

무소유를 강조하며 큰 울림을 주었던 법정 스님이 입적한지도 5년이 흘렀다. 세월이 유수같다는 말이 실감이 난다. 올해도 어김없이 5주기 추모법회가 3월 16일 서울 성북구 길상사 설법전에서 열렸다.

스님의 사제이자 송광사 원로인 법흥 스님은 추모법문 "법정 사형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분이었다"며 "특히 수행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잘라냈다"고 엄격한 수행정신을 회고했다. 상좌인 길상사 주지 덕운 스님도 "은사 스님의 죽비 같은 말씀이 더욱 그리워지는 시절"이라고 스승을 그리워했다. 법정 스님에 대한 그리움에 사무친 회고는 비단 사형사제만이 아니었다.

1998년 법정스님과 첫 인연을 맺은 뒤 가르침을 받고 법정 스님의 뜻을 받드는 시민모임 맑고향기롭게 이사를 지낸 변택주 씨도 스님을 흠모하는 이중 하나다. 특히 지근거리에서 스님을 모셨던 변씨는 스님에 대한 일화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 변씨는 이번 법정 스님 5주기를 맞아 스님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책을 펴냈다.

### 저자, 1998년 스님과 첫 인연
### 크고작은 인연들과의 일화 소개

이번 책은 전작인 〈법정 스님 숨결〉과 〈법정, 나를 물들이다〉서 스님을 기릴 수 있는 일화들을 가려 뽑은 내용들이다. 이 일화들은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들이어서 생생하게 전해진다.

여기서 소개된 일화들은 마치 옆에서 법정 스님이 직접 육성으로 전해주시는 경책처럼 들린다.

"법정스님이 말하는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니야. 탐하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멀리하라는 얘기야. 본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없으니 적은 것에 기꺼워해 쓸 만큼만 가지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아니면 더는 욕심을 내서는 안 된다는 깊은 말씀이야. 그래서 늘 입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배에 밥이 적으면 도업을 이룬다고 하셨어."

저자는 어느 해 남도 나들이에서 법정 스님이 뿌옇고 말간 해를 보고는 "달 같은 해"라고 말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법정 스님이 자신에게는 밝은 빛이지만 은근하기에 뜨겁지 않아 누구나 다가설 수 있는 '달 같은 해'라고 추억했다. 이번 책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다.

주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가르침 만큼은 아직도 생생하다. "녹록치 않은 이 세상 살아내려면 주어진 순간순간 있는 힘껏 목숨 걸고 옹글게 살다가, 목숨 내놓고 세상 떠날 땐 티끌만한 미련도 두지 말고 떠나라는 서슬 시퍼런 말씀. 오늘도 물러섬이 없고 뉘우침 없는 오롯한 삶을 살아내려고 다지며 신발 끈을 조이고 있지. 스승 말씀 가운데 가장 뼈저리게 와 닿는 말씀이야. 스승은 삶이란 고통을 견뎌내는 일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어.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들이 있지 않느냐, 겉으로는 평온하게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내면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상들이 많다, 힘듦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일이 사는 본질이라고."

법정 스님은 가까운 젊은이들에게 늘 글쓰기의 중요성도 강조하셨다고 저자는 회고한다. "법정 스님은 쉬운 말로 글을 쓰지만, 그런 글이 절대 평범한 사고만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글이 펄펄 살아 숨 쉬는 까닭은 복잡한 생각을 다 거치고, 많은 고민과 깨우침 끝에 나온 결정체이기 때문이거든요. '그건 아니지.' 하는 말씀은 치열한 검증을 거쳐서 나온 말씀이에요. 강하게 말씀하시든 부드럽게 말씀하시든, 시냇물이 흐르듯이 사회에 건강한 생각이 계속 흐르게끔 해주셨다고 생각해요."

법정 스님이 주신 장학금으로 공부한 문현철 초당대 교수는 이렇게 스님을 회고했다고 한다. "법정 스님은 당신이 대학 때 쓴 일기가 대학노트로 몇 권 있다고 하시면서 일기를 왜 밤에만 쓰려고 하느냐. 쓰고 싶을때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아침에 씁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등록금보다도 삶이 정돈된 일이 더 큽니다. 모든 문제가 길고 짧은 시간 체에 걸러졌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긍정과 시작 그리고 희망입니다."라고.

이처럼 이 책에는 크고 작은 인연들이 법정 스님에게 받은 가르침들이 소개돼 있다. 법정 스님의 유언에 따라 스님이 펴낸 책이 절판된 지금, 스님의 가르침을 간접적으로 나마 전해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이다. 이 책이 주는 또다른 즐거움이다.

김주일 기자

#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화두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

**이제열 지음**

**모과나무 펴냄**

**1만 3천원**

잊을만하면 하나씩 터져 불자들의 마음을 후벼파는 것이 있다. 바로 불교를 폄하하는 훼불사건이다. 국보 제 32호이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이 있는 합천 해인사서 40대 여성이 2시간 넘게 경내를 돌아다니며 낙서를 했는가하면, 충북 진천 용화사 석조여래입상이 쇠망치에 의해 훼손되기도 했다. 훼불행위는 꼭 성보를 망가뜨리는 일에만 그치지 않는다. 최근 봉은사역 지정을 앞두고 친일사찰이란 어불성설인 주장을 펴기도 한다.

이렇듯 끊임없이 이어지는 훼불사건은 '하나님만이 유일신'이라는 기독교의 획일적 교리관과 무관치 않다.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그들의 믿음을 대한민국 사회에 강요한다.

이에 반해 '자비'와 '관용'을 부각시키는 불교계는 별로 적극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번 책은 불교적 관점서 기독교를 해부한 것이란 점에서 눈길을 끈다. 저자는 해박한 불교지식과 명쾌한 논리로 정평있는 유마선원 이제열 원장이다. 이 책은 기독교 교리를 유일신론, 창조론, 섭리론, 원죄론 등 38가지로 세분화한 뒤 이를 철저히 불교적 관점서 논박한다. 이 시도는 2600여 년 전, 부처님이 이 땅에 펼친 정법(正法)을 기준으로 기독교 사상을 평가한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예를 들어 불교는 기독교의 '여호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저자는 "불교에서는 의식과 느낌과 감정에 빠져있으면 번뇌에 물든 것이고, 번뇌에 물든 자는 중생에 속한다고 말한다. 여호와는 대상을 두고 사랑했다가 곧 미워하는 등 희비를 일으키기 때문에 완전한 자, 깨달은 자가 아니라 번뇌에 물든 중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다.

기독교가 '우상'이라고 주장하는 석가모니가 진리의 관점에서 '완성된 자'이고, 되레 여호와가 '번뇌에 물든 중생'임이 양 종교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때문에 처음에는 꽤나 낯설다가도 빈틈없는 논리전개에 어느 순간 수긍하게 된다. 더욱이 불자들이라면 기독교의 폭력에 가까운 언행에 대응할 논리를 갖추는 것은 물론이고 불교에 대한 자긍심까지 얻을 수 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이웃종교에 대해 공격성을 띤 기독교인들에게 불교가 던지는 화두이기도 하다. 저자의 기획 취지를 이해한다면 이 책은 기독교인들에게 종교를 바라보는 새 안목과 믿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이해를 선사한다. 독선적 자세를 고수하며 그 어떤 종교와도 비교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이 불교라는 거울을 통해 스스로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는 계기가 된다.

물론 기독교 교리와 그것을 구성하는 요소들을 불교적 관점서 조목조목 논박하는 이 책이 기독교쪽 입장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다. 하지만 저자의 말처럼 진정한 대화는 상대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이 책은 결국 기독교인들의 불교에 대한 이해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 기독교 교리 38가지로 세분화 시켜
### 철저히 불교적 관점서 논박 특징
### 명확한 차이 안 뒤 상호 이해가 목적
### 기독교인들 불교이해에 대한 출발점

적지 않은 이들이 '불교와 기독교는 동일하다'고 이야기한다. 가는 길만 다를 뿐 결국 종착역에선 만난다고 설명한다. 그러기에 의미 없는 논쟁은 멈추자고 말한다. 언뜻 평화를 지향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 논리에, 마찬가지로 많은 이들이 동조한다.

그러나 이는 양 종교가 탄생한 배경,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지향하는 목적을 무시한 섣부른 주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리가 서로 다르지 않다면 불교는 탄생하지 않았다. 불교는 철옹성 같은 바라문교의 권위와 카스트제도에 맞서 인간이 평등한 존재임을 이론적으로 입증했다. 여성의 인권이 유린되는 시대에 여성 비구니 교단을 세운 것도 이러한 불교의 독창적인 사상에서 비롯됐다.

불교는 인간관계에 있어 무한한 자비를 강조했지만 진리에 있어서는 털끝만큼도 물러서지 않았다. 불교는 인간관계의 자비 실천을 강조했지만 법에 있어서는 한순간도 치열함을 포기하지 않았다. 불교는 해탈을, 기독교는 구원을 목표로 한다. 해탈은 번뇌가 사라진 상태이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것이다. 해탈은 자력으로 얻는 것이지만 구원은 타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다. 한 쪽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 깨달음을 완성하는 데 반해 다른 한 쪽은 하나님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한다.

이처럼 양 종교가 제시하는 궁극적인 목표와 그에 이르는 길은 엄연히 다르다. '불교, 기독교를 논하다'는 불교와 기독교가 동일하다는 억지 주장을 거부하고 그 차이를 상세히 밝힌다. "두 종교 사이에는 비록 공통점이 존재한다 해도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기본 관점에는 현격한 차이가 있다. 애써 불교와 기독교의 동질성을 찾기 위해 여러 논거를 들어도 어디까지나 연꽃은 연꽃이고 포도는 포도인 것이다."

그렇다고 '다르다'는 게 적대적인 양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불교는 '정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종교이다. 명확한 차이를 알고 이를 통해 진정한 상호이해로 나아가자는 게 이 책의 목적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서 출발한 이 책은 궁극적으로 종교 간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에서 불교는 '논쟁하지 않는 종교'라는 오해를 받는다. 반박하기보다 포용하고, 내세우기보다 수렴할 것이라는 이미지가 확산되면서 '논쟁하지 않는 종교'에 대한 인식이 강했다. 기독교의 훼불 행위들은 바로 불교가 '논쟁하지 않는 종교'라는 인식이 뒷받침 됐기에 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더불어 불자들이 이런 인식을 스스로 받아들여 내면화한 것 역시 큰 요인이 됐다. 이 책은 바로 '논쟁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논쟁을 통해 타파하고 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비롯해 수많은 이들이 펼쳐온 논쟁의 역사다. 석가모니는 바라문교를 비롯한 다양한 종교와의 논쟁을 통해 법을 세상을 전했다. 특히 논쟁 문화가 발달한 인도서 상대의 논리를 꺾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 우월성의 입증을 넘어 지배계층과 민중들의 지지를 이끄는 필연적인 과정이었다.

이런 불교논리학 전통은 용수를 비롯해 세친, 무착, 진나, 법칭, 월칭 등 기라성 같은 불교논사들에게 이어졌다. 이민족을 오랑캐로 취급하는 중국에서 불교가 활짝 꽃 피고 동아시아 각지로 확산될 수 있었던 배경에도 탁월한 논리와 진리의 우월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상호 논쟁은 삿된 견해를 바꿔 참다운 지혜와 자비로 이끄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것, 이 책이 주는 핵심 교훈이다.


불교용품 전문·고급 연등·봉축 현수막

2015 연등 특별공급 (한정분)
모든 연등 8cm 기준 전국 어느 상점에서나 3,000원에 구입 할 수 있습니다.

▶연등 및 각종 전선, LED 전구
▶봉축리본
▶종이등표
▶지하철현수막
▶어깨띠
▶종이주름등
▶세로거치형 현수막
▶비닐만월등
▶봉축현수막
▶가야자비연등 · 가야자비연등 6cm 줄등용
▶차걸이 · 연꽃차걸이/광명등연꽃차걸이
▶고급 칼라연등 : 진분홍, 연분홍, 보라, 다홍, 오렌지 8cm
▶설화등 : 다홍, 연분홍, 진분홍, 오렌지, 보라 8cm
▶가야 공단등 : 연분홍, 오렌지, 진분홍, 다홍, 보라 8cm
*공단/실크/수입사등 : 진분홍, 개방형(오렌지), 밀폐형(다홍) 8cm
*황금등 : 8cm
*자비연등 : 8cm

가격할인 예외품목

불교장엄용품전문 가야기획

※가까운 유명 불교용품점에서 상담하십시오.

# '안-밖 합치도' 낮추면 삶 만족도 높아져

## 생각바꾸기

**김정호 지음 | 불광 펴냄 | 1만 5천원**



스트레스를 받거나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은 '위너가 되고 싶다' '루저가 되고 싶지 않다' 는 동기를 품기 때문에 충족되거나 좌절되는 것에 따라 즐거움이나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하지만 '뭐든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간다' 고 생각하는 사람은 위 문장을 보고 자신의 동기가 충족되거나 좌절될 계기가 없기 때문에 마음의 동요 없이 그러거나 말거나 자기 길을 간다.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반응의 차이를 낳는 동기의 힘에 주목한다. 오랜 연구와 관찰을 통해, 스트레스나 웰빙은 우리가 품는 동기가 좌절되거나 충족된 상태 또는 동기가 좌절 예상되거나 충족 예상되는 상태라는 동기상태이론을 펼친다. 이 이론을 바탕으로 저자는 '동기인지행동치료' 를 주창한다.

### 심리치료의 새흐름, 동기인지행동치료

인지행동치료는 심리치료 분야서 과학적 검증이 가장 잘된 치료법으로 인정받는다. 동기인지행동치료란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에, 마음챙김 명상을 받아들여 새롭게 발전하는 인지행동치료의 최신 경향과 긍정심리 접근법을 '동기' 를 중심으로 통합한 기법이다. 기존 치료에서는 심리장애나 스트레스 원인으로 인지에 초점을 두고 인지와 행동의 관리를 통해 심리장애의 치료와 스트레스 관리를 꾀한다. 이와 달리 동기인지행동치료에서는 심리장애나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인지뿐만 아니라 동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최근, 기존의 인지행동치료와는 달리 수용전념치료와 같은 새 흐름의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인지의 변화가 치료에 핵심적이지 않다고 보며, 그와 관련된 연구 결과를 많이 내놓는다.

동기인지행동치료는 스트레스나 심리증상은 동기가 좌절 또는 좌절예상의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본다. 스트레스나 심리증상의 심각성은 동기좌절 또는 동기좌절예상 상태의 크기와 지속성으로 나타난다. 인지치료에서처럼 인지를 바꾸든 수용전념치료에서처럼 바꾸지 않든, 동기인지행동치료에서는 궁극적으로 동기 자체나 동기 상태의 변화가 치료의 핵심이라고 보며, 동기와 인지 및 행동의 관계서 동기의 변화를 도모한다. 또한 동기인지행동치료는 스트레스나 심리 증상의 감소만이 아니라 웰빙, 즉 동기충족과 동기충족예상을 목표로 한다.

### 삶이란 정보처리 과정이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정보처리를 통해 정보를 구성하는 과정으로 본다. 이 관점서 주목할 점은 우리가 정보처리를 통해 특정한 정보를 구성할 때 우리의 내면(안)과 외부 환경(밖) 사이에 일정한 합치도(안-밖 합치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공포영화를 좋아하는 사람 A(안-조건)가 공포영화(밖-조건)를 보면, 재미 정서가 구성될 확률은 높고 고통 정서가 구성될 확률은 낮다. 반대로 공포영화를 무서워하는 사람B(안-조건)가 공포영화(밖-조건)를 보면, 재미 정서가 구성될 확률은 낮고 공포 정서가 구성될 확률은 높다. A와 공포영화 사이에는 재미 구성의 높은 안-밖 합치도와 고통 구성의 낮은 안-밖 합치도가 존재하고, B와 공포영화 사이에는 재미 구성의 낮은 안-밖 합치도와 고통 구성의 높은 안-밖 합치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안-밖 합치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동일한 만화책을 한 집단에게는 연필을 이로 물고 보게 하고 다른 집단에는 연필을 입술로 물고 보게 했을 때, 연필을 이로 물고 만화책을 보게 한 집단이 더 큰 재미를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연필을 이로 문 집단은 자연스레 웃는 표정을 짓게 되는데, 웃는 표정이 재미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쪽으로 내면을 변화시켜(안-조건) 같은 만화책(밖-조건)에 대한 재미 정서 구성의 안-밖 합치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다.

**반응차이 낳는 동기의 힘에 주목**
**스트레스를 만드는 기제 설명**
**기법 통해 생활 바뀐 사례도 소개**

### 마음과 몸은 서로 돕는다

안-밖 합치도의 관점에서 보면 만족스런 삶의 공식은 간단하다. 스트레스 구성의 안-밖 합치도를 낮추고 웰빙 구성의 안-밖 합치도를 높이는 것.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와 같은 문구를 물병에 붙인 후 버스운전기사에게 나눠 주고 하루에 수차례 반복하게 하자, 이전 같으면 화를 낼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또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운동이나 노래 부르기와 같이 자기가 좋아하는 행동을 하면 심리 상태가 한결 나아지는 경험을 많은 사람들이 했을 것이다.

저자는 마음챙김을 통해 스트레스 상태로부터 거리를 두고 상황을 받아들이는 힘을 기르는 방법, 스트레스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믿음을 제거하는 ABCDE 기법,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처지에 공감하여 스트레스 상황을 감사한 상황으로 전환시키는 나-지-사 기법, 버스운전기사 실험에서처럼 웰빙을 불러오는 인지를 생활 속에 심는 웰빙인지기법, 춤추기와 노래 부르기 같은 웰빙행동기법 등 궁극적으로 안-조건을 변화시킴으로써 스트레스 구성의 안-밖 합치도는 낮추고 웰빙 구성의 안-밖 합치도는 높이는 다양한 기법을 책에서 선보인다.

이 책은 동기인지행동치료의 관점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기제를 알기 쉽게 설명한다. 마음의 작동 원리와 변화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탕으로, 누구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실천법, 그리고 이 기법을 통해 생활이 바뀐 사람들의 사례를 소개한다.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에서는 동기인지행동치료란 무엇이며, 어떠한 이론적 바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한다. 안-밖 합치도, 동기, 인지 등의 개념과 그것들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분석한 후, 동기와 인지와 행동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제시함으로써 동기인지행동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는 이유를 밝힌다.

제 2부에서는 스트레스를 만드는 동기의 유형과 실례를 살펴본다. 이어 마지막 제 3부에서는 동기인지행동치료의 다양한 전략을 소개한다. 욕망과 생각을 분석하는 동기-인지 분석 연습, 마음챙김 명상을 통한 관찰 연습, 비합리적 믿음을 논리적으로 파하여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거하는 ABCDE 기법, 불교의 동사섭에서 유래한 나-지-사 기법, 좋은 기분을 낳는 생각 모듈을 관리하는 웰빙인지기법, 행동을 통해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웰빙행동기법이 무엇인지 정의한 후, 생활 속 실천법과 실제 적용 사례를 소개한다. **김주일 기자**

# 어제보다 나은 오늘 창조 하려면… '생각 농사' 짓자

## 생각의 씨앗을 품다

**백성호 지음 | 중앙북스 펴냄 | 1만 3천원**



눈앞에 닥친 일에 급급하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미생들을 위한 삶의 힌트를 담은 책, 〈생각의 씨앗을 심다〉가 출간됐다. 이 책은 일상이 최고의 선방이자 수도원이라는 일상구도자 백성호 중앙일보 종교전문기자의 신작이다.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나가며 새로운 일상을 창조하는 구체적인 마음 공부법을 담은 '현문우답' 의 완결판이다.

'현문우답' 은 1997년부터 '종교' 라는 창과 '글' 이라는 통로로 100만 독자들과 깨달음에 대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저자가 2007년부터 중앙일보에 연재해오던 칼럼이다. 작고한 소설가 최인호가 생전에 신문사로 직접 전화를 걸어와 칼럼의 애독자임을 밝히며 저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기도 한 이 칼럼은 잔잔하고도 깊이 있는 필력으로 독자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책을 통해 저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창조하려면 '생각농사 '를 지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생각 농사' 란 마음의 밭에 '생각의 씨앗' 을 심는 것으로 시작된다. 우리의 마음은 어떤 씨앗을 심어도 답을 하고, 싹을 틔울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닌 밭이다. 생각의 씨앗이란 자신 안으로 던지는 '물음' 이다. 이건 뭐지? 왜 이렇게 됐을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까? 그때 나는 왜 그랬을까? 하는 일상 속에서 우리가 당면하게 되는 문제에 대한 수많은 물음들이다. 이런 물음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대답해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마음은 성장하고, 곧 닥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생각 농사가 우리의 삶을 울창한 숲, 행복한 숲으로 만든다고 전한다. 이 책에는 생각의 씨앗을 심는 법, 물을 주는 법, 햇볕에 내놓는 법, 기다리는 법, 싹이 올라오는 풍경, 올라온 싹을 일상에 대입하는 법 등을 다루었다.

다들 스스로를 '미생(未生)' 이라고 자책하며 살아가는 시대에 자신이 원하는 '완생(完生)' 이 되는 길을 성공의 길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미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저자는 갑의 자리에서도 결코 '완생' 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대신 붓다가 일찍이 세상의 모든 '미생' 을 향해 힌트를 주었듯 네가 바로 연꽃이라고. 네 옆의 사람도, 네 뒤의 사람도, 이 산도, 저 강도, 온 세상이 온통 그렇게 피어 있는 아름다운 연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새로운 오늘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겪어온 아픔 또한 뒤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주일 기자**

# 소설로 읽는 선불교와 마음 이야기

## 꼬마 달마의 마음수업

**이지형 지음 | 청어람미디어 펴냄 | 1만 3천원**



이 책은 선불교에 입문하려거나 마음수행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 선불교 입문서이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선불교의 기본 개념과 교리를 이해하기 쉽게 소설 형식으로 풀어 놓았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사회에 적응 못하고 출가해 행자 생활 한 지 한 달째다. 그런 주인공 앞에 어느 날 스스로를 달마라 칭하는 동자승이 나타난다. 이후 주인공은 '진정한 나' 를 찾기 위해 구도 여행을 떠나고 꼬마 달마도 이 여행에 동행하게 된다. 이런 두 달간의 짧은 여정 속에서 두 사람이 겪는 사건과 둘 사이에 오갔던 문답을 통해 인간의 마음, 종교, 그리고 우주에 관한 선불교의 가르침을 전한다. 여기에는 선불교를 이해하는 데 도움 주는 20여 개의 선문답과 화두가 등장해 전체 스토리를 이끌고, 두 사람의 대화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어렵게만 느껴지던 선불교 가르침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선불교는 부처와 그 제자인 가섭 사이의 사건인 '염화시중의 미소' 를 통해 싹을 틔웠고, 중국 대륙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 혼란스럽던 6세기 초반, 달마 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오면서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 선불교의 초조라 불리는 달마 이후, 그 법은 혜가(2조), 승찬(3조), 도신(4조), 홍인(5조)으로 전해졌고, 7세기 혜능(6조)의 등장으로 극적인 발전을 이뤄낸다. 이후 중국에서는 200~300년에 걸쳐 선(禪)의 황금시대를 구가하며, 그 불꽃같은 시기에 이 책의 주요한 모티브가 된 1,700여 개의 선의 화두인 공안(公案)이 만들어진다. 부처님이 자신의 제자인 가섭에게 말없이(不立文字) 자신의 마음을 세 번 전한 사건을 통해 법 일체가 이심전심으로 가섭에게 전해졌으며, 후세의 선사들은 이를 선불교의 시작으로 본다.

조사서래의(祖師西來意). 달마가 서쪽에서 온 까닭은? 선어록에 흔히 등장하는 질문으로, 불교의 최고 진리를 우회적으로 묻는 문장이다. 달마가 6세기 초반, 위험을 무릅쓰고 서역에서 중국으로 온 것은 불법을 전하기 위함이었다. 중국에 온 이후 양 무제를 만나고는 바로 숭산 소림사 인근 동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였으며, 전설에 의하면 이후 독살을 당해 죽음에 이른다. 달마선사의 가르침을 요약했다고 전해지는 짧은 문구가 선불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을 후세에 전해진다.

**경전을 떠나 따로이 전하니(敎外別傳)**
**문자에 의존하지 아니하고(不立文字)**
**곧장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直指人心)**
**자성을 보고 깨달을지니라(見性成佛)**

7세기에 들어서 혜능은 수많은 경전과 복잡한 이론에 사로잡혀 있던 그때까지의 불교를 그야말로 중국식으로 혁신한 선(禪)의 원류이다. 일자무식 나무꾼이던 혜능 스님은 어느 날 장작을 해오다가 길에서 누군가 금강경 독송하는 소리를 듣고는 고향에 홀어머니를 두고 출가를 한다. 5조인 홍인 대사를 찾아가 제자가 되고 나아가 선불교 발전에 크나큰 기여를 하게 된다.

이 책에서 주인공과 꼬마달마 사이에 오갔던 문답을 통해 수많은 선불교의 역사와 기본 개념을 마주하게 된다. 스승이 제자의 깨달음을 확인하기 위한 일문일답인 법거량, 중생을 계속 중생에 머물게 하는 세 가지 독,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낭떠러지에서 한 걸음 더 나가야 한다는 백척간두 진일보, 교(敎)와 선(禪)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나온 두 갈래 길,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세상의 모든 일이 인과(因果)의 사슬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깨달음인 연기, 깨달은 자의 삼매(三昧) 속에 세상의 삼라만상이 펼쳐진다는 해인, 가을바람에 세상의 본모습이 드러난다는 체로금풍 등등.

**두 주인공이 두달간 떠난 선 여행**
**20여 선문답과 화두 스토리 이끌어**

또한 이 책에는 20여 가지의 선문답 또는 화두가 등장한다. 그 중에는 현사 선사의 개울물 이야기, 보적 선사의 푸줏간 이야기처럼 생소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달마의 9년 면벽, 혜능의 깃발 이야기처럼 널리 알려진 것들도 있다.

어느 쪽이든 소설에 등장하는 이야기들은 일상적인 눈으로 볼 때 무의미하고 논리를 결여하고 있으며 심지어 부조리하기까지 하다. 대화는 엇나가고, 대화의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기이한 문답 앞에서 기고만장해 하거나 당황해 한다. 그나마 소설 전체의 테마라 할, 불탄 목불의 사연에 엮여 들어가 있는 20여 가지의 에피소드는 '정상적인' 대화에 가까운 것들이다. 일상적인 지성으로는 도대체 뜻을 파악하기 어려운 에피소드가 이른바, 선가(禪家)에는 넘치고 또 넘쳐난다. 하지만 이 책에 등장하는 부조리하고 무의미해 보이기까지 하는 선문답들은 말을 거부하고 쳐냄으로써, 말이 도달하지 못하는 '그 무엇' 에 도달하려는 치열한 시도였다. 우리들의 의식과 무의식을 채우고 있는 말과 개념을 단칼에 싹둑, 잘라버려 인간이 지닌 마음을 직접 가리키려 했던 게 그 시도들의 진정한 의도인 것이다. 선은 그렇게 불립문자와 언어도단을 무기로, 현대인들의 고뇌와 번민을 날릴 수 있는 최적의 도구가 될 가능성을 갖게 된다. **김주일 기자**


좋은인연 대출안내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전화 주시면 좋은인연이 되겠습니다

님폴께서 사찰을 매매 하실 때 사기를 당하여 피해를 보거나 제대로 된 감정평가와 권리분석을 하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미리 의논하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매매관련세금 · 부동산권리분석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사찰 화재보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악의적인 파괴행위 담보 가능함

❖ 가입시 필요자료 ❖
· 사찰등록증
· 각 전각의 건축(증, 개축)년도 면적
보험사 현장 실사후 보험가입 함

사찰화재보험
서일석(圓明) 합장
010-7344-1881
서울 중구 초동 21-9 동부화재빌딩 1704

※ 보험가액 평가료와 소정의 출장료가 있습니다.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자나깨나
중단전 챠크라 열리고
목, 뒷골, 어깨 확 풀림
스트레스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호락호락 팬티
배, 엉덩이, 골반, 허리
차가움 냉병 즉시 해소
노폐물, 독소 배출 왕~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세계최고! 다보명차, 슈퍼유산균 효소, 호두기름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과학과 불교

불교와 복잡계의 과학 그리고 원형사관

# 카오스 현상에 대한 해답, 불교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

## 종교적 개념과 수학의 발상

뉴턴의 '신의 의도를 밝히는 마음으로 그의 창조물, 자연을 연구를 한다' 는 말이 상징하는 것처럼 근대과학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신앙이며 유일신에 대한 믿음이 과학으로 이름만을 바꾼 것이었다. 또한 그의『프린키피아, 자연철학의 수학적 원리』는 공리, 정의에서 출발하는 유클리드의 엄격한 논리체계『원론』을 본으로 삼고 있다. 서양근대과학은 헤브라이즘의 일원적 사고와 헬레니즘의 논리주의사상의 효과적 결합으로 가능했다.

근대과학은 그동안 신비적으로 여겨온 혜성의 주기성, 조수간만과 달 운동의 관계, 행성의 불규칙운동, … 천체의 비밀을 밝히고 특히 천왕성의 발견은 미래의 천체현상까지도 예언할 수 있음을 믿게 한다. 그러나 눈부시게 발전해 온 근대과학은 한계를 드러낸다. 20세기 최대의 과학업적으로 일컬어지는 상대성원리, 불확정성원리, 불완전성원리의 삼대원리는 한결같이 과학적 진리가 절대적이 아니며 결정론적 철학을 부정한다. 뉴턴해석학은 변수가 제한적인 단순계에서만 유효했으며 삼체문제에선 무력을 드러내고 드디어 푸앵카레는 "수학적 진리가 가설에 불과하다"고 선언한다.

불교는 기독교의 절대주의와 헬레니즘적 논리주의와는 판이한 사상적 기반에서 출발한 업과 윤회의 시간관을 갖는다. 윤회사상은 기독교가 천지창조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일직선상으로 흐르는 것과는 대조적이며 공(空)의 사상에 중심을 둔 불교사상은 절대성을 부정한 상대의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 시간과 세계의 시작에 관한 물음은 답이 없는 형이상학, 무기(無記)의 대상이며 처음과 끝이 없는 무시무종(無始無終)이다. 불교철학과 공통의 발상에서 출발한 복잡계의 과학은 근대과학과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과학의 돌파구를 모색한다.

## 복잡계의 수학

20세기말, 수학은 종전의 수학의 범위를 넘어 결정론과 확률론도 아닌 제3의 수학, 복잡계를 개척하고 카오스적 현상을 대상으로 삼는다. 인간은 수많은 요인으로 구성되는 전형적인 복잡계이며 특히 불교적 업, 윤회, 자기닮음(一卽多, 多卽一) 등의 개념은 복잡계의 발상, 즉 되먹임, 무시무종, 나비효과, 프랙털, 자기조직 등과 공통의 철학을 지닌다. 복잡계의 수학은 불교와는 전혀 관계없이 독자적 발전 경로에 따라 많은 성과를 얻었으며 결과적으로 불교의 중요 핵심사상의 과학화 가능성을 입증한다.

〈표1〉 단순계와 복잡계의 대응

| | | | | | | | | |
|---|---|---|---|---|---|---|---|---|
| 유대 기독교사 | → | 일원론적 인간론 | → | 뉴턴역학 | → | 결정론 | → | 마르크스사관 |
| ↕ | | ↕ | | ↕ | | ↕ | | ↕ |
| 불교사상 | → | 다원론적 인간론 | → | 복잡계의 수학 | → | 카오스이론 | → | 원형사관 |

단순계와 복잡계의 시간관은 각각 고유의 역사관을 등장시켰다. 기독교사상이 결정론적 사고가 뉴턴의『프린키피아』를 낳고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마르크스사관에 대응하는 원형사관은 복잡계의 수학과 같은 발상으로 출발했으며 근대과학과 복잡계 과학은 다음의 〈표1〉과 같은 평행구도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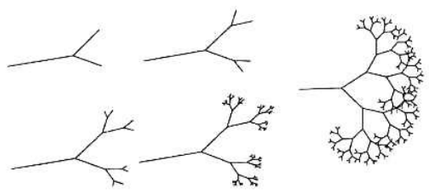
## 유식론의 되먹임사상

식(識)은 인식과 마음이며 유식론은 심층의식을 논한다. 오감(눈, 코, 귀, 혀, 피부)으로 감지되는 별개의 정보를 통합하는 마음은 의식이다. 인간이 희로애락을 갖는 것은 의식 다음 단계인 제7식에 해당하는 말나식(末那識) 때문이며 그 뒤에 무의식의 세계 아뢰야식(阿賴耶識)이 있다. 유식론은 프로이드가 말한 억압의 흔적을 종자(種子)로 표현하고 그 의식의 표면에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의 행위의 결과가 종자가 되어 아뢰야식에 흡수되어 다시 현행에 나타난다(종자생현행, 種子生現行). 또한 유식론의 훈습은 향냄새가 옷에 스며드는 양상을 뜻하며 이들 많은 종자가 하나의 성격, 패턴으로 자기조직화하게 됨을 말한다.

## 집단과 개(個)-되먹임은 간단한 것을 복잡화시킨다

'자기조직화' 는 개(個)와 다(多)의 관계에 관한 복잡계의 개념이다. 가령, 인간의 신체기관 중 눈의 구조는 DNA분자가 수백, 수천 세대에 걸쳐 같은 것을 복제해 온 과정에서 사소한 진화가 누적되어 만들어낸 기계적인 결과이다. 사소한 조건이 단순한 되풀이의 결과로 기적을 이룬 것이다. 개(個)의 현상이 다(多)에서 카오스를 일으키고 하나의 질서가 자기조직화된 것이다.

수많은 철새나, 질주하는 들소 떼의 움직임에는 일정한 질서가 있다. 이들 구성요소는 저마다 단순한



〈그림A〉 단순한 되풀이가 복잡한 것을 만든다.

행동을 되풀이하면서 전체적인 질서를 이룬다. '떼 지어간다' , '서로 부딪쳐서는 안 된다' 는 욕구가 한결같이 이들 구성원 모두에게 작용하고 있다. 즉 집단에 작용하는 인력(引力, 당기는 힘)과 척력(斥力, 밀어내는 힘) 두 개의 요인에 되먹임이 작용하면서 자기조직화가 된 것이다.

이 현상은 나무의 성장에서도 나타난다.〈그림A〉 개개의 가지는 ① 두 개로 분리된다.

② 나무 가지는 겹치지 않으려 한다.

그 결과는 나무를 효과적으로 성장시킨다.

구성원의 상호작용, 반복작용(되먹임)이 작동할 때 단순한 개개의 행동이 전체차원에서 하나의 질서를 자기조직화해서 집단의 생존을 유지케 한다. 사회구성원의 단순한 의식이 주어진 환경에서 최상의 집단행동으로 자기조직화된 것이다.

A. 스미스는 사회복지와 같은 것을 전혀 생각지 않은 '낱낱의 경제인의 이기심' 이 아무도 생각 못했던 자본주의를 발전시키고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 것을 "보이지 않은 신의 손"에 귀착시켰다. 또한 헤겔은 '낱낱의 개인의 합리적 활동' 의 결과가 세계정신, 객관적 정신을 형성한다고 주장한다. 스미스와 헤겔 등 세계적 지성은 한결같이 개(個)의 단순한 행동이 차원을 달리하는 집단질서의 자기조직화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낱낱의 새, 들소의 단순한 행동이 무리 전체에 차원이 다른 질서를 가져오는 것처럼 개인의 단순한 무의식적 행동?사고에 하나의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다. 복잡계 이론은 마르크스의 "양적 변화가 질적 변화가 된다."의 명제를 자기조직의 개념으로 과학화한다.

**상호작용의 자기조직화로 집단 생존**
**민족문화 근간 형성… 유식 사상**
**원형사관 바탕하에 새분야 개척**

개(個)와 집단의 관계는 개인의 아라야식과 민족적 집단 아뢰야식에도 확대시킬 수 있다. 민족사에 풍토와 지정학이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아뢰야식이 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원형론은 민족구성원의 무의식이 민족원형으로 결집되어 역사에 관통되는 에너지가 되어 민족의지를 형성함을 설명한다.(『풍수화』, 김용운) 과거의 역사적 경험은 민족의 업이며 집단차원에서 원형으로 자기조직화 되어 민족의 행로를 생각하는 미래학의 기반을 제공한다. 필자는 복잡계의 수학과 불교철학의 공통기반에서 원형사관을 구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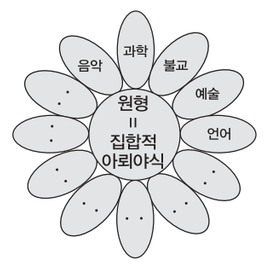
## 민족은 생명체, 집단무의식의 전승

세포가 죽음과 탄생을 거듭하면서 생명체를 유지하는 것처럼 민족구성원이 세포가 되어 탄생과 죽음을 거듭하면서 언어와 역사를 공유해가는 민족공동체를 이룬다. 원형의 불교적 표현은 민족차원의 아뢰야식이다. 원형사관은 개인의 아뢰야식(집단무의식)을 민족원형에 확대하여 오늘의 현실에서 역사를 관찰하고 미래를 설정해간다.

민족적 체험의 결과가 민족원형의 종자가 되어 온갖 문화현상을 야기하고 그 결과가 다시 아뢰야에 흡수되는 일이 되풀이된다. 개인 차원의 아뢰야식의 훈습과도 같은 작용으로 원형은 민족문화를 전개한 것이다. 역사적 체험의 결과가 종자이며 훈습됨으로써 원형을 형성하고 그 뿌리에서 오늘의 사회 · 문화가 꽃핀다. 문화는 원형의 기반 위에 나타나므로 민족 고유의 종교, 예술, 과학, 문학 등이 형성되며 이들 사이에는 공통의 가치 기준이 있다.

원형사관으로 보는 문화사는 끊임없는 되먹임에 의한 변화가 프랙털 구도(一卽多)로 전개된 것이며 저마다 민족은 각 시대의 문화를 마치 꽃송이처럼 만다라적으로 전개해 간다.〈그림B〉 복잡계 수학의 프랙털은 자기닮음이며 불교적 '일즉다, 다즉일' 과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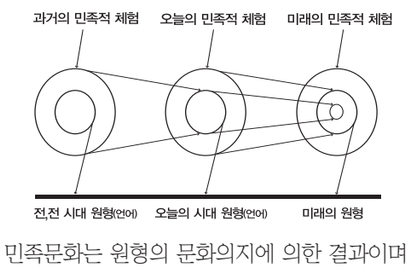
〈그림B〉 원형과 문화의 관계




## 원형과 역사전개의 관계

전세대의 민족체험(역사와 문화)은 오늘의 업으로서 현세대의 원형으로 이어지고, 현대의 민족체험(문화 포함)은 종자가 되어 미래의 원형이 된다. 오늘을 사는 한국인은 모두가 미래 민족원형에 책임을 지니며 그 구도가 또 다음 세대로 넘어간다.〈그림C〉

〈그림C〉 원형사관의 전개양식




## 원형의 원형(原型)과 원형(元型) 차이

원형(原型)은 민족의 집단무의식이자 혼이 되어 이를 통해 전통과 문화가 대대로 이어져 간다. 공동체 구성원이 함께 겪은 역사적 충격은 각 시대의 원형의 종자로 각인되어 미래의 역사적 패턴형성에 영향을 준다. 원형 형성과정과 그 잠재력을 밝힌다면 민족 간의 원형충돌 가능성도 예측해볼 수도 있다.

민족이 생명체를 이루고 원형의 자기조직으로 개인의 무의식과는 차원이 다른 문화의지를 갖게 되는 현상은 구체적이다. 필자는 원형(原型)의 개념을 한 · 일의 수학적 발상 차이에 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 민족의 초기조건과 자연환경, 역사적 체험 등과 집단무의식과의 관련성을 밝혔다. (『풍수화』) 원형은 시대마다 고유의 성격(시대원형)을 지니며 유동적이지만 변화하지 않는 부분(초기조건의 충격)도 간직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도 있다.

'원형' 은 민족 의지 결정에 개입하고 그 진로의 결정적 요인으로서 특히 민족 형성시 구성원의 공통경험인 초기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각 시대의 역사체험의 충격이 이전 원형에 가미됨으로서 시대마다 특수성을 지니고 민족어와 함께 되먹임적으로 변화해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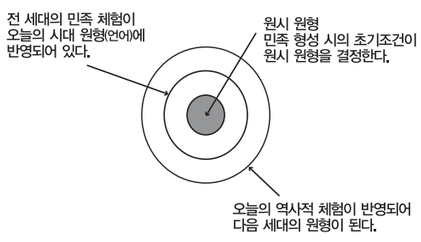
원형(原型, ethno-core)은 민족의 역사적 경험을 반영하므로 현실적이며 가변성을 지니므로 이데아적 원형(元型, archetype)과는 전혀 별개의 내용이다.

한편, J. 라캉은 정신분석을 "정신의 변화이론"으로 보고 융의 이데아론적 사고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것이 대상을 집단 차원으로 일반화하면 가변성을 지닌 원형(原型)과 교차할 가능성이 있다. 원형사관은 원형(原型)에 관한 변화이론으로서 민족차원의 정신분석이다. 〈표2〉 참조

원형사관은 현실적인 외교, 정치문제 등에 관한 정신분석적 해석을 가능케 한다. 최근 한국은 일본에 대해서 역사인식과 위안부문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조선시대의 '동방예의지국' 의 자긍심과 식민지시대의 심적 갈등, 니체가 말하는 원한(resentiment)을 보상받으려는 원형적 욕구이며 외교분쟁이 아닌 원형충돌의 문제다.

민족문화는 원형의 문화의지에 의한 결과이며 개인의 차원의 교양에 해당한다. 시대마다 문화는 새로운 업을 야기하며 어김없이 새로운 원형의 외피를 쌓아가는 되풀이를 계속한다. 민족신화에 나타나는 초월적인 존재, 인간성은 민족공통의 성격이 초기조건을 반영한 것이다. 원형의 구도는 몇 겹의 동심원이 그려져 있는 만다라 적이다.〈그림D〉

〈그림D〉 원형의 단층도




또한 수시로 동심원의 다중 구조를 뚫고 전, 전, 전 … 세대의 원형이 번득인다. 먼 옛날 마을에서 형성된 원형에 지난날의 정치?사회적 상황이 개입되고 고대의 한국인상을 드러내며 원형과 개인의 업의 구도는 대조적인 대응을 이룬다.

불교철학, 곧 복잡계의 사고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을 결합시키는 중요한 공통계통개념을 제공한다. 불교가 역사를 외면한 것은 개인의 해탈을 목적을 하는 인류차원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며 현실적으로 오늘날 이 나라의 불자는 한국의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존재다. '중생의 병은 번뇌에서 나오고 보살의 아픔은 중생이 병들 때 아파한다.(〈유마경〉)' 다시 말해 중생의 병은 원형의 아픔에서 나오고 보살은 그것을 치유하는 자비심(慈悲心)을 발휘해야 한다. 한국인이 병을 앓을 때 원형사관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원인을 규명하고 불자의 길을 고민한다. 원형론은 불교철학과 함께 민족학의 과학화 등 새로운 지적 분야의 개척을 시도한다.

〈표2〉 원형(原型)과 원형(元型) 비교

| | 역사를 움직이는 실체 | 무의식 | 상징, 시대적 특성 | 적응의 주요 영역 |
|---|---|---|---|---|
| 김용운 | 원형(原型)<br>ethno-core | 민족적 집단무의식,<br>초기조건과 역사체험으로 형성된다. | 민족어와 같이 시대원형은<br>가변성을 지닌다. | 언어, 역사, 미래,<br>문화, 민족정신분석 |
| 융 | 원형(元型)<br>archetype | 보편적이며 유전적으로<br>인류적이며 계승된다. | 민족어와 무관하며 대지모신,<br>노현인 등 플라톤적<br>이데아이며 변함이 없다. | 집단심리학,<br>문화, 집단무의식 |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CD

위없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어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부처님오신날 특별 할인 행사
가격 ~~10만원~~ ⇨ 78,000원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www.hyunbulshop.com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한글 독경 CD

CD01-제1. 서품(39:25)
CD02-제2. 방편품(46:51)
CD03-제3. 비유품(54:48)
CD04-제4. 신해품(30:24)
제5. 약초유품(16:08)
제6. 수기품(17:13)
CD05-제7. 화성유품(51:41)
제8. 오색제자수기품(21:11)
CD06-제9. 수학무학인기품(11:22)
제10. 법사품(18:39)
제11. 견보탑품(22:19)
제12. 제바달다품(15:54)
CD07-제13. 권지품(10:07)
제14. 안락행품(27:27)
제15. 종지용출품(21:13)
CD08-제16. 여래수량품(21:15)
제17. 분별공덕품(23:31)
제18. 수희공덕품(13:23)
CD09-제19. 법사공덕품(24:17)
제20. 상불경보살품(13:15)
제21. 여래신력품(08:59)
제22. 촉루품(04:36)
제23. 약왕보살본사품(23:10)
CD10-제24. 묘음보살품(16:12)
제25. 관세음보살보문품(19:26)
제26. 다라니품(10:07)
제27. 묘장엄왕본사품(14:46)
제28. 보현보살권발품(14:07)

구입문의
02)2004-8216
현대불교 현불샵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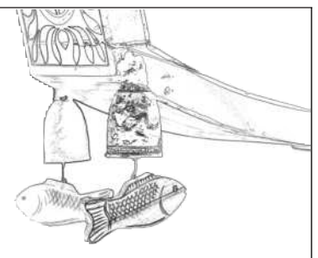
# 생 활 안 내

▷ 문 의 : 02)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Box (4.5×4.5) 4만원, 1Box (9×4.5) 8만원
▷ 마 감 : 매주 월 요일 ~ 수요일. 수요일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드넓은 바닷물이라도 쉬지 않고 퍼낸다면 언젠가
그 밑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하물며 지극한 마음으로
구도의 길을 간다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하겠는가.

- 대아미타경 -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다음」에서 금정사 범음범패를 치세요!
대명 합장 (부산)

##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지정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작법무.천수바라 연수원
염불,사물,작법무,사주명리
살풀이,극락무,회심곡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010-5511-7000

##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 범 음 범 패 대 학

학인모집 실전교육
작법,천수바라,법고,송주북,
정근북,태징,양고장,난타
경남 진주시 집현면 정수리 417
금륜사(구,용화사) 대진 합장
055)745-3624
010-7579-8200

##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1-850-0176

## 불교용품 재활용 센터

불상, 탱화, 불기 일체
법당 철거 및 정리
031-842-1070
010-9944-1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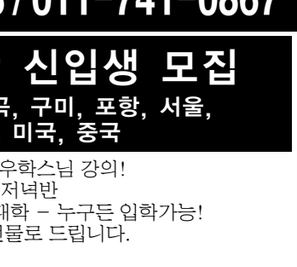
##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사바세계최초 "재물(음식)을 차리지 않고 목탁, 염불"을 하지않는 우주광명 신통력 기천도재
각종질병,우환,업장소멸과 완벽한 조상천도 / 장애로 인한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움 해결 / 가장빠른 깨달음과 해탈 사후 극락왕생 / 아미타불 일광부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우주 기천도재
우주광명 신통력 일광 합장
경남 창녕 010-3586-6091

## 실전 방편술

명리와 귀장술 - 1개월 완성
기초를 알면 - 1주일 완성
사찰운영 하시는 스님, 보살님
무속인은 필수 조건입니다
우리 중생은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기도를 하면 성불을 받는가?
정확하게 답해 줍니다
호산 합장 010-5960-4984

## 손도사 태산스님의 독성불




## 수행식 중화요리 특허출원

새로운 메뉴 탄생, 밥두부 출원,
짜장이나 짬뽕이 국수(면) 종류지만
소승의 출원은 불교적인 메뉴개발,
채식의 변화 대중화, 연구비만 받고
자금부족으로 저렴하게 양도함
041-542-1120

## 청 소

- 이사, 입주, 상가,
공장, 사찰 청소
- 제초, 벌초작업
코끼리 청소가 하면 다릅니다
(서울 경기 지역)
(주)코끼리청소 1566-8986

## 인과의 업장소멸 해법

만사 만생의 고를 풀어가는 글문 비방
- 불치병 (병명無)
- 빙의 (신병)
- 사업,소원,가정사상담
- 알수 없는 풍수탈
- 인생의 고는 인생방정식의 해법으로 답을 찾자
- 번뇌 해탈은 불정사에서
불정사 도정 치우 합장
051)558-5585.010-4593-2918

## 분원등록 안내

(불교문화원, 불교문화수련원,
불교문화센터, 불교선문화센터
설립 운영하실 분)
교육부 산하 상학인가 만대교학대학원
한국불교문화원연합회
011-412-8040 법광

##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 우주광명 기(氣)천도재

* 부전자리 구할 비구니스님
40-50대 중반의스님 구함
(급여비 답사요망)
* 편안한 사찰(암자) 깨끗하고 밝은 절. 운전할 수 있는 40-50대. 사찰을 즐겁게 복되게 지켜나갈 불자 공양주를 찾고 있음.
(급여비는 답사 후 결정, 전화주세요)
경북 내원암
054-653-1180. 010-6353-1180

## 함께하실 공양주 보살님 구합니다

(전남 화순)
061-372-3765

## 공양주 보살님, 절에서 일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010-8691-9672

## 공양주 보살님, 일 하실 처사님

모십니다 (65세이상)
(울진 영명사)
010-2078-9595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부산, 60세 이하)
010-7311-5335

## 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학인스님 가능)
(경주)
010-3746-8887

## 부전스님 모십니다

(부산 경덕사, 밀양 삼봉사)
010-4484-5758

## 비구니 기도스님,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579-6444

##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60세 이상)
010-4450-2500

## 원하는 대로 이루는 기도

- 아주 묘한 기도법을 원하는 스님께 확실하게 전수 합니다
- 서울 지하철 1호선 부천역 소명 4거리 3층 백선사 대주스님

☎ 032)664-0048 / 011-741-0867

## 천 기 누 설

누구나, 최면술과
사주를 바꾸는 비법을 1대 1
특별 전수합니다
성봉사 회주 현오 합장 010-5656-3915

## 신심있는 공양주 2분과 거사님 구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학림사)
010-7275-3730 원주스님
042-825-1724 종무소

## 빈절, 관리하기 어려운 절

절충하여 관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사주 풍수에 능함)
현재 조계종 사찰에 있음
010-7121-9406

##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양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 한국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구큰절, 경산, 칠곡, 구미, 포항, 서울,
감포, 영천, 미국, 중국

▶ '저거는 맨날 고기묵고' 저자 우학스님 강의!
- 화, 금요일 오전반, 목요일 저녁반
- 실참(기도,참선)하는 불교대학 - 누구든 입학가능!
- "기도희 힘" 책과 가방을 선물로 드립니다.

▶ 입학 문의 ☎ 053)474-8228
- 다음카페 : 불교인드라망 - 홈페이지 : 한국불교대학

행자(예비스님) 모집 ☎ 010-9562-8228
<대구도심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에니멀 에너지 힐링 세미나

* 반려동물(개,고양이 등)을 가족처럼 기르고 있는 분들에게 희소식! 반려동물의가벼운 병과 나쁜 버릇을 스스로 치료해주어 마음 고생을 덜으세요. 여기와서 (디바인 하트) 라는 기 에너지를 교육 받으시면 됩니다.
* 교육시간 : 오전11시부터 ~ 오후 4시, 교육은 단 하루에 끝납니다
* 교육비 : 20만원, 미리 예약필요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www.Reiki.co.kr 02)720-5682. 010-8392-2557

## 구성학 인연관법 (8주) 특강반 (4월 21일 화요일 개강)

- 구성학으로 개개인의 인연법에 맞는 조상 천도제, 칠성제, 젊은 영가 천도제, 태아령제, 빙의 등의 제(祭)를 한눈에 찾는 방법
- 1년 운세 및 한달 운 쉽게 통변하는 방법 - 각종 택일 쉽게 찾는 방법
-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2시간씩) 16주간
* 구성학 전문술사(32주)과정(4월 23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2시간씩) 32주간
* 현공풍수 양택(32주)과정(4월 23일 목요일 개강)
매주 목요일 오후 5시 30분 ~ 7시 30분(2시간씩) 32주간
- 서울 관악구 봉천4동 865-2번지 세종오피스텔 317호
010-5116-9313 문의 해 주시면 자세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성학학회 강남 안병내 배상

## 역학. 빙의 퇴마 (개인지도. 예약상담)

(아름다운 삶을 위한 마음의 치유) 저자 상담 지도

1. 빙의퇴마, 최면요법, 심리상담과정
(우울, 불안, 각종공포증, 정신질환의 치유)
2. 역학(기문둔갑) 사주, 궁합, 택일, 방향 과정
3.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 빙의(신병) 출장 퇴마 해 드립니다

전화 010-3772-4606 www.제행스님.com
서울 지하철 4호선 상계역 2번출구 상계중앙시장 내 농협 옆

## 불 교 의 식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점안식,
각종행사를 봉행합니다.
범음범패, 바라춤, 작법무, 살풀이, 극락무, 회심곡
다보사 주지 성원 합장
010-4802-3290

## 사람을 찾습니다

전원생활하시며 노후를 즐겁게 보내실 분. 비구, 비구니, 불자님
45 ~ 65세 부부환영. 신축주택 무료사용. 경우에 따라 식사 제공 가능.
김천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면 소재지 부근 계곡물 콸콸,
남향집이며 시내버스가 집앞에.
- 주변여건 : 대형 복숭아, 자두, 표고, 감나무 정원
- 조 건 : 3천만원 이상 투자 가능한 분, 투자가치 확실하며 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비어있는 세 집이 있으며 수백평 정원이 정리되어 있고 마당에 잔디,
주차장 완비 총면적 약 3천평이며 유실수 등 텃밭도 있습니다.
기타 상세문의는 전화요망
전화 010-9923-2452 / 팩스 054)434-2452

# 현대불교신문 구독문의

■ 불교의 현대화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고 삶의 보편적
가치를 올곧게 지탱하는 힘

■ 불교의 생활화
생활속의 지혜와 자비로 꽃피는 가르침

■ 불교의 세계화
국경과 인종을 초월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의 행복한 삶

현대불교신문사는
생명 있는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험한 길일수록 먼저 달려가겠습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하십시오

문의 전화 : 02)2004-8200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

#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 | |
|---|---|
| 저작권자<br>상표권자<br>법화종헌 |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
| 누가?<br>몇일? | ◆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br>◆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br>◆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
| 내<br>용 |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br>◆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br>◆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1대조에서 5대조까지)<br>◆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활동 가능함<br>◆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 |
| 수강료 | ◆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br>◆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br>◆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덕천동 뉴코아백화점 뒤)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 다음주 목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규격 5㎝ 50,000원(1회) / 가로 7㎝ 70,000원(1회) / 가로 10㎝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온 세계에 대해서 무한한 자비를 행하라.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원한도 적의도 없는 자비를 행하라.

- 법구경 -

## 사 찰 안 내

▶ 바다조망 토굴 터 안내◀
- 위치 : 거제시 바다조망 최고
- 총부지 : 526㎡ • 가액 : 3800만원

▶ 아름다운 토굴 안내◀
- 위치 : 순천시 낙안온천 부근
- 법당 : 61.8㎡ 석담조 기와지붕
- 총부지 : 5,000평(종교용지 186평)
- 가액 : 3,500만원

※전국 사찰 2,000개 보유※

▶ 관광 사찰 안내◀
- 위치 : 동해 바닷가 근처
- 건물 : 법당 48평 및 요사채 38평, 원주실 15평
- 총부지 : 1,900여평
- ★세계불교박물관(5400여년 전 벽락맞은 대추나무화석 등 석물 300여점보유) 관광버스 대형주차장 650평
- 가액 : 6억 5천만원 인수 (은행 5억 별도)

※전국사찰 30년 역사※

사찰전문 연산공인중개사

※ 홈페이지 // 사찰전문 연산컨설팅 Daum카페

직통 051-863-6622

주소 : 부산시 북구 만덕2로 17번길 1, 505호 (만덕동 302 다산타워)

## 사 찰 안 내

- 위치 : 원주 도심사찰 양도
- 목조법당과요사채(방사7).산신각.창고
- 토지 730㎡ 납골터.텃밭.주차장.노천불
- 양도금액 : 5억6천만(융자 2억)
- 원주 횡성 5분거리. 최고위치임

010-7347-1010 (사찰전문)

(원주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 상담문의

010-5369-4154 (창건주)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소재
- 종교용지 및 대지 약 59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2동
- 가액 : 2억 8천

010-5114-0172

010-4320-8842

## 별장같은 토굴안내

순천 최고의 신도시 백화점뒤에 사찰
- 사찰창건 : 20년
- 대지 700평, 자연녹지 500평
- 대웅전(木) 22평, 삼성각 (木) 6평
- 요사채 (슬라브 2층) 방 6개 주차장(15대 완비)
- 200M 거리 아래 : 백화점, 법원, 만(10,000)세대 아파트 단지
- 순천 최대 둘레길 완공 순천,여수,광양 2015년도 광역시 통합 예정
- 가액 : 6억 8천만원, 조절가능

010-3855-7885

010-3604-5477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공주시 산성동
- 수십년된 명당터 사찰
- 대지 420평, 법당 1동, 요사채 1동
- 공찰소임 관계로 조건 맞는 스님께 협의 양도코저 함
- 가액 : 협의 조정

010-4263-0801

##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기
◎ 부지 : 35평 ◎ 대지 : 220평
◎ 법당 : 3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0평 ◎ 요사 : 60평
◎ 양도 : 3억 5천 ◎ 양도 : 7억 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석불,골동품,탱화,고서 상담 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02-723-4082

## <전국사찰수백건보유.방문접수 비밀보장>

* 위치 : 경주시 계곡접(폭포) 관광사찰 양도
* 요사건물80㎡,스님실79㎡, 법당,산신각 등 건물 5동
* 토자 6.400㎡ 법당.산신각기와 단청됨.바위계곡접
* 양도가 : 12억(주차장. 전설과 문화재 급 있음)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부동산공인중개사

010-7347-1010 (사찰전문이박사)

주소 : 강원 원주시 모래내길50.성일@상가108호(대표:이규철)

■ 전국사찰.사찰부지.토굴양도 급히 구함!!!

##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양산시 남부시장내
- 평수 : 34평
- 보증금 2,000만원 달세 25만
- 보증금 3,000만원 달세 15만
- 전세 5,000만원
- 개인사정으로 급 양도 합니다
- 부동산은 연락 자제 해주세요

010-9906-9668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울진군
- 대지 800평, 대웅전 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20평 주차장 100평,
- 기도하기 좋은곳, 산세가 좋고 물 맑은곳. 송이, 능이 많은 곳
- 꼭 하실분만 연락 바람
- 가액 : 3억 5천만원

011-9571-6559

##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근교
- 대지1000평 임야 2000평 총 3000평
- 건물 5동 타종 1총 6채
- 양도가 : 15억

상담문의전화 :

010-9818-0963

## 도심 속 사찰 안내

- 위치:안산시 단원구 신고잔 로데오거리
- 5층 건물 중 5층
- 총 150평에 실평수 75평 마당에 조립식 건물 두동(2동)
- 현재는 부처님 모셔져있지않음 주위에 300전세대 아파트 입주
- 방4개, 화장실2개 엘리베이터, 복도 남녀화장실
- 양도가액 : 3억 8천만원,절충가능

010-9000-2291화주보살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안동. 절 앞에 낙동강 물이 흐르고 경치가 좋음
- 평수 : 120평
- 인법당 27평, 삼존불, 지장보살, 소불 100여불, 삼성각
- 큰방 2, 친견실 1, 공양간
- 집기일체 양도
- 잔디밭 마당에 7미터 지장보살
- 가액 : 1억 6천 5백만원

010-5555-8744

## 사찰 안내 "가람"

- 전국 사찰 암자 포교원 양도 양수 해 드립니다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
- 계약체결시 까지 홍보
- 매물홍보 최적화(사진촬영) • 비밀보장(희망자 한함)
-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을 입력해보세요

가람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36번길 38(상봉동127-15호)

## "기가 막힌 명당터"가 주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경남 함양군 병곡면 원산리 621, 621. 623
- 가셔서 느껴 보신후 전화 주세요

010-3519-5939

## 토 굴 안 내

- 위치: 대구시 중구 대봉동 729-2
- 1층 15평, 2층 15평 합 30평
- 가액 : 보 500만 월 35만
- 보, 시, 물 합 1,700만원

010-2878-3380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석현리 소양리 22-31
- 대지 1,240평
- 산식각, 미륵불, 요사채 없음 암반수
- 가액 : 9,000만원

010-3763-2809

## 포교원(급)안내

- 위치: 대전시 서구 둔산동
- 4층 건물 2층 40평
- 대웅전1, 서재1, 큰방 1, 작은방1, 주방겸 거실 1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108소불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45만 시설비는 협의 가능

010-8653-321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부산시 사하구 감천1동 큰 도로변 버스정류소 앞
- 2층 약 60평, 큰법당, 방3 샤워실, 큰 공양간
- 삼존불, 신중단, 칠성단, 영가단, 시설 환경 A급
- 가액 :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2천 5백만원

010-7337-1727

##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 법당 : 목조 18평
- 요사채: 목조 30평
- 전각 : 목조 3동
- 기타 부속 건물 3동
- 부지: 전, 임야,대지-약 1890평
- 양도가액:4억5천만원

011-854-9559

꼭 매입할 의사가 있는분만 연락주세요

## 부산 온천장 중심 법당

- 2층 공양실, 방 2개(약 50평)
- 3층 법당, 방 1개(약 50평)
- 100% 살림완비 몸만들어오시면 됨
- 가액 : 전세 2천만원
- 월세 : 일백십오만원
- 시설비는 거의 없음, 보시고 결정

010-4010-4070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춘천시 동부시장 내
- 2층 50평, 삼존불, 산신각,
- 살림가능, 몸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세 40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

010-9235-7513

## 사 찰 안 내

- 위치 :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 대지 104평,법당 24평,요사채 1동
- 스님친견실 1동, 산신각
- 사용가능 평수 약 200평, 주차장 20-30대, 주차가능
- 가액 : 2억 6천만원

010-5550-9725

010-4001-8476

055-232-715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571-1번지 선경복합상가 4층
- 평수 55평(법당, 거실, 부엌, 화장실, 엘레베이터)
- 전세 : 2000만원에 달세 80만원 시설비: 1500만원
-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4955-4978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경남 양산시 북부동 소재
- 삼존불, 방 5, 공양간
- 평수 85평
- 가액 : 전세 4,500만원에 월 50만원 시설비 1,500백만원 (절충가능)

010-8384-7754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울산 언양시장 상가 지역
- 전체 75평, 건평 24평(작은 텃밭)
- 1층 방3, 주방, 욕실, 마당해수관음 2층 법당 삼존불, 삼성각
- 보증금 2,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500만원(시설일체완비)
- 시장안에 위치해 포교하기 좋음

011-9542-8250

##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래)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가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 5평)
- 양자산 아래위치, 양쪽계곡, 앞쪽으로 전망좋음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기 허가 득
- 가액 : 12억 5천만

010-6288-906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 대지 : 157평
- 법당 : 25평(목조건물임) 요사채 2동
- 시설 완비
- 가액 : 3억

010-3508-7710

##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진주성 부근)
- 평수 50평, 3층건물 중 2층
- 구조 : 삼존불 모셔져 있고 방 2개 주방, 남녀 화장실 별도
- 가액 :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월 50만원 시설비(답사 후 결정) 최고시설

010-5534-3939

## 청평한옥안내

- 위치: 청평
- 대지 : 199평, 건평 :30평
- 전통한옥에 실내는 현대식으로 꾸며져 있음
- 방3,(큰방1, 작은방 2개 중 하나는 구들방임)
- 욕실2, 거실, 주방, 패치카, 석유보일러
- 현재 스님이 거주하고 있음
- 가액 : 2억 6천만원

직거래 010-9411-5302

## 사 찰 안 내

- 위치: 거제시 중심부
- 대지 : 2,103㎡ 건평(법당, 요사) : 329.4㎡
- 창고, 기타 : 약 15평 외 약 25평은 기초공사 완료되어 있음
- 석등외 조형물 다수 있음
- 주차장 넓고 경관이 좋음
- 가액 : 7억 5천

010-7582-0098

## 포교원 안내

- 위치: 부산시 해운대구 반송동
- 삼존불, 후불탱화, 산신, 용왕, 신중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집기 일체 800백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스님 건강상)

010-9036-1157

## 사찰을 무상으로 드립니다

- 단 범종은 조성가에 구입하기기 바랍니다
- 위치 : 충북 괴산

010-4896-010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곡성 3대명산 설산
- 산 42,566㎡(약 1만 3천평) 종교부지 2,161㎡(650평)
- 건물 : 72㎡(21평), 54㎡(17평), 41㎡(13평) 각각 경량 철골 판넬
- 식수 : 암반, 지하수
- 특징 : 사찰, 연수원, 별장, 전원주택
- 광주광역시 20분 거리
- 가액 : 3억 8천

010-7732-2378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읍에서 5분거리
- 사찰도량 총 1,420평, 법당, 관음전, 종각
- 요사채, 방은 총 13칸 공양간, 창고, 차고 외 부화장실 등등
- 건물은 총 13동 대형버스주차 5대 소형차 주차 20대 등
- 가액: 3억 9천만원
- 스님 건강 문제로

010-4628-5699

##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150-22(청용안 1길 4)
- 전통기와 한옥건물 대지106평, 건평52평,법당 22평,거실,방3, 후불탱화 4×8 1점
- 신중탱화 1점, 대리석 법단, 태양광 발전설치
- 가액 : 1억 5천만원 절충가능

010-4705-7711

010-6252-7711

## 사 찰 안 내

- 위치 : 홍천군 홍천강 상류, 경치 좋음. 경춘고속도로 경유 서울에서 1시간 거리
- 종교부지 312평, 대지 200평, 목조법당 30평
- 요사채 : 30평
- 가액 : 2억 6천

033-434-1365

010-2665-9978

## 명당사찰 부지 안내

- 위치 : 강원도 오대산
- 법정스님 집필 하시던 주변 50M 거리
- 좌청 우백 안산이 완벽 수려한 삼길육수
- 1,000평(대지 100평 포함)
- 꼭 필요하신분 연락주십시오

010-2678-0727

## 사찰 최적지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남포면 옥동리 282-8 남포저수지 앞
- 옥마산 정기를 받은 사찰
- 법당 외 부속건물 3채
- 건평 52평, 토지 377평
- 가액 : 3억 2천만원(주인직)

010-6444-4252

041-934-8497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대창면 한들길 87-5
- 건물 2동, 201평
- 가액 : 평당 38만원

* 야콘 고추장 특허 매 2억 *

010-3595-9856

## 명당사찰 터 안내

- 위치 : 포천 왕방산 대진대학 우측 중앙 위치
- 군신동조 혈자리 금시발복 거부장자 문무겸전 터
- 대지 300평, 1층 100평 / 2층 100평
- 가액 : 8억 5천

010-9292-3110

##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진주시내에서 20분거리
- 현재는 주택이나 8년간 절 운영했음
- 대지 578㎡, 전 274㎡(3필지)
- 건물 30평, 삼존불, 법당 1, 방 3개, 화장실 2개
- 대문입구, 500년된 돌밤나무 있음
- 기도스님이나 보살님 대 환영
- 가액 : 7,800만원

010-3321-6831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대구시 수성구 (지하철 부근)
- 평수 : 약 45평
- 법당, 방 3,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4,0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답사후 협의 (엄청 싸게 드립니다)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8505-0101

## 암자 토굴 안내

- 위치 : 가야산 국립공원 850고지
- 수행도량 토굴
- 대지 516㎡ • 건평 138㎡
- 실 사용 평수 약 500평
- 대출 4000만원
- 가액: 1억 (절충가능)
- 급 양도 합니다

010-4542-0902

##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나주시 광주 20분거리 무안 - 광주간 고속도로 IC 5분거리
- 대지 299평 총평수 637평, 전 건축물 목조 대웅전 29평, 요사채20평(방4,욕실1)
- 공양간 10평 방1, 해우소3평반 3칸
- 지하수 130미터 물수량 100톤 일급수
- CC카메라 9대시설, 사찰경내지 계곡물 흐름 잔디조경 완벽
- 사찰 진입도로 현 3m에서 2차선으로 진입 확정
- 가액 : 4억

010-9338-0118

## 토 굴 안 내

- 위치 : 부산시 해운대에서 20분거리
- 바닷가 5분거리 뒷산을 끼고 경관수려
- 별장 및 전원주택지, 채전밭 황토찜질방, 주차 6대
- 임법당 30평, 가건물 20평
- 토지 150평(등기 78평, 국유지 72평)
- 인근 대규모 아파트 개발 중
- 가액 : 1억 7천 300만원
- 법당 및 주방시설 완벽

010-4392-2468

##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서구 성당동
- 삼존불,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소불
- 영가단, 종, 음향시설, 냉 난방기, 조명 등 집기일체
- 2014년 11월 신조성, 건강상 문제로 급 안내
- 2차선 대로변 2층,
- 가액: 보 300만 월35만, 시설비 1,200만원 합 1천 5백만원, 절충 없음, 방없음

053-651-1514

##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 혁신도시
- 시내 10분거리
- 대지 300평, 대웅전 단청
- 건평 60평 1동, 50평 1동
- 방사10개, 종무소, 사무실 등등
- 가액 : 2억 5천만원 (대출 1억 포함) 교환도 가능

010-8725-3196

## 사찰(터)안내

- 위치 : 전남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 평수 : 378평
- 전망최고
- 가액 : 4천 5백만원

011-676-5376

##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대구 동구 효목로 11
- 아담한 법당 포교활동 최적지
- 평수 : 30평
- 가액 : 보증금 500백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0-7740-6004

##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은평구 불광동
- 평수 30평, 법당, 방2, 주방, 욕실
- 건물 4층, 옥상사용가능
- 아파트, 주택지역, 버스정류소앞, 전철3호선, 6호선
- 삼존불, 후불탱화, 지장탱화, 신중탱화, 기타 집기일체
- 가액:보증금 500만원 월40만원 시설비 1,900만원(절충가능)

010-9511-0840

## 사 찰 안 내

- 위치 : 밀양 IC에서 5분거리
- 평수 : 종교부지 300평, 임야 300평
- 법당1, 산신각1, 요사채1동 33평, 약사기도도량임
- 가액 : 2억 7천만원 (은행대출 6천 5백) (시설물 일체)

010-7183-0114

## 포교원 안내

- 위치: 서울 강남 최고 요지로 주변상권 좋음. 전철 10분 거리
- 양옥으로 포교원 겸 토굴
- 남향으로 깨끗하고 아늑함
- 정원조성 되어있음
- 가액 : 보증금 1,300만원 월세 18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259-8700

행복해지는 연습

쵸감 트룽파(티베트 승려)

〈7 · 끝〉 空의 진정한 의미

# "온전히 외로울 때 자기 스스로를 돕는다"

###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

프라즈나는 삶의 많은 문들을 열 수 있다. 프라즈나를 통해 우리는 공(空)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한다. 공의 발견은 매우 강렬하면서도 우리를 매우 두렵게 한다. 프라즈나는 공의 체험을 열어 주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이 코너에 몰리는 방식이다. 당신은 '이것' 안쪽으로 몰리고 또 몰리다가 마침내 더 이상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이 다만 벽을 뚫고 빠져나가지 않으면 안 될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당신은 벽을 공한 것으로, 빈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올 수 없을테니까 말이다.

공은 지성보다는 명상적 체험에 더 가깝다. 공은 자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으로 불린다. 공의 이해는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공이 당신에게 온다는 것이 맞다. 어떤 사람이 그의 지성(명료상과 예리함)을 어느 정도까지 발전시켰을 때 그에게도 공이라는 비존재를 보고 동시에 공의 충만함을 볼 수 있도록 일종의 토대를 준다.

당신은 이런 반문을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프라즈나가 베어내는 작업을 한 후에도 아직 남아 있는 것이 있나요?" 많은 것이 남아 있다. 잘라내는 과정 역시 폭로되어야 한다. 여행길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과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노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정도까지 말이다. 공은 진정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고 타협하지 않는다. 일단 당신에게 토대가 전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면, 제로라는 것을 알고 나면 당신은 공중에 떠있게 된다. 도와달라고 아무리 외쳐봐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다. 당신의 목소리 자체가 공이 된다.

이제 당신은 소리조차 지를 수 없다. 자신을 구하려는 당신의 행동은 존재하지 않게 된다. 베어내는 작업의 결과이다. 당신이 이미 너무 많이 잘라냈다. 마침내 당신 자신의 토대가 완전히 잘려나갔다. 그런 다음에는 자르는 과정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작업도 전혀 없다.

우리는 일반적 원리로서 내가 이전에 언급한 주체와 객체의 논리와 그들의 이원성을 이해해야 한다. 이원성은 두 개의 개별적 존재로 구성된 것이 아니다. 주체와 객체는 두 개의 다른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하나이다. 하나 안에 벽을 만듦으로써 우리는 이원성을 만든다.

공은 단지 '이것'의 팽창이다. 바로 그래서 그것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것'이 벽을 밀어내고, '이것'이 팽창하는 것이다.

당신은 물을지 모른다. "단지 '이것' 만이 존재한다며, 그것은 에고 없음(무아)이라는 일반적 생각과 갈등을 일으키나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에고와 에고 없음(무아)은 '이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실은 에고는 '저것'에 근거하고 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 에고를 만들었다. 그러므로 당신이 '이것'이나 '여기'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당신은 더더욱 토대가 없게 된다.

당신은 토대를 가질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처음에 이것은 겁나는 일이다. 나로파의 삶에서도 그와 유사한 순간이 있었다. 그는 승원에서 8년간 수련을 했고, 토론을 통해 구두시험에 합격했으며, 마침내 나란다대학의 학장이 되었다. 그 시점에서 그에게 한 추한 여인의 비전이 나타났던 것이다. 그것은 충격이었다. 갑작스런 충격, 전통적 해석에 의하면 이 여성은 공의 상징인 바즈라요기나였다. 공의 갑작스런 충격은 압도적이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그가 읽고 있던 책 위에 드리워졌다. 이것은 공의 공포스런 체험이었다. 수도없이 많은 자름과 벰을 겪은 후에, 너무나도 많은 프라즈나를 체험한 후에 마침내 당신은 구루를 찾을 수밖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음을 깨닫는다. 이것은 프라즈나, 즉 지성의 결과이다. 하지만 동시에 공 자체가 또한 지성의 한 형태, 최고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추한 여인의 지성은 당시 나로파의 지성보다 더욱 예리하고 간주되지 않는다. 그 차원에서는 더 많은 자비의 표현인 자각이 있다. 부드러움 또는 비공격성의 양상은 이해력이 매우 뛰어나게 되지만 날카로운 지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것은 행동 중인 프라즈나의 방식으로 예리하지는 않다. 그것은 말하자면 존재 상태로서의 프라즈나의 방식으로 예리하다.

물론 사건은 그처럼 선형적으로 일어나지는 않는다. 우리는 프라즈나의 체험과 공의 섬광이 우리 안에서 동시에 일어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토대를 잘라내고, 그리고는 너무나 무섭고도 두렵고도 갑작스러운 토대가 없는 상태를 흘끗 볼 수 있다. 그러고 나서도 우리는 다시 우리의 땅에 매달리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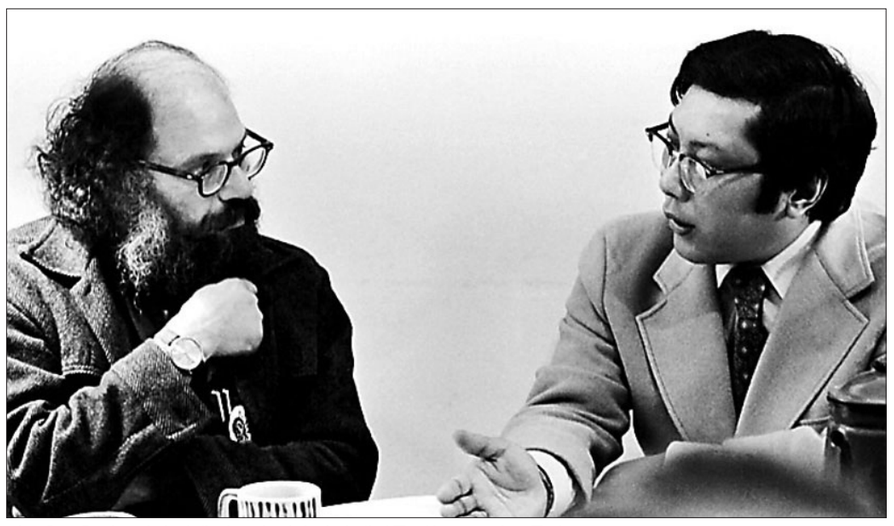
이런 일은 우리에게 쉼 없이 일어난다. 우리가 영적 수행길에서 일어나는 여정을 자각하고 있다면 말이다. 당신은 공포에 질리거나 현실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척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단지 공의 섬광이 일어나는 것이다.

공은 또한 여성 원리로, 모든 부처들의 배우자존으로 묘사될 수 있다. 프라즈나도 여성 원리로, 깨달음이라는 개념을 낳는 여성, 즉 모든 부처들의 어머니로 묘사될 수 있다. 이 개념은 바로 그녀 프라즈나에 의해 시작됐다.

하지만 부처들로 하여금 말을 하고 소통하게 만드는 것은 공이다.

왜냐 하면 공에는 많은 여유 공간과 열림과 토대 없음이 있기 때문이다. 토대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어떤 토대 위에 서있지 않다. 그래서 소통은 아주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다.

나로파가 추한 여인을 만난 후의 노래에서 각 행동은 중생적 삶의 속성들과 연관돼 있다. 그 노래는 나로파의 갇혀있다는 의식이 예리해졌음을 보여준다. 그는 공의 실재를 볼 수 없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는다. 그는 충분한 프라즈나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더 이상 도움이 안 된다. 그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중간한 상태에 남아 있다. 공이 없는 프라즈나는 팔이 없는 몸과 같다. 팔 없는 몸이 암벽을 오르려는 것과도 같다.



비트운동을 이끌었던 알렌 긴스버그(왼쪽)와 대화를 나누는 쵸감 트룽파.

**空이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아무런 체험 담지 않은 자각 꽉찬 동시에 '텅 빔' 의미 자신을 현상계와 동일시하는 것**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서 공의 진짜 정의를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 또는 아무런 체험을 담지 않은 자각이라 해도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공을 꽉 찬 동시에 텅 비었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비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저 에너지로 본다거나, 그래서 우리가 탁자나 의자를 뚫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 자신을 탁자로 의자로 바위로 하늘로 물로 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자신을 현상계와 완전히 동일화하기 시작한다. 우리의 존재는 그 현상들 중의 하나이다. 그래서 모든 것이 투명하거나 유동적이다. 단일성, 동일감이 존재한다. 동시에 차이감도 존재한다.

### 공의 체험

**학생1:** 공은 우리가 현상계와 동일화한다는 점에서 정념(마음챙김)과 같습니까?

**트룽파:** 아니요. 공이 마음챙김의 수행과 같다고는 할 수 없어요. 마음챙김 수행에서는 대체로 당신이 '그것' 즉 탁자나 의자에 투사를 합니다. 거기서 당신은 선동자예요. 하지만 공의 경우 어느 정도는 탁자와 의자가 선동자가 되지요. 그것들이 상기시켜 주는 자기가 되는 거지요.

**학생1:** 저는 마음챙김이 그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라 생각해요. 관찰은 하지만 성찰은 않는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마음챙김과 공이 동일하다고 생각했어요.

**트룽파:** 그런 의미에서는 같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좀 미묘한 것입니다. 마음챙김은 당신이 원조 선동자라는 생각을 담고 있어요. 즉 당신은 현상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챙김에 대해 생각합니다. 반면 공은 보편적 편재성을 가졌어요. 어디에나 자각이 있지요.

**학생2:** 공에서 자각은 있지만 체험은 없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트룽파:** 체험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집어들고 입에 넣은 다음, 그것을 씹고 삼킵니다. 우리가 체험을 슬로모션으로 본다면 방금 말한 것처럼 하나의 과정이 됩니다. 물론 개개의 행위가 매우 빨리 일어날 수는 있겠지만 슬로모션으로 보면 그런 단계를 포함합니다. 이런 체험의 내용은 개인의 삶에 맞게 변형돼야 합니다. 하지만 공에서는 아무런 변형이 필요 없어요. 말하자면 단번에 끝내는 거예요.

**학생3:** 공의 체험에서 토대가 없다면, 무의식적인 내적 작용이 없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극히 신선하고 새롭게 느껴진다는 뜻인가요?

**트룽파:** 최초의 체험은 새로울 거예요. 이전에는 그런 것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당신은 여전히 문제와 고뇌를 감소시켜 가는 중이니까 새롭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일단 공 안에서 어른이 된 후에는, 즉 프로가 된 후에는 사물을 새로운 것으로 보지 않고 아주 평범한 것, 그렇지만 세세함이 가득한 것으로 봅니다. 평범한 사물은 세세함으로 가득하지요. 만약 새롭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가진 새로움 때문이 아니라 평범함 때문입니다.

**학생3:** 그렇다면 신기한 일은 없군요.

**트룽파:** 세세함은 매우 신기합니다. 사물의 세부를 그 에너지 측면으로 온전히 보는 것에는 마하무드라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어 있음이 명상적 양상입니다.

**학생4:** 공 안에 과정도 없고 체험자도 없다면 가르침과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가르침을 과정에서의 기준점으로 이해하잖아요. 그런데 공에서는 그것마저 녹아 사라질 것 같거든요.

**트룽파:** 이곳이 바로 가르침이 당신 자신이 되는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가르침과 온전히 동일화됩니다. 당신 자신이 살아 있는 가르침이 되지요. 당신 자신이 살아 있는 다르마가 됩니다. 이 지점부터 금강승의 최고 차원까지는 그렇습니다. 가르침과의 쉼 없는 동일화가 있습니다. 가르침은 점점 더 당신 몸의 일부가 되고 뇌의 일부가 되고 마음의 일부가 됩니다. 가르침에 동일화될수록 기준점은 더욱 당신에게 쉼 없이 상기시켜 주는 자각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자각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르침과동일화됐기 때문에 자각이 당신에게 오는 것입니다.

**학생5:** 린포체께서는 자주 고독을 말씀하셨고, 수행길이 외로운 여행길이라고 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공의 체험이 최초의 고독 체험 같은데요.

**트룽파:** 그래요. 토대가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매우 힘들어요. '엄연한 사실' 또는 '냉정한 현실'이라는 것이 딱 맞는 말입니다.

**학생6:** 이 시점에서 수행은 좀 더 여유로워지나요, 스스로 만들어가게 되나요?

**트룽파:** 매우 그렇지요. 당신이 좀더 가르침과 동일화되면 수행은 자연스러운 습관이 됩니다. 공의 차원에서는 수행이 매우 유기적이고 평범하고 순발적인 것이 됩니다.

**학생7:** 선(禪)에서의 견성 체험은 공의 체험인가요?

**트룽파:** 그렇지요. 공의 체험의 정점이 견성이라고 생각해요. 공의 정상, 공의 진정한 체험. 논리는 다 사라져버리지요. 더 이상 논리도 없고 논리의 기준점도 없어요. 당신은 완전히 무(無)에, 또는 충만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견성 체험이고 문득 홀로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학생8:** 제게 공은 늘 거대한 외로움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린포체께서는 그것이 충만함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어떻게 그렇지요?

**트룽파:** 온전히 외로울 때 당신은 자신을 돕기 시작합니다. 외로움 안에서는 편안해지는 거지요. 당신은 주변의 온갖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공의 원리와 동일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편안히 있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정리=이나은 기자 oasis1983@hyunbul.com

이 글은 〈행복해지는 연습〉(솔바람 刊)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
- 대지 200평, 건평 1층, 요사채 35평
- 2층 법당 30평, 산신각 6평
- 아래채 황토방 2개, 화장실, 주방
- 집기 일체, 즉시법회 가능
- 조경 주차장 시설 완비
- 가액 : 4억 3천(융자 있음) (절충가능)

010-3186-0361

**사 찰 안 내(국유지)**
- 위치 : 서울 성북구 정릉동
- 대지 734평, 인법당10평 정도
- 방 8개, 화장실 3개, 시설완벽
- 주차 : 마당에 10대가능
- 연못, 방가로 시설
- 가액 : 6억(절충가능)

010-4918-2597

**토 굴 (터) 안 내**
- 위치 : 경북 청도군 매전면
- 임야 : 총 9,260평 중 계획관리 약 1,000여평
- 아름드리 소나무 숲
- 전기, 지하 암반수 완비
- 가액 : 일억 일천만원

010-8998-966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이천시 대포동
- 대지 : 189평, 법당 23평 요사 : 35평
- 창고 및 암반수. 시내 7분거리
- 가액 : 2억 3천만원

010-2813-1381
010-3194-3738

**포교원 선원**
- 위치 : 부산 금정구 남산동 전철역2분거리
- 4층 건물 중 2층, 약 50평, 큰 선방1, 방3개, 거실 및 주방
- 정남향, 조용함, 명상센터로 최적지, 주차장 있음
- 깔끔, 최신인테리어, 냉방, 바닥 필름 난방
- 가액 : 전세 1,500만, 월 60만원 (절충가능) 시설비 3,000만원

010-9317-9199

**사 찰 안 내**
- 위치 : 도청 신도시 예천 물 좋고 공기좋은 상리
- 연꽃피는 아담한 사찰
- 대지포함 토지 총1.000평
- 몽땅 1억 8천

011-861-625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동상동
- 평수 : 대지 248평, 법당 23평, 요사채 2동
- 텃밭(마당 잔디), 방가루, 조경, 전망 좋음
- 시청,은행 등 관공소 도보 10분거리 뒷산 지상공원 확정
- 가액: 대출 3억 안고 양도 4억

010-5019-5385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선남면 연봉산자락
- 대지 400평, 법당 40평, 창고 30평
- 불상및 비품시설완비, 주차시설완비
- 아득하고 조용한 남향터
- 가액 : 1억4천만원

054)931-4449
011-543-2161
010-3123-3113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달성군 현풍면 소재
- 평수 : 374평(종교부지), 강변 야산에 50년된 암자
- 테크노폴리스, 고급기술 산업단지와 연구시설이 집중된 작은도시
- 재래시장, 정류장은 도보로 10분거리
- 가액 : 2억(절충가능)

010-3536-6333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도 팔리어로
큰절할 때, 땀 흡수를 위해 방석위에 덮어 놓는
특허 제30-0606220호
참회진언 타올




참회진언 대타올 및 가방
70×138cm, 450g, 30수, 20,000원

특허청 디자인등록 제30-0606191, 220호




큰절할때 참회진언 타올
40×80cm 160g 30수 5,000원
얼굴과 손을 닦을 때 세수면진언 타올

※ 타올에 인쇄 합니다

제일자수타올공업 t.043)644-1102
팩스.0505-115-1616 / 농협421012-52-195511 박희철(010-5481-0194)

**무료공개강좌**

(연결카페 http://cafe.naver.com/baikamsa 백암역리원)

영가천도는 반드시 본인과 관련된 영가를 천도해야 영험이 있다.

간단하고 쉽게 영가를 찾을 수 있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은 전래비법과 사주로 찾는 법. 생년월일만 알면 찾을 수 있는 간단한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 대 상 : 명리왕초보반(영가기초 포함)
영 가 특 강 반(포교원 운영자)

■ 강의내용
① 한 맺힌 조상 찾는법, 조상(귀신)이 발동한(대.세운) 것을 아는 법
② 천도는 얽히거나 장애가 있는 곳에서 해야 효험이 빠르다.
③ 무속인의 주장신도 알 수가 있으며 영가를 정확하게 뽑아낸다.
④ 결혼이 안되거나 결혼을 해도 풍파가 많은 가정
⑤ 신경성, 우울증 등으로 마음안정이 안되거나, 공부가 안되는 학생

**명리왕초보반강좌**
- 듣기만 해도 기억되는 쉬운오행풀이, 한자 몰라도 됨
- 기초반 2개월과정 모집 – 수강료 2개월 30만원
- 기초가 없으신 분은 초보반 수강후 영가반에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백 암 역 리 원**
02)597-1101.010-9150-2284
7호선 신대방삼거리역 1번출구 (성대시장 성대마트앞) – 서울 동작구 상도동 315-5

# “난 안돼”… 한숨은 짧게 끝내요



## 남들보다 못하는 일이 있어도 한심하게 여기지 않겠어요

I won't beat myself up when I am not as good as others at something.

동화의 아버지로 불리는 안데르센(Hans Christian Andersen, 1805~1875년)은 덴마크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는 거리를 떠돌다가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안데르센의 삶은 평생에 걸쳐 불행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목소리가 좋아서 가수가 되려 했지만 변성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말라빠진 몸과 허름한 옷차림 때문에 남에게 눈총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얼굴은 못생겨서 짝사랑하던 여자들에게 번번이 퇴짜를 맞았습니다. 안데르센은 자기 자신이 못났다는 생각에 평생을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안데르센에게는 천재적인 상상력이 있었습니다. 민간에 떠다니는 전설에 자기만의 독특한 상상력을 더해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동화를 썼습니다. 안데르센은 못생긴 자기를 작품 속에 반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미운 오리 새끼」는 자기 자신을 빗대 만든 동화로, 만약 얼굴이 잘생겼다면 절대로 쓰지 못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안데르센처럼 내가 못났다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열등감이라고 합니다. 안데르센뿐만 아니라 사람이라면 거의 모두가 이런 감정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한숨 쉬는 시간이 길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안데르센이 계속 열등감에 빠져서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하며 한탄만 했다면 우리는「엄지 공주」,「백조 왕자」,「눈의 여왕」,「인어공주」와 같은 훌륭한 작품들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 안데르센의 동화 가운데 감동적으로 읽은 작품은 무엇인가요?
* 어린이들은 어떤 열등감을 갖고 있나요?
* 열등감 때문에 괴로웠던 적은 언제인가요? (어떻게 극복해 냈나요?)

## 나만의 특기를 찾아서 가꾸겠어요

I will find what I am good at and try my best.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인 데모데네스(Demosthenes, 기원전 384~기원전 322년)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으로, 뛰어난 연설가였습니다.

데모데네스는 부유한 대장장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7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많은 유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데모데네스의 법적 보호자가 유산을 탐내서 모두 가로채 버렸습니다. 데모데네스는 청년이 되어서 법적 보호자를 고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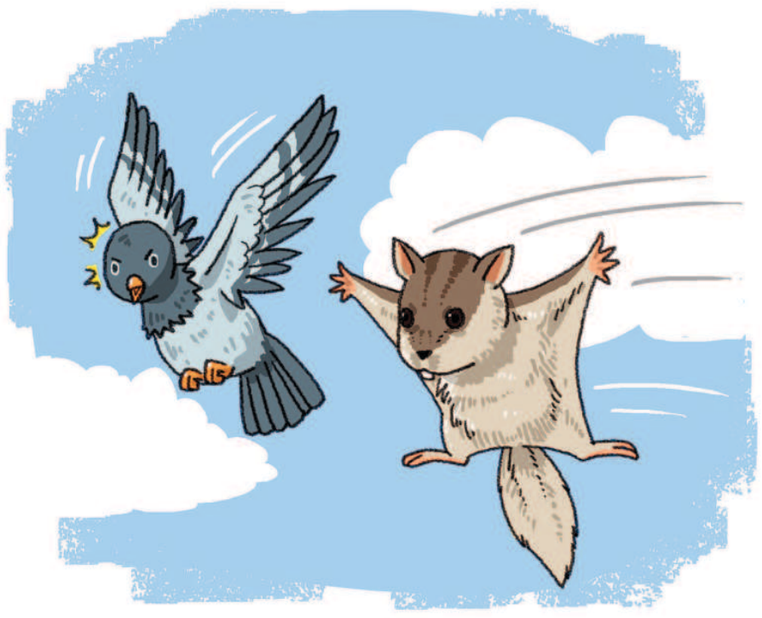
당시 그리스는 누군가를 고발하려면 직접 대중 앞에 나가서 고발할 사람의 죄를 낱낱이 밝혀야 했습니다.

데모데네스에게는 커다란 약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심하게 더듬거리는 것이었습니다. 남 앞에서 연설을 했다가는 손가락질을 받을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데모데네스에게는 남이 갖지 못한 커다란 장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끈기였습니다. 데모데네스는 곧바로 법률 공부와 말 잘하기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더듬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자갈을 물고 연습을 했습니다. 마구 달리다가 숨이 가쁠 때 시를 읊어보기도 했습니다. 얼굴 표정과 손짓도 연습했습니다.

오랜 연습 끝에 대중들 앞에 섰지만 첫 번째 연설은 엉망이었습니다. 얼굴이 빨개졌고 아무 성과도 없이 돌아와야 했지만 데모데네스는 포기하지 않고 또 다시 맹훈련에 돌입했습니다. 마침내 데모데네스는 법적 보호자의 죄를 밝혀냈습니다. 비록 법적 보호자가 돈을 모두 써 버려 재산을 되찾지는 못했지만 데모데네스는 그리스의 내로라하는 연설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외모나 신체가 남보다 조금 못하다는 이유로 쉽게 자신감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돼’, ‘자신 없어’ 하고 주저하지 말고 남보다 잘할 수 있는 특기를 찾아보기 바랍니다.

* 데모데네스가 명연설가로 성공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 여러분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특기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 여러분이 갖고 있는 특기를 이용해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요?





## 내가 남들보다 조금 잘하는 것이 있다고 우쭐대지 않겠어요

I will not be arrogant when I am better at something than others.

이솝우화 가운데 거북이와 달리기 경주를 한 토끼가 자기 재주만 믿고 우쭐대다가 패배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우쭐대다가 망한 사람의 이야기는 아주 많습니다. 기원전 5세기에 살았던 리디아 왕국의 크로이소스(Croesus, ?~기원전 546년경) 왕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리디아 왕국은 현재의 터키 서쪽지방에 있던 큰 나라였습니다. 상업으로 일어난 강대국이었고 금과 은으로 동전 만들기를 발명했습니다.

어느 날, 왕국에 그리스의 현자로 알려진 솔론(Solon, 기원전 640~기원전 560년경)이 찾아왔습니다. 크로이소스 왕은 현자라고 칭찬받는 솔론을 우습게보고 부와 권력을 자랑하며 우쭐댔습니다.

“현명하다는 말을 듣고 살지만 지금은 내가 차려주는 밥과 내가 준 침대를 쓰게 생겼군. 현명하다고 해 봐야 부와 권력만 하겠나? 나는 보물창고가 수십 개나 있어. 게다가 권력도 대단하지.”

솔론은 점잖게 충고했습니다.

“큰 행운만 믿고 교만하면 언젠가는 망합니다. 왕께서는 이제껏 부와 권력을 누리며 복을 받으셨으니 언젠가는 불행한 일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겸손하시지요.”

크로이소스 왕은 얼굴을 붉히며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왕에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끼던 아들이 사냥터에서 경호원의 창을 맞고 죽은 것입니다. 불행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동쪽에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였다가 크게 지고 나라를 잃었습니다.

재주가 많고 가진 것이 많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믿고 우쭐대며 남을 업신여기면 복은 사라지고 진실한 친구는 모두 떠날 것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거나 내가 가진 것을 잃었을 때는 실망도 클 것입니다. 우쭐거리는 것보다 허리를 굽혀 겸손한 게 더 지혜롭다는 말을 되새겨 보았으면 합니다.

* 여러분은 우쭐대 본 적이 있나요? 왜 그랬나요?
* 반대로, 우쭐대는 사람을 보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 우쭐대는 사람에게 해 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 자연산 구지뽕
## 묘목 분양 (3년, 5년생)

**무노동으로 (2,000평) 연봉 1억이상 가능!!**

- 구지뽕 나무는 잎파리, 가지, 열매, 뿌리 등 전체를 건강식품, 약재로 쓰고 있습니다.(고혈압, 당뇨, 근골강화, 면역력 증진에 특효)
- 최고 소득 작물로써 자연산은 한번 심어 놓으면 300년이상 사찰자립에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500년 이상도 가능)
- 무농약, 무비료, 무퇴비로 키워야 더 좋음으로 **사찰자립, 귀농귀촌,** 은퇴 후 생활에 최적의 고소득 효도나무입니다.

▶3년생 7,000주 ▶5년생 5,000주 보유중

## 개복숭아 묘목분양 (1년생)





- 강원도 350고지 이상의 **토종 자연산 씨앗**으로만 발아
- 무농약, 무비료 노동력 無
- 열매솎기, 밭매기가 전혀 필요 無
- 꽃이 황홀해서 관상수로도 최고!
- 한번 심어 놓으면 150년이상 수확 (300년 가능)

※ **전국 최대 묘목 보유!** (50주이상 주문 부탁)

구입문의 010-9608-2356(충주농원)

입금계좌 : 농협 123-02-311652 (이상국)

# 제9기 영남전통범음·범패 교육과정 수강생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에서 2015년도 초급 · 중급 · 고급 과정생을 모집합니다. 영남불교의 전통의식 범음범패, 작법 (바라춤, 나비춤) 등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1. 교육기간 및 과정**

가. 초급과정(2개월) ■ 송주 : 도량석, 종송 ■ 예경 : 칠정례, 오분향례, 각단 예불 ■ 권공 : 삼보통청, 상단 중단 권공, 각단불공, 요령, 목탁

나. 중급과정(4개월) ■ 시련, 삼신이운(괘불이운), 대령, 관욕, 옹호게 (신중작법 39위, 104위), 당일천도, 49재, 지장청, 시왕도청, 전시식, 관음의식, 상용영반, 화엄시식, 구병시식, 봉송편

다. 고급과정(6개월) ■ 바 라 춤 :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화의제바라 ■ 나 비 춤 : 오공양, 유원승, 요잡작법 ■ 사 물 : 태징, 북, 광쇠, 호적(태평소), 전통의식타법, ■ 특 강 : 종사이운, 종사영반, 점안의식, 시다림(다비), 예수재의식 등

라. 강 주 : 석법운 스님

**2. 개 강**

■ **매주 목요일 (수시모집)**

■ **수업시간** : 초 급 과 정 :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오후 1시
중급 · 고급과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

**3. 입학자격** : 종단과 승 · 속 관계없이 누구나 가능

**4. 수 강 료** : 교육비 10만원(교재비별도)

**5. 제출서류** : 입학원서 1부(본 총무원에서 교부)

**6. 강의장소 및 접수처** :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9길 28 (복성리 1095)
대한불교응공조계종 총본산 총무원 동명사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7. 접수기간** : 상시모집

**8. 문 의 처** : 010-3544-2605
TEL 054) 974-2605
FAX 054)974-2705



**영남전통 범음 · 범패 교육원**

# 희담석 건강용품 – 염주세트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45,000원~~ (희담석 합장주, 염주)
⇨ 35,000원
· 크기 : 직경 12mm

*** 희담석 100% 활용 방법 –**

희담석(염주, 합장주 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능인로즈마리 · 능인라벤더

능인향당의 향은 불자의 불심로 제조된 순수 원향입니다



능인로즈마리는 항균, 살균작용이 뛰어나고 향기가 풍부해서 살충제를 겸한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꽃입니다. 특히 목욕할 때나 거실에서 로즈마리 향을 사용하면 신경을 이완시켜 편안한 기분을 느끼게 해줍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 기술을 바탕으로 로즈마리의 특징을 살린 천연향으로, 로마 요법과 방향성의 기능을 지닌 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능인라벤더는 정신안정과 피부 개선에 효과가 있고,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능인향당의 순수 원향을 바탕으로 천연 라벤더 꽃에서 추출한 최고급 에센스를 첨가하여 그 향기가 은은하고 자연스러운 것이 특징입니다.

· 각 15,000원
· 규격 : 약 14cm (연소시간 약 35분)
· 용량 : 약 170개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대행 스님



# 우리 생활 그 자체, 자기 움죽거리는 그 자체, 모두가 참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한자릴 하게 된 것을 아주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말씀이 있어서 지루하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요다음서부터는 간단히 했으면 좋을 듯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한 말씀 드릴 것은 우주의 모든 근본 자체가,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바로 우리 마음 근본에 직결돼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만사의 살림살이는 우리 마음 근본에 가설이 돼 있고요. 그럼으로써 어느 종교를 막론해 놓고 그것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이 종교다 저 종교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위안하고 그러기 위해서지, 그렇게 진리를 탐구하고 자기를 발견해서 우주의 모든 탐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데는 진리를 실험하고 바로 체험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 속에 있으니까요.

불(佛)이란 우리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되고, 교(敎)란 우리가 서로 잇고 말을 하는 것을 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이라고 한 뜻이죠. 그럼으로써 저 나무 하나, 저 풀 한 포기, 저 꽃 한 송이, 불교 아닌 게 없습니다. 이번에 케네디 대통령 묘지에 가 보니 너무도 불길이 활활 올라왔습니다. 당신은 살아 온 것이 없기 때문에 죽어 간 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는 그 불을 영원한 불로 봤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믿든지 그 믿는 거는 탓 안 합니다. 단, 어떠한 종교를 믿든지 이 진리는 꼭 우리가…, 인간이 이렇게 살아나가는 데에 그냥 갈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우리 이 만물만생이 그렇게 직결돼 있는 근본, 바로 여러분의 주처인 것입니다. 불가(佛家)에서의 본래자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처인 것입니다. 한마음, 주인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기독교 가톨릭교 믿는 분들은 바로 주님이 되는 것이고 바로 내 님이 되는 것이며, 내 님은 모두, 일체가 공생 · 공용 · 공체 · 공식화 하고 돌아가고 있으니 개별적인 나 하나가 아니라 포괄적인 하나이기 때문에, 한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불교다 불교가 아니다, 가톨릭교다 기독교다, 이런 상표 하나 붙여 놓고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들은 좀 속이 넓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국민으로서 여기 타관에 와서 이렇게 살아가느니만큼, 종파를 초월해서 한인으로 우리가 서로 단결해서 이렇게 한마음으로 이어 가면서 뭉쳐야 살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나는 여기 와서 '우리 한인 동포는 어찌해서 한마음으로 단결이 안되고 뭉칠 수 없었을까. 왜 그렇게 단결이 되지 않고 제가 끔들 헤어질까.' 하는 거를 너무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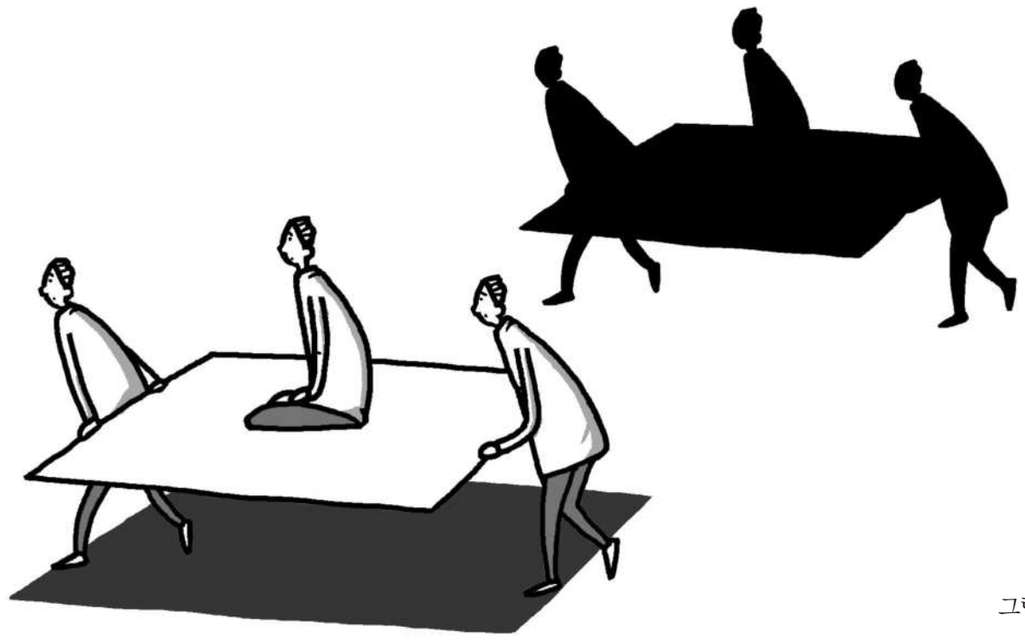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그러니 '종교를 믿는다'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재료도 있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바로 자기를 끌고 다니는, 과거에 살던 그 영혼이 바로 지금도 현재의 자기를 끌고 다닙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없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니까 없고 현실도 모두, 우리가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남도 먹는 것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색(色)이, 이 물질이 공해서 그렇게 나투어 돌아가고…. 그 공이 바로 물질이니라 하는 걸 색(色)이라 표현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을 기르려면 과거에 살던 부(父)와 지금 현세의 내 마음, 그 자(子)와 만남이 있어야 진짜 공부를 할 수 있다 이 소립니다.

내가 언젠가 한번은, 공부라고 하기 이전에 그저 어떡하다 보니깐 산골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묘지가 이렇게 둘이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 이건 아비의 묘지, 이건 자식의 묘지 이렇게 놓고 '이게 구멍이 뚫렸는데, 네가 생각을 내고 일을 할 때는 자로 하나가 되고 또는 생각을 하질 않고 고요하게 할 때는 바로 부로 하나가 되느니라. 이런 연고는 무엇인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그때 대답을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흘을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 대답을 못하니까요. 그러다가 문득 생각을 했습니다. '아하! 모두가, 영을 만 개를 그려 놔도 한 개도 없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영원한 생명의 근본은 체가 없을 것이고 자의 마음도 체가 없으니, 일을 할 때는 일하는 자로 하나가 될 것이고, 일을 안 할 때는 부로 하나가 되니 이렇게도 하나 저렇게도 하나,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리가 뚝 떨어지고 엉덩이가 뚝 떨어졌지만 다리가 굳어서 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것은 그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생활하시는 그 자체가 마음이 편안하면 좌선이요, 여러분이 똥 누고 먹고 자고 일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그대로, 한 치도 틀림없이, 일 초도 어김없이 참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죠. 남악회양 스님이 마조 스님한테 "아무리 틀고 앉아 있는다 해도 좌선만 한다고 네가 부처를 이루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하도 답답해서 기왓장을 가지고 앞에 가서 싹싹 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마조 스님이 하도 답답해서 "그 기왓장은 갈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걸 갈아서 거울을 만들련다." 하니까 "아니, 스님도 망령이 나셨소?" 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게 거울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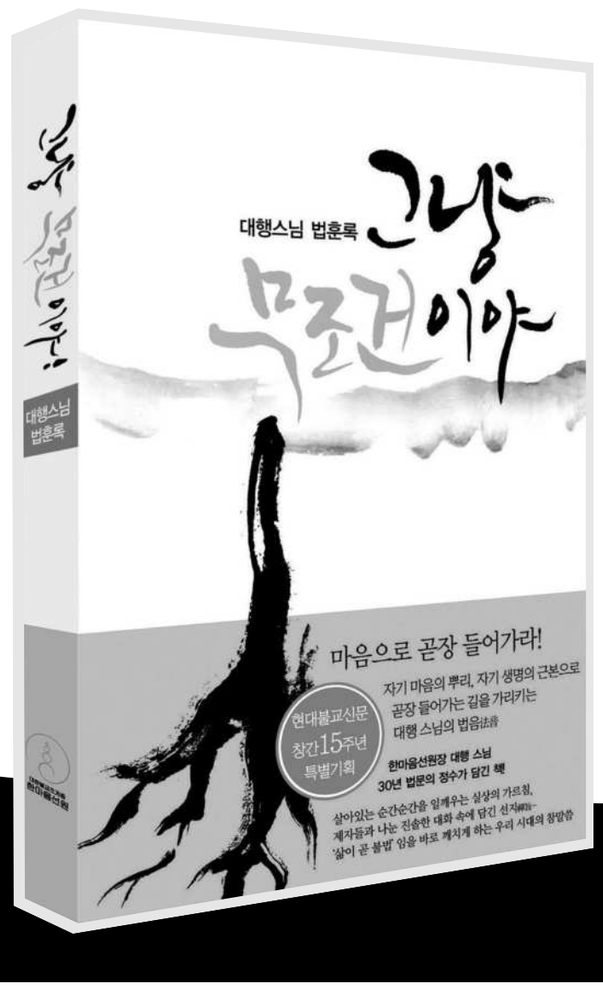
그러자 스님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틀고 앉아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부처를 이루려고 합니다." "네가 부처를 이루려면 오줌이 마려워도 일어나지 말고, 먹을 때도 일어나지 말고, 아예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선이 되는 거지 어떻게 선이 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야 무릎을 탁 치고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 그때는 생활 그 자체, 자기 움죽거리는 그 자체, 자는 자체, 앉는 자체, 서는 자체 모두가 참선이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마조도 깨달았고 그렇게 모두가 통달이 돼서, 즉 말하자면 구경경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 살림을 하는 여러분도, 지금이 어느 시댑니까?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꼭 기복으로 가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또. 어느 신부님이 저더러 이렇게 묻더군요. "귀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귀신 짓을 안 한다면 귀신이 없을 것이고 귀신 짓을 한다면 귀신이 있을 것입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고상을 걸어 놓고 해도 그렇고, 우리가 고해성사를 해도 그렇고, 그건 위안은 될 수 있지만 자기가 죄업은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보고도 '부처님, 해 주십시오.' 하고 기복으로 아무리 해도, 밥을 아무리 올려놓고 빌어도 그것은 절대로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부터 전화통을 놔야 남의 전화통에서 전화가 오고 전화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나로부터 이 세상이 벌어진 거고 나로부터 바로 상대성 원리가 생긴 것이지 내가 없고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사대 성인들의 그 마음의 속을 알려면 나부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세상살이 살림살이, 천차만별로 돼 있는 이 살림살이의 모든 근본이 인간의 마음에 가설이 돼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변천하고 이렇게 인공위성을 띄워 놓고, 즉 말하자면 전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두루 하는데 이 마음이라는 그 마음, 한마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묘한지, 빛보다 더 빠르고, 이 세상을 다 준대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러

☞ 30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3(수송동) 2층 **현대불교 현불샵**

# 우주와 더불어 직결이 돼 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 29면에서 계속

분의 주처입니다. 그 보배를 믿지 않고 그렇게 타의에서 구하는 그런 행을 하신다면 우리가 불교인이든 누구든 간에 어렵습니다.

앞으론 점점 정신계로 치닫는다는 이 사실, 여러분이 잘 아시겠죠. 아마도 마음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한 다리 걸쳐서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서 쓰기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컴퓨터가 아마 그대로 조절을 할는지도 모르죠. 그 도리가 그대로 부처님이 49년 설해 주셨고, 또는 사대 성인들이 다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편집을 잘못하고 인식을 잘못하고 그래서 모두 갈라지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그러는데, 옳다 그르다가 붙는다면 이 진리를 실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체험도 못합니다.

자기를 놓고 자기가 볼 때에, 보십시오. 이 몸뚱이 속의 세포 하나하나마다, 간편히 생각한다 해도 13억이나 16억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마는 그 숫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 또 생명이 들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의식 하나가, 무의 세계의 무심 도리를 생각한다면 그 의식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원자에서 입자가 나와서 두루 할 때, 바로 분자로 화해서 모든 내 털구멍을 통해서 인간도 모두, 지구의 대기처럼 세 단계로 나누어져서 하나는 책정하는 소임을 갖고, 한쪽은 통신하는 소임을 갖고, 한쪽은 들이고 내는 데 작업을 맡았습니다. 우리의 몸뚱이에서도 바로 3미터 이내로는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혹성이 아주 그대로 잘 다닐 수 있는 겁니다. 땅에다 발을 붙이고 모두 있는 것이죠. 그러고도 또 세균성이나 영계성이나 유전성 또는 업보성 인과성, 이 모두를 커버하고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편히 걸어다닐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행기 가는 거를 보십시오. 쭈욱 굴러서 가죠? 그게 왜 쭈욱 굴러서 갑니까? 그냥 뚝 뜨지. 그 생명들이, 그 의식들이 얼마나 이 허공에 꽉 찼는지 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압력을 받아서 터질까 봐 그냥 굴러가는 것입니다. 간단히 표현하자면.

우리 마음세계에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돼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셔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살아나온 거는 과거에 입력이 됐기 때문에 바로 우리 지금 살아나가는 현실에 그 입력된 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입력된 게 나오는 것을 다시 입력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앞서 과거에 입력된 것이 바로 소멸되는 거죠. 그와 더불어 우리가, 말하자면 지수 화 풍 이것이, 바람과 흙과 불과 물, 이 네 가지가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물질은 전부 다 그렇게 바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광력이나 전력 자력 통신력이 그 바탕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재료로 여러분 앞에 주어져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거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 그렇게 있는 거 때문에, 바로 불가에선 오신통이라고 합니다마는 이것을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려면 컴퓨터는 숙명통, 무전통신기는 천이통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숙명통 천이통 신족통 타심통 천안통, 이 다섯 가지를 바로 오신통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바로 누진으로다가 굴린다 이렇게 불가에서 말을 합니다. 그거를 레이더망으로 비유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쳇말로 말을 하자면 컴퓨터 탐지기 팩시밀리 또는 무전통신기 천체망원경,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가 시스템이 돼 있어서 하나하나 여러분 몸에서, 벌써 마음에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책정하고 모든 것을 들이고 내는 소임을 다 맡아 가지고 누진통에서 통

옳다 그르다가 붙는다면
이 진리를 실험도 못할 뿐만 아니라
체험도 못합니다

신을 하면 이 사대(四大)에 다 통신이 됩니다. 이 도리를 알게 되면 이 내부에, 사대에 다 통신만 되는 게 아니라 첫째, 내 몸에서 전부 이 공장으로, 아니 세계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위 공장이나 장 공장이나 식도 공장, 심장 공장, 소장 · 대장 공장, 방광 공장 뭐, 콩팥 공장 척수 공장 척추 공장, 이 모든 공장이 만약에 한 군데만 마비가 돼도 그 회사는 다 망하는 겁니다. 이 몸이 망가집니다, 이 몸이 회사라면.

그러면 회사 직원은 어디 있느냐? 그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이 아니라, 내가 아니라 내 집은 바로 그 중생들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는 대로 입을 통해서 먹여 주고 움죽거려 주고…. 어떻게 생각하면 심부름꾼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시자라고도, 이 불가에선 시자라고도 할 수 있죠. 몸뚱이가 내가 아닙니다. 나를, 몸뚱이를 이끌고 다니는 참나 자체, 주처가 있습니다.

그전에 제가 천주교에 입교해서 다닐 때 고해 성사를 해도 그렇고 아니,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을, '주님' 한다면 꼭 예수님만 주님이 아니라 천체가 하나로 돌아가는 자체를 뜻합니다. 우리나라엔 단군이 그 모든 살림살이, 농사짓는 거 효도하는 거 충성하는 것을 다 가르쳤고, 그 다음에 무(無)의 법 유(有)의 법을 한데 합쳐서 모두 중용을 하는 것을 가르친 분이 바로 부처님이시라고 하는데, 예수님도 또한 여러분한테 그렇게 지극하게 몸을 던지면서까지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실천과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천만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잘하신다고 하더라도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앞으로 무의 세계의 무심 도리를 모르신다면, 50%의 유의 세계의 물질세계만을 여러분이 가지고 산다면 앞으로 점점 살기는 희박해질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종교다 무슨 종교다 이거를 탓할 게 아니라, 이거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럴 게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이런 거 아십니까? 둘이 아닌 도리. 나 아님이 없고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고 내 몸 아닌 게 없는 그 도리. 그 도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할 텐데 그걸 말만 들어서 알지 직감적으로 내가 느껴 보지 못했고, 그것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리가 터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도 어떻게 사흘을 못 가. 그러니까 보십시오. 수억겁 광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미생물에서부터 수없이 쫓고 쫓기면서 진화됐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일 나중에 났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부모가 안 돼 본 게 없고 자식도 안 돼 본 게 없고 형제도 안 돼 본 게 없으니, 그걸 비유할 때 '야, 우리 가정만 내 부모 내 자식이지 다른 건 쓸데없다.' 이러지마는 넓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없는 억겁을, 광년을 거쳐 오면서 얼마나 많이 자식이 됐었고 부모가 됐었나. 형제가 됐었나.

우리가 뜬구름이 한 무더기 모였다가 그것이 헤어지면 딴 구름끼리 또 모이고 이러듯이, 한 생 살면서 몸을 벗으면 벗는 대로 또 그렇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내 부모 아님이 없고 내 자식 아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아픔 아님이 없고 내 자리 아님이 없으니 너희들 모두가 사랑하라 했습니다. 그건 기독교뿐만 아니고 또는 가톨릭교뿐만 아니고, 불교든 어떤 교를 막론해 놓고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는데, 네 마음의 물리가 터진다면, 증득한다면 바로 부와 자의 만남이 있고, 만남이 있다면 네 씨가 너에게 들어 있는 줄 알고 둘이 아닌 도리를 알고 둘이 아닌 나툼을 할 때, 무의 세계와 유의 세계를 한꺼번에 한 손에 쥐고 중용을 할 때 비로소 참자유인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부처라고도 하고 자유인이라고도 하고, 그것이 참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이끌어 나가면서 제도하며 바로 남도 제도할 수 있는 그런 영력을 키워서 사랑할 수 있는 그 도리를 완전히 터득해야 여러분은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고 변함없이 둘이 아닌 도리를 알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이런 교를 비방하고 저런 교를 비방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전부 생명은 다 똑같고 귀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으로 비방을 하고 그런 자는, '아유, 저런 사기꾼. 저런 건 죽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은 사람은 차에 깔려 죽고 '아유, 저분은 참, 이 세계의 왕 같아.' 하고 생각을 한 사람은 진짜 왕이 됐답니다. 여러분이 마음 한번 잘못 쓰는 데에 구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구덩이에서 빠져 나올 수도 있는 그런 한마음의 보배는 뭘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여러분의 보배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 놓고, 우리가 지금 살아나가는 데에 이 몸뚱이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섯 가지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이 나든 어떠한 문제가 되든, 가난하든 남하고 싸움이 생겼든 또는 뭐가 벌어졌든, 법적으로 어떠한 것이 벌어졌든 얼마나 천차만별로 많습니까. 자식을 기르는데 공부를 안 한다거나 나가서 나쁜 짓을 한다거나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걸 방지하십니까? 말로만, 그리고 돈만 가지고 해결을 하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주처에 맡기시고 자기 주인공에서 나오는 거 주인공에다 맡기고, 거기서밖엔 해결 못한다고 믿을 때, 물러서지 않을 때 바로 그건 해결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가설이 돼서 불이 들어오듯, 내 한 가정이라 하면 부모가 자식인 줄 알고 자식이 부모인 줄 알고 형제인 줄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는 이 진리 속에서 그 근본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마음의 근본에 있기 때문에 자식인 줄 알고 부모인 줄 안다. 이것이 가설이 돼 있다는 얘깁니다. 쪼그맣게 따진다면 한 가정에서 이게 자식이라는 걸 알고 있는 게 가설입니다. 그렇게 가설이 돼 있는데 내 마음의 그 주인공이 어떻게 둘입니까? 둘이 아닙니다. 영, 영, 영, 영 해도, 만 개를 그려 놔도 둘이 아닙니다. 공했습니다. 그러니 그 스위치, 자기 주인공에 맡기면서 '주인공은 둘이 아니니까 한마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밖엔 없지.' 하고 믿을 때, 뭐든지 용도에 따라서 거기 맡겨 놓을 때 기독교 믿는 사람은 정말 하느님을 맛볼 것이고 불교를 믿는 사람은 참자기를 만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자기 부(父)의 자리이니 바로 자와 부가 만남이 있어야 진짜 공부를 하거든. 그래서 불교에도 장자 설법이 있는가 하면 부자 설법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의 그 마음이 내 종교다 네 종교다 하는 거지, 진리를 볼 때는 하나도 없어요. 둘이 아닌 까닭이죠. 높은 산이 있으면 얕은 산이 있고, 얕은 산이 만약에 없다면 높은 산이라는 언어가 거기 붙어 돌아갈까요? 그렇기 때문에 평등한 거죠. 이 세상에 어떠한 산도, 보십시오. 고목도 있고 벌레 먹은 것도 있고 시퍼렇게 청청한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물도 흐르고 짐승도 살고 모두 이러기 때문에 조화를 이루고 아주 그것이 삶의 보람을 느끼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회상해 볼 수도 있고, 거기에 더불어 같이할 수 있는 그런 큰 뜻을 이룰 수도 있는 거고 연구도 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작다고 쓰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상 차릴 때 종지가 없으면 간장을 못 담듯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만약에 죄가 있다면 모르는 게 죄지 죄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병이 어디 붙을 자리가 있으며, 업보가 어디 붙을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까. 업보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모가질 딱 매서 그렇게 올가미를 씌워야 속들이 시원한지 난 모르겠습니다. 업보 붙을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비행기가 지금 떠서 프로펠러가 사정없이 돌아가는데 거기 먼지 앉을 자리가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정됨이 없이, 지금도 이렇게 앉아 있는데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법상을 치시며) 이것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너무 길게 여러분을 지루하게 해서, 지금 이쯤 해 놓고 어디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들어 보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1년 3월 31일 시카고지원 개원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 루 자 죽 염 125g 40,000원
가 루 자 죽 염 230g 7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125g 43,000원
알 갱 이 자 죽 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문화관광부 허가 등록번호 : 37221-00249
육조혜능 조계선맥 계승자 제26세 전법 전수제자

(사)한국불교전통조계종
입 종 안 내



총무원장 무공당 혜봉

불심을 하나로 모아 불국정토(佛國淨土) 이루고자 네가지 큰서원(四弘誓願)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重生)의 책무로 창종의 변을 알리며 부처님의 불법을 함께 펼쳐나갈 사찰 및 종도님(승려, 법사, 포교사, 보살님)을 널리 모십니다.

입종서류
- 사암 및 승려, 법사님 등록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뒤 사본 1통.
- 법당사진(내,외) 각 1매. (사찰등록 하실 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은 분에 한하여 발급.
- 사진(반명함판) 4장.
- 종단 간부 직위 맡으실 스님 우선적으로 모십니다.

한국불교전통조계종 개인사찰보호법 중에서 -
개인사암은 개인자산으로 인정하고 개인자산과 사찰관리감독을 주지임의로 행사하며 재산권에 보증 또는 총무원에서 관여하지 않으며 일체 주지 권한으로 운영한다.

총본산 : 한국불교전통조계종 총무원 연봉사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556-1
문의 : 전화 054)262-5060, 262-4848
팩스 054)262-0067
총무원장 혜봉 스님 직통 010-3545-5060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상 / 대한민국 발명특허대전 동상 / 특허청장상 수상 CE 인증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전동운반차의 선구자! 근우테크㈜



KW-B4D300DP(덤프&리프트 겸용)



4륜구동의 강력한 파워



보조파이프 옵션
KW-BRD300



360° 제자리 회전
평지 200kg 운반가능
KW-BS200

사찰 사용 모습



경사지 공양 제수 운반 / 고소 연등 설치 / 전지브레이크 장착으로 내리막도 안전 / 오르막 오를 시 수평유지

"전동운반차 1회 충전으로 3~4일 운전 가능"



싸스펜션 (강력한 추진력)

"사찰에 최적화된 다섯가지 특장!"
1. 안전한 공양 및 제수 운반!
2. 간편하고 안전한 사용법!
3. 저렴한 유지비!
4. 안전한 연등 설치 작업대!
5. 소음 걱정 끝~!

※ 종단 / 교구 / 지역 / 신도회별 단체상담

친환경 녹색산업을 선도하는 - 근우테크㈜ KEUNWOO TECH Co., Ltd.
문의전화 : 010-7518-7854, (053)801-7897, 7895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 공단로 82-6(검단동 887-160번지) www.kw-tec.co.kr

불자 세상보기

# 공직자 도덕성과 공무원의 산소 역할



고영섭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사회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 개인이자 공인이다. 집안에서는 가족의 일원이지만 집밖에 나가면 그 집의 대표가 된다. 직장에서는 그곳의 일원이지만 직장 밖을 나가면 그곳의 대표가 된다. 나라 안에서는 국민의 일원이지만 나라 밖에서는 국가의 대표가 된다. 이처럼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인의 공적 영역은 맞물려 있는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러한 현실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의 실존적 삶 모두가 상호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붓다는 나의 존재성을 연(緣)이라는 타자를 통해 규정하는 원리인 연기법(緣起法)을 발견했다. 오늘의 나의 성취는 무수한 사람들의 도움과 협동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들의 도움과 협동 없이 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리로만 알아서는 안된다. 그 사실을 가슴을 넘어 온몸으로 알 때 우리는 비로소 그렇게 살게 된다. 성인은 앎과 삶의 거리를 무화시킨 존재이다. 반면 성인은 아니지만 삶의 질적 제고를 생각하는 사람은 앎과 삶의 거리를 최소화하려는 사람이다.

정부는 나라를 통치하는 공공 기관이다. 이 공공기관의 일원인 공직자 즉 공무원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높은 도덕성을 지녀야 한다. 그는 집안에서의 개인이 아니라 한 정부의 공인이기 때문이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벌이고 공직 기강 확립에 나섰다. 이러한 때에 국세청 간부들이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다. 뒤이어 감사원 간부들도 성매매를 한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들은 지난 3월 19일 밤 감사원 공무원 2명이 1인당 비용이 100만원인 서울 역삼동 한정식집에서 식사를 하였다. 그 뒤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 성매매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시인이 그 사회의 '산소 역할'을 하듯이 공무원도 그런 산소 역할의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과 감사원 간부들의 대가성 접대와 향응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우리 사회 공직자의 기강 해이와 공무원의 일탈 행위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를 가늠하게 해 준다. 이들 공직자들의 잇따른 적발과 체포를 계기로 정신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곳에 참석한 이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대가성 접대 여부를 철저히 따져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본디 국세청은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공적 기관이다. 이곳은 국민의 세금을 거둬 곳간에 두고 한 해의 살림살이를 가늠하고 기획하는 곳이다. 이곳의 간부들은 엄정한 기준에 의해 국민의 세금을 거두는 세리가 되어야 한다. 또 감사원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사정하고 뿌리 뽑는 정부 기구이다. 이곳의 간부들은 사정기관 공무원으로서 청렴을 유지하고 법을 준수해야 만 한다. 그런데도 국세청과 감사원의 공무원들은 부정과 비리를 연이어 저질렀다. 무엇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사정기관은 권력기관이 아니다. 힘이 있는 권력기관일수록 청렴도가 낮다. 사정기관은 보다 많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넓히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해 관계자들의 접대와 로비로 인한 사정기관의 부정과 비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알다시피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기강이 무너지고 권력기관 종사자들의 일탈행위가 심각하다는 공론에 의해 제정되었다. 이 때문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의 개정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법이 정치인들의 이해와 입맛에 맞춰 조변석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우리들 스스로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는 상호 의존의 원리로 이루어진 세계 속에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온몸으로 습득하면 상호 존중의 실천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러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사실을 자각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아파트의 층간 소음 문제에서부터, 도로 상의 과도한 추월 문제의 활로 모색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삶의 품격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소통하여 건강(행복)한 삶을 추구하려는 공무원의 '산소 역할'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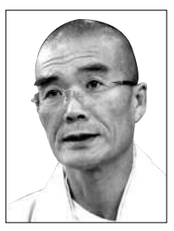
외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언대

### 세월호 1주기에 부쳐

오는 4월 16일은 지난해 온 국민을 슬픔에 빠지게 했던 세월호 참사 1주기가 되는 날이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사고로 평가 받고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아픔은 이어지고 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불교계의 역할에 대해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 "세월호 추모주간 상시로 확대하자"



도철 스님
조계종 노동위원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종교계에서 이를 추모하기 위한 행사를 준비중인 것으로 안다.

조계종에서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의 세월호 희생자 및 실종자 위령재에 이어 4월 16일에는 전 사찰에서 세월호 인양 촉구를 위한 기도, 타종 등을 실시한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1년 동안 물속에 있는 가족이 나오기를 기다린 가족들의 애끓는 심정을 위로할 수 없다. 수몰된 295명의 억울함 역시 풀어내지 못한다.

세월호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다. 조롱하는 이는 물론 인양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깝다며 인양포기를 종용하는 이들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 ·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에 끝까지 공감할 수 있는 건 결국 종교밖에 없다. 종교는 자본의 탐욕을, 이기적인 마음을 꾸짖을 수 있어야 한다. 어찌됐든 검소하고 힘없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이 종교다.

4월 16일 당일만 타종하고 기도하는 걸로 종교의 역할이 끝나서는 안 된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건을 본보기 삼아 안전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이끌어내야 한다. 봄이면 사찰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현수막 만이라도 걸어서 사람들이 사건을 잊지 않도록 돕자. 매일 예불할 때도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며 기도할 수 있길, 추모법회 역시 사찰 곳곳에서 열린다는 소식이 들릴 수 있길 바래본다. 가톨릭에서는 매주 광화문 광장에서 미사가 집전되고 있다. 안산 단원고의 관할교구인 수원교구에서도 매일 세월호 미사를 진행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이런 노력을 이어나가는 것만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한 추모가 될 것이다. 세월호 1주기를 기점으로 종교의 역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불교로 거듭나길 바란다.

## '아픔에 귀 기울이기, 종교의 책무



조성택 교수
고려대 철학과

세월호 참사 1주기가 한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조계종은 오는 4월 14일 조계사에서 1주기 추모 위령재를 열고 16일에는 전국 사찰에서 실종자 귀환과 희생자 추모를 위한 타종식이 진행된다.

세월호 참사는 한국사회의 모든 모순들이 담겨 있는 사고였다. 당시 참사가 발생했을 때 한국불교계는 현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팽목항에 법당을 열어 희생자의 고혼들을 위로했고, 봉사단은 가족과 잠수사 등을 살뜰하게 챙겼다. 최대 피해지역인 안산에서도 스님들은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했다. 아쉬운 점은 개개인 스님들의 노력이 종단과 불교계 전체의 결집된 모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1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가 세월호를 바라보는 시선은 양분돼 있다. 아직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가족들은 지금 "유가족이 되고 싶다"고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음에도 일부 세력은 이를 정치적 프레임에 가둬 놓고 판단하고 있다.

아픔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불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가져야 할 의무이다. 특히 '자비'를 표방하는 불교는 더욱 그러하다. 천개의 손과 천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大慈大悲)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고 제도하는 보살이다. 여기에는 세상의 구제와 중생에게 두려움 없는 마음의 베푼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돼 있다. 관세음보살은 불교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이제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는 개인을 섭수할 수 있어야 한다. 고통에 귀 기울이고 지친 손을 잡아주는 것은 불교와 종교의 책무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듣고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가 남긴 숙제는 바로 이것이다.

社說

# 불교국제단체협의회에 거는 기대

조계종사회복지재단, 지구촌공생회 등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단체 9곳이 모여 한국불교국제개발협력협의회를 3월 23일 출범시켰다. 협의회는 해외 협력사업,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사 · 연구 등을 통해 불교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질적 · 양적 성장을 이끌어낼 예정이라고 한다. 이로써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불교계의 안정적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공동 현안 과제에 전략적 대안 수립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하고 있는 불교계 기관은 약 28곳에 달한다. 200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인 창립이 이어지면서 단체간 협력 논의가 예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실무진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면서 협의체 구축 논의를 거친 지 1년 6개월 만에 협의회가 탄생하게 됐다. 2006년 첫 논의 이후 약 9년 만에 결과물이 도출된 것이다.

네트워크가 없다보니 그동안 사업 노하우나 성과를 공유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외교부와 KOICA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개발협력사업 정책과 자원배분 등에서도 불교계 참여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협의회는 올해 실무자 교육, NGO 봉사단 통합교육, 신규활동가 발굴 · 양성 사업 등을 공동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해외에서 공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업참여 동기 등이 각 단체마다 다르고 재원 조달 능력에도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단체의 유명무실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동협력이 필요한 안건을 정기적으로 선정해 의사조율 경험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불교국제단체협의회가 불교 국제 구호 역량 강화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교계 안팎은 주목하고 있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고 했다. 협의회의 발전이 불교계 국제 구호 발전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본다.

# 어린이 포교 콘텐츠 활용해야 한다

미래불교 성장 동력이 될 어린이청소년 포교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계종 포교원이 3월 26일 일선 현장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포교콘텐츠 활용법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시연회에는 포교원장 지원 스님, 포교부장 송묵 스님을 비롯해 각 교구본사 포교국장과 어린이청소년 법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그간 포교원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 콘텐츠는 주목해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참나와 비전을 찾는 자기주도리더십' 은 참선, 만다라그리기, 절 수행, 사경 등을 소개하면서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 마음등불 인성프로그램' 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되는 포교원 인증프로그램으로 금강선원, 한국명상상담학회, 한마음과학원 등에서 운영하고 있다.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 콘텐츠도 많다. 어린이마음거울 108배부터 △성불도놀이 △육바라밀 △유아용 모바일 게임 '응답하라 아바로' 등을 소개했다. 5월경 출시 예정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반야의 야단법석' 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포교는 기본적으로 투자다. 10년의 시간 동안 씨앗을 뿌리고 키워야 겨우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린이 법회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크고 피드백도 느려서 일선 사찰에서 저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파급효과는 상당하다. 세대 전승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1980, 90년대와는 달리 다양한 어린이 포교 교보재들이 많이 개발됐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 라고 하듯 이제는 일선에서의 활용이 필요하다. 포교원 역시 활용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에 홍보를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또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포교 콘텐츠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서혜원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배성한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53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화제의 책
神이 내려주신 선물
손과 얼굴 보는 법
손과 얼굴은 운명을 결정 한다.
가장 쉽고 정통으로 알고 싶지 않은가?
♣ 타고난 인상이란 그 사람의 자체이며 정보가 된다. 그래서 손과 얼굴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바꾸게 되므로 현대인들에게 관상술은 성공의 비즈니스라 하였다.
♣ 리더는 반듯이 관상을 볼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의 내면을 알고, 상대방까지 알기 때문에 대인 관계가 먼저 좋아진다. 그래서 인상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능력을 들여다 보는 거울이다.
♣ 이 책은 손과 얼굴을 좀더 많이 알게 한다. 당신의 미래는 확실하게 달라질 것을 확신하는 바이다.
♣ "손과 얼굴 보는 법"은 인상학을 정통으로 가장 빠르게 배울 수 있는 국내 최초의 지침서가 될 것이다.
♣ 손과 얼굴은 대박이다. 지금 바로 펼쳐 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사륙반판 / 양장본 / 312쪽 / 정가 17,000원
전국 서점 판매중!
21c 자평 명리학의 신화...
사주풀이의 법수
자평 명리학의 신화...
나의 이력서며 전생기록이며 미래의 설계도인 사주명리학을 공부하고자 하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다.
격국格局과 용신用神으로 운運보는 법
눈이 있는 자는 보고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사주명리의 "핵심"을 찾아라!
많은 사람들은 왜 사주풀이의 법수를 애타게 기다리는가?
자평명리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짚어준다.
지금 바로 이 책을 펼쳐보십시오.
■ 송월스님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616쪽 / 정가 75,000원
韓國人의 新 사주팔자
누가 운명(運命)을 논(論)하고 숙명(宿命)을 운운(云云)하는가?
독학으로 가장 쉽게 배울 수 있는 21C 역학 지침서!
해박한 지식, 명쾌한 논리, 번쩍이는 지성, 만물을 꿰뚫는 투시력, 특히 풍부하고 살아있는 경험 등은 결코 타의 추종을 불허하며 도저히 다른 책에서는 볼 수 없는 新鮮함이 있다.
청산 김성진 지음 · 신국판 · 양장본 · 값 40,000원
홈페이지: www.gubook.co.kr • E - mail: gubooks@naver.com
관음출판사 Tel. (02)921-8434 Fax. (02)929-3470 입금계좌: 110-012-066080 신한은행 예금주(소광호)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 이 책을 읽으면 다시는 헤매지 않고 이 법을 실행하면 가볍게 생사를 벗어난다

**완벽한 해탈문, 정토왕생법**
**가장 빠른 해탈법(神通乘)**
**제일 확실한 해탈법(金剛乘)**
**너무도 놀라운 해탈법(不思意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해탈법(最上乘)**




담허대사 저/ 송상섭 편역(여시아문 刊)
신국판 | 무선 | 부분컬러 | 232쪽 | 12,000원

■ **해탈의 돈법(頓法)이 설파된 보배로운 책**

본서는 중국의 고승 담허(1875~1963)대사의 명저인 『염불론』을 무심 송상섭 선정수련원 지도원장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이다. 내용이 간략하고 더없이 명확하다. 헤맬 필요가 없는 가장 중요한 해탈법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 옛 중원(中原) 오종(5宗: 선종, 교종, 밀종, 율종, 정토종)의 진액을 하나로 모아 읽으면 누구나 낙오 없이 해탈하게 되어있다.

말만 풍성하고 핵심이 빠진 내용은 읽을 수록 심혼만 산란해지고 해탈로 가는 길을 오히려 방해한다. 이 책은 그런 폐단이 없다. 누구에게나 적극 추천하고 싶은 더없이 보배로운 책이다. 경전이나 선정을 바르게 공부한 사람이면 누구라도 호흡을 가다듬고 경건히 옷깃을 여미게 하는 내용이다. 그윽이 조심스러운 것은 행여 아상이 높거나 법을 불신하거나 경망한 사람이 이 책을 가볍게 대할까 크게 두렵다. 여래께서 간절히 일러주신 해탈의 돈법(頓法)이 숨김없이 확연히 설파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또한 염불을 통해 일념, 무념에 들 수 있는 방법으로 사마타(止)와 위빠사나(觀)를 동시에 닦는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설명하면서, 선정(禪定)의 힘을 얻는 방법도 체험적으로 일러주고 있다. 선정을 닦지 않으면 의식이 자유로워지는 해탈은 문도 없고 길도 없다고 하지 않는가? 또 삼계를 벗어나 불국토로 왕생하는 염불수행 조차도 선정이 기초로 이뤄지지 않으면 일심불란의 큰 집중력은 마련되기가 매우 어렵다. 선정이 깨달음이든 극락왕생이든 모든 수행의 중심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관쌍수(止觀雙修)는 순일한 집중력을 배양하는 지(止)와 밝은 통찰에 이르는 관(觀)을 고루 닦는다는 말이다. 줄여서 이를 정혜쌍수(定慧雙修)라고도 말한다. 집중 위주의 사마타와 관찰위주의 위빠사나를 함께 닦는 융합적인 수행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수행도 만약 너무 한쪽만 쏠려 닦으면 절름발이처럼 원만한 수행이라고는 말하기 어렵다. 광신도처럼 집중은 잘 하는데 단순하고 지혜가 없거나 지식만 최고로 아는 사람처럼 머리는 있으나 실행력이 빈약하면 지혜와 실천 즉 안팎을 고루 갖춘 큰 수행은 못되는 것이다.

이 책은 선정과 지혜, 사마타와 위빠사나, 염불과 참선을 닦는 모든 수행자들이 읽으면 수행의 일대전환을 이룰 수 있는 책으로서 일독을 권한다.

■ **책 속의 한 구절**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

우리의 의식 즉 한 생각 속에는 열 가지 법계(十法界)가 구족하다. 즉 온 우주가 통으로 우리 마음 안에 모두 잠겨 있다. 이른바 십세고금(十世古今, 영원한 시간)이 이 한 생각(우리의 의식)을 여의지 않았으며 티끌과 같은 찰토(刹土, 온 세계)가 털끝만큼도 막히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영겁의 시간과 무한한 공간이 우리의 현재 갖고 있는 이 의식 안에 고스란히 다 숨어있다는 말씀이다.

"만약 발심하여 염불하면 일념염불이 일념의 깨달음이고, 념념(念念)염불하면 념념이 곧 깨달음인 것이다."

즉 다시 쉽게 해설하면 염불하는 그 생각마다 밝게 깨쳐있는 마음이고 순간순간 외우는 그 마음 안에는 순간 순간의 더없이 밝은 깨달음이 아주 신령스럽게 작용한다는 그 말씀이다. (23p)

###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과거의 조사님들 천태지자(智者)대사, 영명선사, 우익(藕益)대사, 철오(徹悟)선사 등과 같은 분들도 나중엔 정토로 귀의해 염불을 전념하셨다. 또 남에게도 염불을 적극 권하셨다. 왜냐하면 다른 수행을 하면 근기가 잘 맞지 않거나, 혹은 상당(相當)한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을 때 잘못된 길로 들어서기 아주 쉽고 그 병폐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염불하는 사람은 서천에 대한 믿음(信), 가고자 하는 원력(願), 지속적인 염불의 실천(行)만 구족하면, 이미 부처님의 힘을 의지하고 또 자력에 의지하니 절대로 길을 잘못 들어설 염려가 없다.

그러기에 염불법문은 가장 쉽고 가장 빠른 첩경이다.

다른 수행은 오직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삼계(생사를 반복하는 우주)내의 견혹(見惑, 잘못 보아 생기는 미혹)과 사혹(思惑, 잘못 생각해서 생기는 미혹)을 완벽할 만큼 남김없이 끊어야만 진리를 증득하여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다. 말이야 상당히 쉽지만 실제로 상당한 공부가 없으면 결과는 성공하기가 지극히 어렵다. (34p)

### 한마디 아미타불은 최상승의 법이며 무량한 법문(法門)을 포괄한다

아미타경은 석가모니부처님이 무문자설(無問自說, 제자들의 질문이 없는데 붓다 스스로 말씀하심)하셨는데, 서방극락세계의 의정 이보장엄(依正二報莊嚴, 즉 자력과 타력이 함께 한 장엄)과 염불하여 극락왕생할 것을 설하셨다.

그의 의미는 법화경과 같다. 왜냐하면 법화경도 사리불존자에게 설하셨으며 제자들의 어떤 질문도 없이 붓다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무문자설(無問自說)이었다.

부처님은 무량의경을 설하시고 난후 무량의처삼매(無量義處三昧)에 들어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미간의 백호상광(白毫相光)을 내뿜으며 동방 팔천토(東方八千土)를 비추고 갖가지 상서로운 모습을 나타내어 법문을 듣는 대중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의심을 갖게 하셨다.

미륵보살과 문수보살이 대중을 위해 의심을 해결한 후에, 부처님은 곧 삼매에서 편안히 나오셔서 청하여 묻는 질문자가 없으나 사리불존자에게 말씀 하셨다.

"모든 부처님의 지혜는 매우 깊고 무량하다. 그 지혜의 문은 이해하기 어렵고 들어가기가 정말 어렵다. 일체성문 벽지불도 전혀 알 수가 없다... 매우 깊은 일찍이 없었던 법을 성취하고..." (52p)

**저자 소개**

〈염불론〉의 저자 담허대사(1875~1963)



중국 하북 영하(河北 寧河, 현 天津) 출신. 속성은 왕(王)이고 이름은 복정(福庭), 법호(法號)는 융함(隆銜), 자(字)는 담허이다. 17세에 아버지의 명에 따라 혼인을 하여 다섯 명의 자식을 낳았다. 주로 농사일을 하였으며, 아울러 작은 장사도 하면서 생활하였는데, 후에는 다시 의술을 익혔다. 경자사변(庚子事變)을 당하여 영구(營口, 용령성 남부)로 피신하여 한의원을 열었다. 40세에 〈법화경〉을 듣고 즉시 속진을 떠나고자 하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민국6년(1917) 43세 되던 때, 천진에 있는 청수원(淸修院)의 청지법사(淸池法師)의 인도로 내수 고명사(高明寺)의 인고법사(印魁法師)를 의지하여 출가하였다.
이듬해 남쪽으로 내려와 영파(寧波) 관종사(觀宗寺)의 제한대사(諦閑大師)를 의지하여 구족계를 받았다. 아울러 제한대사 슬하에서 천태교관(天台敎觀)을 익혔다. 민국10년(1911) 심양(瀋陽) 만수사(萬壽寺) 불학원에서 강석을 열어 법문을 하였다. 1915년에는 제한법사(천태종 43世)의 부촉(咐囑)에 의해 보정(寶靜, 1899~1940), 정권(靜權, 1881~1960) 법사와 더불어 천태종 44세가 되었는데, 이때 금함(金銜)이란 이름을 받았다. 이후 동북지방 각지에서 경전을 강설하며 불법을 널리 폈으며 아울러 많은 도량을 창건했다. 그 중에서 하얼빈의 극락사(極樂寺), 장춘의 반야사(般若寺), 영구의 능엄사(楞嚴寺)가 가장 규모가 크다. 그 후로 청도 담산사(湛山寺)의 주지가 되어 스스로 담산노인(湛山老人)이라 불렀다.
만년에는 홍콩에서 홍법하면서 화남불학원(華南佛學院)을 설립하여 원장을 맡았으며, 또한 중화불교도서관(中華佛敎圖書館)과 불교인경처(佛敎印經處), 천태정사(天台精舍), 홍법강당(弘法講堂), 청산(靑山) 극락사(極樂寺) 등을 설립하였다. 1963년 봄에 (중화불교)도서관에서 〈능엄경〉과 〈금강경〉을 강의하였는데, 오래지 않아 대중들의 염불소리를 들으며 가부좌하고 시적(示寂)했다. 세수 89세였다.
대사가 일찍이 평생의 사적을 구술한 것을 제자인 대광(大光)이 기록하여 〈영진회억록(影塵回憶錄)〉이란 이름으로 출판하였다. 주요저작으로는 〈금강경강의〉, 〈심경의소(心經義疏)〉, 〈심경강의(心經講義)〉, 〈기신론강의(起信論講義)〉, 〈보현행원품수문기(普賢行願品酬聞記)〉, 〈능엄경강의〉 등이 있다. 나중에 제자들이 스승의 법문과 저작을 모은 〈담산대사법회(湛山大師法匯)〉가 세상에 전해지고 있다.

# 12선사의 살림살이가 녹아든 깨침의 노래 禪詩 '완전 이해'



(맨윗줄 왼쪽부터) 효봉 혜암 한암 학명 스님, (둘째줄) 용성 만해 만공 동산 스님,(셋째줄) 고암 경허 경봉 만암 스님. 모두가 근현대 한국불교를 풍미했던 선지식들이다.

염화시중의 미소만 미소랴. 한국 근·현대의 불교를 이끌었던 선지식도 중생제도를 위해 한 없는 자비의 웃음을 날렸다. 그러한 웃음을 선가(禪家)에서는 '황금털사자(金毛獅子)의 미소'라고 일컫는다. '황금털사자'란 존재의 모습을 표현하는 인간의 한계를 드러낸 뜻이리라. 선사들은 삶 속에서는 물론, 법문에서, 제자 사랑에서 그 미소를 강물처럼 쏟아냈다. 이것이 노래로 우러 나오니 바로 선시(禪詩)가 됐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송준영 지음, 여시아문 펴냄)는 한국 근현대 선사들의 선시를 씨줄로, 이들의 삶과 수행을 날줄로 해서 이들 고승들의 진면목을 다루고 있다. 한국불교 근대 중흥조 경허 스님을 비롯해 용성·학명·만공·한암·만암·만해·효봉·혜암·동산·경봉·고암 스님 등 12명의 걸승이 그 주인공이다.

그동안 이들 선사를 개별적으로 다룬 저서도 많았고, 또는 모두를 한곳에 옮겨놓은 책도 적지 않았다. 이 책이 주목받는 것은 선사들의 자취가 오랜 시간 구전되다보니 더러는 뒤섞이기도 하고, 어느 것이 어느 분의 행장인지 구분하기조차 어려워진 측면도 있었는데, 이것을 잘 정리해 놓았기 때문이다. 계간 '시와 세계' 발행인겸 주간으로 있는 지은이가 18세때 선문에 든 이후 동암·탄허·고송·성철·서옹 스님 등 여러 고승들을 만나고, 특히 서옹 선사에게서는 7년간 7차례나 의문나는 점을 물었고, 그 답을 얻어냈기에 가능했다.

선시를 통해 선사들의 생애를 조망하는 것은 참으로 신선한 시도다. 하지만, 선시에 대한 문학적 이해가 없어도 가능할까. 지은이는 이면의 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일반 시와 선시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한다. 다만 선시는 중생을 눈뜨게 하는 한 방편으로 읊어졌다는 데 차이점을 둔다. 본래면목을 보여주기 위한 선시 고유의 수사학(修辭學)이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이 보여주고자 했던 새로운 상상의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 선시여서 크게 어려울 것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선시를 이해하다보면 조사들의 선풍은 물론, 실험적 포스트모더니즘의 시를 이해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책에는 12명 선사들의 게송, 법어나 소참법문, 직접 쓴 서간문, 투고글, 대담, 각 선사들의 법맥, 행장, 연보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가능한 문도회에서 만든 어록이나, 학자들의 근거 있는 기록, 인용할 가치가 있는 자료 중심으로 묶었다고 한다.

경허 스님의 '졸음' '돌사람' '심우송' 등 게송은 제목만 들어도 다정다감하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내용을 파고들면 극도로 탈속된 담담한 경지를 보여준다. 만해 스님이 학명 선사의 깨침에 대해 준 지어준 게송(일에 다다르면 고생이 많고/사람을 만나면 이별이 있다/원래 세상이치 이러하니/남아라면 '이것' 마음대로 살라·臨事多難處/逢人足別離/世道固如此/男兒任所之)은 수선납자의 목숨을 빼앗을만큼 강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본래 선시는 인도의 '가테(gata)'가 중국으로 들어와 '게(偈)'로 음사되었다고 한다. '가테'는 언어를 빌려 언어 밖의 현묘한 이치를 읊은 것. 이 게가 본래 있었던 '송(頌)'과 합쳐져 게송이 된 것이다. 지은이는 선시가 시라는 장르에서 발전된 것이라기 보다는, 선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를 차용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그래서 선시를 문학이라는 장르에 가두지 말고, '선문화에 대한 진검, 혹은 지혜의 검'으로 승화 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선문염송 강의록 〈현대언어로 읽는 선시의 세계〉로 선시연구의 일가를 이뤘다는 평을 들어 온 것이 우연이 아니다. 선시에 대한 해박한 이해며, 고승들의 진면목에 대한 깔끔한 정리가 돋보이는 책이다.



〈황금털 사자의 미미소〉
(경허에서 고암까지)
송준영 지음 | 양장
575쪽 | 신국판 | 25,000원